

제주 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책임자 : 이 화 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발 간 사

최근 매년 제주지역에 유입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제주지역의 순유입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해는 무려 4만 명 가까이 이주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입인구의 증가는 ‘제주이민’이라는 신조어의 탄생과 함께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 이주한 정착주민의 증가는 제주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사회적으로는 교통 혼잡이나 주택, 일자리 등의 문제와 함께 정착주민과 선주민간의 갈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4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착주민지원센터와 정착주민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정착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국내 정착주민에 대한 실태와 정책수요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제주로 이주하는 정착주민에 대한 실태파악과 욕구조사 등을 위하여 정착주민의 이주목적, 구성원의 집단적 특성 등 구체적인 최근동향을 파악함은 물론,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선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여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연구자문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사를 담당해 주신 조사원 여러분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면접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자료를 챙겨주시고 수시로 현안을 논의해 주신 관련부서 공무원들 비롯하여 연구를 진행한 이화진 연구원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보고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귀한 의견을 주신 외부의 연구평가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연구가 제주지역 정착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선주민간의 융합 및 상생을 위한 방안마련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6년 5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현혜순**

연구요약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 제주의 유입인구 증가로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에 대한 대응필요
 - 제주에 이주한 정착주민의 급격한 증가로 정착주민의 적응 및 정착문제, 선주민과의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갈등, 주택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문제 등 제주사회에 정착주민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 정착주민의 원활한 정착은 물론 선주민과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2. 연구내용

- 제주지역 정착주민의 현황 파악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한 정착주민의 이주동기, 생활실태, 삶의 만족도, 선주민과의 관계,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 정책수요 등을 파악함
- 정착주민의 원활한 정착은 물론 선주민과의 화합과 상생 및 지역사회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 제시

3. 연구방법

가. 연구절차

- 본 연구는 2016년 1월에서 5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연구진행과정은 아래 표와 같음

연구수행 절차

1월	• 연구계획 수립	⇒	• 착수보고 (연구심의위원회) • 연구세부계획 수립, 자문단 구성 등
2월	• 연구방향 설정	⇒	• 1차 자문회의, 담당 공무원 면담 • 문헌고찰 및 현황자료 수집·분석
3월	• 설문지 개발 및 조사	⇒	• 설문지 검토 및 수정 • 설문조사 착수
4월	• 심층면접조사	⇒	• 심층면접 조사 및 분석 • 설문조사 결과 분석
5월	• 보고서 집필	⇒	• 전문가 회의 및 토론회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 • 보고서 평가 및 수정 • 최종 보고서 제출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제주 이주의 현황 및 동향 파악
- 이론적 배경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 설문조사

- 제주지역 정착주민 500명 대상
- 제주지역 42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조직된 ‘정착주민협의회’를 통한 편의 표집
- 조사내용 : 이주동기 및 목적, 정착과정 경험, 적응과정의 어려움 및 정책수요

○ 심층면접

- 정착주민 및 선주민 포함 18명
- 조사내용 : 이주과정(준비~이행) 경험,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 가족관계 변화, 토착민과의 갈등 경험 및 해소과정, 정책수요 등

4. 연구범위 및 용어정의

- 본 연구의 대상 및 범위는 공간적으로는 국내에서 유입된 정착주민을 대상으로 하

고 이주시기별로는 정착주민이 급격히 증가한 2010년을 전후로 비교적 최근에 이주한 사람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되, 본인이 제주생활에 익숙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정착주민을 포함함

-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이외에서 이주해서 거주하는 사람을 정착주민으로 정의하고 정착주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착주민보다 약간 먼저 살던 사람을 의미하는 선주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함

제2장 제주지역 정착주민 현황 및 관련정책

1. 국내 인구이동 현황

- 우리나라는 근대화 이후 이촌향도의 인구이동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1960년대 이후 공업화·도시화의 본격적인 진전에 따라 다수의 농어촌 인구가 도시지역 및 개발지역으로 이주함
- 1970~1990년 전 기간에 걸쳐 서울·부산·경기가 전입초과 현상을 보인 반면, 강원을 비롯한 나머지 8개도가 모두 전출초과 현상을 나타냈고 서울과 인접지역인 경기를 비롯하여 대도시 지역과 그 주변부에는 인구집중현상이 심화되었음
- 2000년 이후 최근의 변화는 부동산 경기나 고용상황 등에 따라 다소 증감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고령화, 산업화, 및 도시화가 완화되고 교통의 발달 등으로 도시집중화 현상이 감소하고 있음
- 최근 세종시 및 혁신도시건설, 산업단지조성 등 지역균형 개발정책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의 비수도권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이 둔화됨에 따라 지역의 인구이동 패턴의 특성을 감안한 대응이 마련되어야 함

2. 제주 인구변화와 정착주민 현황

가. 제주지역 인구변화

- 2000년 이후 제주이주의 촉발요인으로는 글로벌 시대의 도래와 함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였고 지방정부의 외자 및 기업의 유치사업으로 상당수 이주민이 기업이전과 함께 유입되었음

- 정부의 수도권 기업이전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제주지역의 기업유치 노력도 활발해 짐, 2000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지방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발전 역제를 위하여 세 금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으로 제주지역 인구유입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최근 제주지역 정착주민들은 한국사회의 과도한 경쟁 시스템에 지친 사람들이 자연 과 더불어 느리게 살면서 위안을 삼으려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많음 (홍 창욱, 2015)

나. 제주 정착주민 현황

- 지역별 순유입 인구의 증가는 제주시가 2012년 4,404명에서 2015년 8,507명으로 약 4,000명 증가하였고 서귀포시는 2012년 472명에서 2015년에는 5,750명으로 무려 5,000명 이상 증가해 최근 서귀포 지역의 인구 증가현상이 뚜렷함
- 제주 유입인구의 세대별 분포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30대가 22.9%로 가장 많고 40대(18.6%), 20대(17.4%)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으나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

3. 정착주민 관련 정책

가.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정책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정착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정착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조례에 명시된 정착주민 관련 지원 사업 내용과 2016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다 음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지원 업무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착주민 지원사업 내용	정착주민 지원업무 (지역균형발전과, 2016)
1. 정착정보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 정주관련각종 정보제공 사업 2. 정착주민에 대한 창업, 취업 등 지원사업 3. 정착주민에 대한 주거, 문화, 교통, 의료, 안전 등 정주환경 개 선 사업 4. 제주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현장 답사 기회 제공 사업	1. 정착주민 지원센터(읍면동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2. 정착, 지역민과의 융화협력(네트워크) 사업 3. 찾아가는 정착주민 제주 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착주민 지원사업 내용	정착주민 지원업무 (지역균형발전과, 2016)
5. 마을주민과의 상생 협력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정착지원과 네트워크 강화사업 6. 교육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정착주민 제주융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7. 정착주민의 재능, 기술 및 경력의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참여 촉진 사업 8. 정착주민에 대한 제주도민 환대 제고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 성사업	4. 제주 정착주민 지역 융화 홍보사업

나. 국내 귀농·귀촌 정책

- 시도별 귀농귀촌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은 타 지역이 답보상태이거나 약간 증가한데 반해 귀농인의 인구가 2012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고 2014년에는 3,875 명으로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국내 귀농귀촌 정책은 201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 를 통해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정부는 관련부서를 통해 귀농·귀촌 인에 관한 단계별 지원 매뉴얼을 작성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중임

제 3 장 제주 정착주민 실태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방법
 - 가구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 관련단체(귀농·귀촌 협의회, 정착주민협의회 등)를 통한 조사를 병행하였음
 - 특정집단 조사의 어려움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나 최대한 지역의 편중을 피하고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의 전 지역에 걸쳐 대상자를 표집함
- 조사 대상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정착주민 500명을 조사함
- 조사 내용 : 정착준비과정, 적응단계, 정착안정기, 정책욕구 등이고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조사결과 분석은 빈도분석을 주로 하였으며 집단 간의 차이검증을 위해 카이검증을 하였음

설문조사 내용

영역	세부영역
정착준비	이주동기, 준비기간, 정보습득경로 등
제주 적응단계	적응정도, 직업 및 소득의 변화, 생활의 어려움, 생활만족도(자연환경, 여가문화, 거주환경, 교통환경, 교육환경, 복지환경,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 등) 도의 지원혜택 인지 여부 등
제주 정착 안정기	지역사회 참여(참여현황, 참여방법 등), 네트워크 형성, 삶의 질 변화, 이주 만족도
정책욕구	필요한 민원 및 정보, 지원센터 이용경험, 만족도, 정책욕구 등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제주시 59.4%, 서귀포시 36.0%로 (2015년 통계 기준 제주시 이주민이 약 67%, 서귀포 지역이 33%)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이 51.8%, 여성이 48.2%로 남성이 약간 높은 비율을 나타냄 (2015년 통계 남성 52.5%, 여성 47.5%)
- 연령별로는 20대가 9.0%(2015년 통계 17.4%), 30대 29.2%(2015년 통계 22.9%), 40대 36.0%(2015년 통계 18.7%), 50대 이상은 25.8%(2015년 통계 2.0%)로 나타남
- 이주 이전 거주지로는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에서 이주한 정착주민이 5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3. 정착준비 과정

가. 정착동기

- 정착동기 1순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직장 및 사업체 이동 (29.8%)이 가장 많았고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로 선택(28.0%), 제주 자연에 매력(21.4%) 순으로 나타남

나. 준비기간

- 이주를 위한 준비기간은 절반 정도(51.0%)가 1년 미만이었고 1년~2년 미만 준비한 대상자가 27.0%로 나타남
- 이주를 위해 2년~5년 미만 비교적 장기간 준비한 경우도 22.0%나 되었음

다. 필요한 정보

-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나 민원 1순위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구입안내 및 등기(38.6%), 일자리 알선(18.7%), 귀농 귀촌 교육(12.0%), 제주 이해 프로그램(11.6%) 순으로 나타나 거주를 위한 공간 마련과 일자리 관련 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라. 이주결정이 어려운 요인

- 제주에서의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28.4%)과 낯선 사람과의 적응(22.2%), 직업변경 및 주변정리(20.2%)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보다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남성 34.7%, 여성 21.6%)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남성보다 직업 변경 및 주변정리(남성 16.6%, 여성 23.7%)와 기후와 같은 새로운 환경 적응(남성 6.9%, 여성 11.2%)이 높게 나타나 남성은 경제적인 문제에 여성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더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마. 정보수집

1) 정보수집 방법

- 이주관련 정보수집 방법 1순위를 분석한 결과 제주에 먼저 이주한 지인을 통하여가 44.4%, 직접 조사와 제주출신 지인을 통해서가 각각 15.8%, 총 응답자의 36.6%를 차지하며, 인터넷, SNS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보습득이 12.2%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문화강좌 1.2% 도청 홈페이지나 공무원을 통한 정보습득 1.6%로 가장 낮게 나타나 공적 영역에서의 정보제공 서비스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2) 정보 수집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

- 인터넷 공간을 통한 정보수집(34.8%)이 가장 높았고 주민센터 등 담당 공무원의 상담(31.6%)으로 나타나 지역의 담당 공무원을 통한 정보수집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음

4. 적응 과정

가. 적응 정도

- 적응되었다는 응답이 70.6%, 적응이 안 되었다는 응답이 29.4%로 대부분이 적응되었다고 응답함
-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적응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사회적 약자일수록 낮은 환경에 잘 적응한다고 풀이할 수 있음

나. 직업의 변화

1) 정착 이전과 이후 직업 변화

- 정착주민의 이주 이전직업은 사무/관리직 비율이 가장 높고(29.4%), 자영업(18.0%), 판매/서비스직(11.0%) 순이었으나 이주 이후 직업은 자영업이 가장 높고(32.8%) 판매/서비스직(13.6%), 1차 산업(12.2%)으로 나타나 이주 이전에 비해 사무/관리직 비율은 현저히 줄고 1차 산업과 자영업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남

2) 정착 이후 직업 변경 원인

- 제주 정착 이후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는 269명으로 전체 응답자 500명중 절반이 넘는 약 53.8%를 차지함
- 정착 이전과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가 가장 많은 46.1%를 차지했으나 동일 분야라도 제주의 소득이 낮아서 (15.6%) 이거나 동일 분야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10.0%)도 상당수 있었음

다. 소득의 변화

- 제주정착 이전 소득은 300-400만 원이 25.8%, 200-300만 원이 24.3%, 100-200만원이 12.6% 인데 반하여 제주정착 이후의 소득분포는 200-300만 원이 24.3%, 100-200만 원이 33.9%, 100만 원이하도 22.6%로 나타나 제주 정착 이후 소득이 낮아진 것으로 추측됨
- 정착 이후 소득은 연령별로 비교했을 때 100만 원이하의 20대가 가장 많고 (26.4%),

100만 원-200만 원은 50대(51.5%), 20대(41.4%), 30대(34.1%) 순이었고 200~300만 원대는 40대(29.0%)로 가장 많아 20대와 50대 이상이 저소득층에 많이 분포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라. 삶의 질 변화

- 제주 정착이후 삶의 질(평균 3.68)은 정착이전(평균 3.22)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됨

마. 영역별 생활 만족도

- 정착주민들의 이주 이후 영역별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는 자연환경(평균 4.20)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여기문화와 친환경적 교육환경(평균 3.13) 등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 반면 도의 지원정책(평균 2.29)이나 교통 환경 및 접근성(평균 2.46), 경제활동 및 소득(평균 2.65)부분에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임

바. 생활 만족/불만족 원인

1) 생활만족 원인

- 제주생활이 만족스러운 요인에 대한 1순위 응답에서 전체적으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적은 비율이지만 ‘제주에 투자한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라고 응답한 대상이 8.2%를 차지함

2) 생활 불만족 원인

- 제주생활이 불만족한 원인 1순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제주도내 교통이 불편해서’가 가장 높은 비율(33.8%)을 나타냈고 제주도민의 배타성(12.1%)과 일자리 부족(11.0%) 순으로 조사됨

사. 선주민들과의 관계

- 선주민과의 관계에 관한 의견을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3.31로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3.19)보다는 여성(3.44)이 선주민과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하였고 연령별로는 20대(3.78)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선주민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는 전체의 절반 정도가 이웃과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어서 이나 선주민이 배타적이라는 의견도 20.1%로 조사되었음
- 선주민이 배타적이라는 의견은 남성(18.8%)보다는 여성(21.5%)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28.2%)와 20대(20.0%)가 많았으며 거주기간별로는 4년~10년 미만(26.3%), 10년 이상(25.8%)이 높게 나타나 거주기간이 오래되어도 선주민의 배타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선주민과 융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착주민과 선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30.8%)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착주민 자신의 태도변화 (24.2%), 정착주민과 선주민의 네트워크 구축(19.3%) 순으로 나타남

5. 정착 안정기

가. 영역별 지역 참여도

- 정착주민의 지역 내 행사 참여활동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항목별로는 문화운동 등 여가활동이 가장 높았고(2.89) 자녀학교 행사(2.68), 기타(2.56), 마을회의나 행사(2.45) 순이었음
- 마을내의 경제활동이나 농민단체 모임 등의 참여는 낮게 나타나 오히려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는 참여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나. 정착을 통한 목표달성

- 제주 정착 이후 이주를 통한 목표달성 정도에 관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3.10(중간정도 2.50) 으로 약간 만족한 것으로 조사됨
- 거주 지역별로는 동 지역(제주 2.99, 서귀포 3.04)보다는 읍면지역(제주 3.15, 서귀포 3.21)이 정착을 통한 목표달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귀포 읍면 지역 거주자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귀포 읍면 지역 거주자들의 이주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다. 영구정착 의지

- 제주에 영구 정착 의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무려 응답자의 64%가 영구정착 의지가 있다고 응답함
- 지인에게 제주 이주를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를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3.25로 나타나 이주를 권유할 의향이 약간 높은 것으로 드러남

6. 정책욕구

가. 지원수혜 경험

-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이주와 관련한 혜택을 받은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20.4%가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은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귀농귀촌 교육(48.5%)이 가장 높았고 제주문화 이해하기 교육(24.8%)과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사업(10.9%) 순이었음
- 정착주민 관련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정보가 없어서’ (52.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돼서’ 라는 응답(32.8%)도 상당수 드러남

나. 지원혜택 만족도

- 제공받은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평균 3.45로 약간 만족한 것으로 조사됨

다. 정착주민지원센터 인지도 및 이용경험

1) 정착주민지원센터 인지

- 응답자의 정착주민지원센터 인지도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는 모른다고 응답한 대상이 64.1%에 달함

2) 정착주민지원센터 이용경험

- 정착주민지원센터 이용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는 응답자 중 15.4%만이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고 연령층인 40대(20.0%)와 50대 이상(21.8%)이 정착주민지원센터의 이용경험이 높았고 20대(6.7%)와 30대(7.0%)에서 이용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별 이용경험 비율은 제주지역(동지역 7.8%, 읍면지역 12.0%)보다 서귀포 지역(동지역 26.4%, 읍면지역 21.7%)이 이용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정착주민지원센터 도움 정도

- 정착주민지원센터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조사결과 응답자 전체적으로는 평균 2.46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라. 생활 민원 상담 대상

- 생활민원이나 사회문화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하는 대상은 전체적으로는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34.9%)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마을주민(17.4%),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직원(15.8%), 정착주민 동료(1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장이나 통장(3.4%)과 상담을 하는 비율은 극히 낮았음

마. 필요한 지원

- 정착주민을 위한 지원 정책조사에서는 경력과 기술을 활용한 사회참여기회 제공(28.7%), 일자리 알선(25.8%),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13.4%) 순으로 나타남

바. 사회참여 방법

- 지역사회 참여방안 조사결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참여(44.5%), 자원봉사(25.8%)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남성 49.2%, 여성 39.5%)과 각

중위원회 참여활동(남성 9.1%, 여성 5.6%)이 높은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원봉사활동(남성 21.4%, 여성 30.5%)이나 지역의 자생단체 활동(남성 8.3%, 여성 15.5%)이 바람직한 사회참여방안이라고 응답하였음

제4장 심층면접 결과 분석

1. 심층면접 개요

가. 심층면접 방법 및 개요

1) 조사개요 및 대상자의 특성

- 심층면접대상자는 정착주민 12명, 귀향인 1명, 선주민 5명으로 구성함
- 대상자 선정은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되 성, 연령, 직업, 이주동기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함
- 면접방식은 연구자가 직접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함
- 조사내용은 정착주민들은 이주결정 동기, 이주이후 적응과정에서의 경험, 선주민과의 관계, 선주민과의 갈등 해결 및 상생방안 등으로 구성하였음
- 선주민에 대한 면접조사 내용은 정착주민 증가이후 변화, 정착주민에 대한 인식, 정착주민과의 관계, 상생방안 등으로 구성하였음

2. 심층면접 결과

가. 정착 준비단계

1) 정착동기

- 경쟁위주의 삶에서 탈피, 육체적·정신적 힐링 및 치유
- 대안적 교육을 위한 선택

2) 정착을 위한 준비 : 인터넷카페, SNS 중심으로 정보수집

- 심층면접에 참여한 이주민들은 이주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제주에 와서 현장

조사를 하거나 지인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인터넷 카페나 소셜 네트워크(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많이 이용하고 있음

나. 정착 과정

1) 구직 및 경제활동의 어려움

- 면접자들은 대부분 이주이전 지역에서 하던 일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을 시작하지만 같은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상당 수 발생함
- 동일업종에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간관계를 통한 신뢰관계 형성이 어려운 점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2) 의사소통의 어려움

- 면접자들의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제주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들 수 있음
- 제주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제주인과 가족관계를 맺고 이주하는 경우 더욱 심하다는 의견이 있음

3) 생활문화의 차이

- 정착주민과 선주민들의 생활문화의 차이로 인한 적응상의 어려움은 제사, 별초, 경조사 등으로 생활문화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선주민들과 일상 생활에서 잘 융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선주민의 입장에서 비교하면 정착주민들의 생활문화에서도 자신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함
- 특히 도시생활을 하던 정착주민이 제주의 시골마을에 정착할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 앞 도로의 잡초제거나 마을 세를 비롯한 행사비용을 부담하는 문제 등에서 인식 차이를 발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4)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 갈등

- 가족이 함께 이주했으나 남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제주에 정착하는 것을 두고 가족 구성원 간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갈등이 발생함

5) 기후 적응, 대중교통 불편, 병원 등 편의시설 접근성

- 기후적응의 어려움으로는 잦은 안개, 높은 습도, 시골에서 사는 경우 별레 등이 있음

6) 정서적 긴장감

- 면접자들 중 상당수는 제주 정착 이후 외부환경이나 시간적으로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으나 정서적으로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없다고 지적하고, 도시에 비해 남의 눈을 의식해야 하고 선주민들간에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어 인간관계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다. 선주민과의 관계

1) 정착주민과 선주민 : 물과 기름?

- 대부분의 면접자들은 선주민들과의 관계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융합하기 어려워 ‘물과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음

2) ‘제주사람’과 ‘육지사람’의 경계

- 선주민들의 정착주민에 대한 인식은 제주사람과 육지사람의 경계를 나누고 구별하며 그 기준은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제주사람과 육지사람에 대한 경계나누기의 기준은 자신이 태어난 곳 뿐 아니라 부모님의 출생지 또한 중요하며, 가족관계, 제주에서 살아온 시간 등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주민들은 정착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구별 짓기를 통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

3) 정착주민과 선주민간의 인식 차이

① 정착주민이 불편한 선주민

- 정착주민에 대한 선주민의 인식은 ‘왠지 모를 불편함’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선주민들이 정착주민에게 가지는 불편한 심정은 오랫동안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온 익숙한 삶의 패턴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함
- 정착주민을 대하는 선주민들의 불편한 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피해의식, 섭섭함, 부러움과 질투 등의 감정이 함께 섞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착주민에 대한 선주민들의 불편한 감정에는 심정적인 부러움과 소외감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그동안 마을 공동체를 지켜온 물질적 기반인 마을재산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억울함과 부당함의 감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② 선주민에게 소외되는 정착주민

- 정착주민들이 선주민들에게 느끼는 소외감은 마을 공동체에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되었을 때, 그리고 협동사업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신이 원인이라고 주장함
- 선주민에게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는 시골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공공기관 종사자의 불친절한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음

4) 오해와 갈등

① 가부장적인 마을 공동체

- 면접자들은 마을 공동체의 가부장적 분위기는 마을총회와 부녀회 활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특히 정착주민이 독신여성인 경우 결혼을 하지 않는 사실이 평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전통적인 가족관을 드러내고 있음
- 제도적 진입장벽 (이장 피선거권, 대의원 추천, 투표권 등)
 - 정착주민이 마을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주요 배경에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제도적인 진입장벽이 있다고 느끼는데 원인이 있음

- 마을공동체에 제도적 진입장벽은 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마을총회에 참석이 가능한 대의원 추천, 그리고 마을총회에서의 발언권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② ‘편한 사람’ 끼리 일하는 며느리 모임 : 부녀회

- 정착주민 여성들은 부녀회 활동을 통하여 선주민과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음
- 면접자들은 부녀회는 마을총회와는 달리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나 실제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함
- 부녀회의 활동이 주로 마을행사 지원이나 봉사활동 성격이 짙어 비록 단체가입을 두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정착주민에 대한 차별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편만한 사람끼리 일을 하다 보니 정착주민과 선주민이 어울리기 쉽지 않은 상황임

③ 신뢰감 구축의 어려움

- 선주민들이 정착주민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 이러한 두려움은 정착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결국은 오래 살거나 떠날거냐에 대한 반복적인 질문으로 이어짐
- 정착주민에 대하여 떠날 사람인지, 오래 살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은 직장생활 속에서 사생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게 되며 이는 도시의 개인화된 삶에 익숙한 정착주민에게는 또 다른 부담감으로 작용함

라. 정착주민 증가와 사회변화

- 면접자들이 지적하는 정착주민 증가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는 마을의 활성화와, 플리마켓 활성화로 인한 관광객 증가, 정착주민들의 재능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마.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안

- 1) ‘육지인’ 도 ‘제주인’ 도 아닌 00리 사는 사람
- 면접자들이 제시하는 정착주민과 선주민이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

안으로는 조금씩 시간을 두고 차이를 좁혀나가야 하고 정착주민과 선주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임

2) 서로 이해하기

- 정착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면접자들이 제시한 의견에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성이 제기됨
- 정착주민과 선주민의 상생을 위한 서로 이해하기 교육은 선주민이 정착주민의 입장을 이해하는 교육보다 정착주민들에 대한 제주 이해하기 교육이 더 강조되고 있음
- 심층면접에 참여한 면접자 중 선주민이 정착주민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면접자는 없었음

3) 협력을 통한 상생

- 면접자들이 실제 생활 부분에서 제시한 정착주민과 선주민간의 상생방안은 일자리와 경제부분을 중심으로 마련할 수 있는 협력방안임
- 정착주민과 선주민간의 갈등은 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일자리 부분에서의 협력과 상생은 선주민들이 정착주민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줄이고 협력을 통한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초점이 있음

제5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1. 조사결과 시사점

가. 정착준비과정

-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정착주민들의 정착 동기는 제주 자연에 매력을 느껴서, 그리고 새로운 정착지로 선택, 직장 및 사업체 이동 순으로 나타났고 정착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는 주택구입 및 부동산 정보와 일자리 알선, 귀농귀촌 관련 정보로 나타남
- 정착주민이 이주를 위해 필요한 정보수집 경로는 먼저 이주한 지인이나 직접조사 혹은 인터넷을 이용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홈페이지나 공무원을 통한 정보수집

비율은 극히 낮아 지인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유통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나. 적응과정

- 정착주민의 제주생활 적응도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70%이상 적응되었다고 응답했으나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된 응답자도 적응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34.5%)도 많아 거주하는 동안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정착주민의 이주이전직업은 사무/관리직 비율이 가장 높고(29.4%), 자영업(18.0%), 판매/서비스직(11.0%) 순이었으나 이주이후 직업은 자영업이 가장 높고(32.8%) 판매/서비스직(13.6%), 1차 산업(12.2%)으로 나타나 이주 이전에 비해 사무/관리직 비율은 현저히 줄고 1차 산업과 자영업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남
- 제주 정착이전 소득은 300-400만 원이 25.8%, 200-300만 원이 24.3%, 100-200만 원이 12.6%인데 반하여 제주정착 이후의 소득분포는 100-200만 원이 33.9%, 200-300만 원이 24.3%, 100만 원 이하도 22.6%로 나타나 제주 정착이후 소득이 낮아진 것으로 추측됨
 - 심층면접 결과 제주 소득이 일자리 및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가족단위 이주일 경우 남성(가장)이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가족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음
- 제주 정착이후 삶의 질(평균 3.68)은 정착이전(평균 3.22)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직업변경과 소득저하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향상되었다고 인식함
- 정착주민들의 이주 이후 영역별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는 자연환경(평균 4.20)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여가문화와 친환경적 교육환경(평균 3.13) 영역이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도의 지원정책(평균 2.29)이나 교통 환경 및 접근성(평균 2.46), 경제활동 및 소득(평균 2.65)부분에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응답자의 생활이 만족스러운 이유는 자연환경과 취미생활이 대표적이었고 불만족 원인은 교통 불편, 육지출입 불편, 비싼 생활물가, 지역주민의 배타성 순으로 나타나 불만족 원인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구됨
-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관한 의견을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3.31로 비

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이웃과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어서 이나, 지역주민이 배타적이라는 의견도 상당수 (20.1%) 나타남

- 지역주민과 융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30.8%)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이주민 자신의 태도 변화(24.2%), 이주민과 선주민의 네트워크 구축(19.3%) 순으로 나타나 네트워크 구축과 인식변화 교육 등을 포함하는 정착주민과 선주민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다. 정착 안정기

- 정착주민의 지역 내 행사 참여활동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항목별로는 문화운동 등 여가활동이 가장 높았고(2.89) 자녀학교 행사(2.68) 가 조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2.31)이나 농민단체 모임(2.19) 등의 참여는 낮게 나타나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는 참여정도가 낮아 지역사회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함
- 심층면접에 나타난 지역 내 행사에 활발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는 마을공동체와 부녀회, 청년회 등 공동체의 특성과 가족주의 혹은 가부장제 중심의 성별분리, 권력화, 서열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

라. 정책욕구

-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이주와 관련한 혜택을 받은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20.4%가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구체적인 분야는 귀농귀촌 교육(48.5%)이 가장 높았고 제주문화 이해하기 교육(24.8%)과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사업(10.9%) 순이었음
- 정착주민 관련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 (52.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돼서’ 라는 응답(32.8%)도 상당수 드러남, 특히 심층면접 결과 귀농귀촌 교육 관련 정보와 교육 참여 기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음

- 응답자의 정착주민지원센터 인지도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는 모른다고 응답한 대상이 64.1%를 차지하였고 정착주민지원센터 이용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15.4%만이 이용경험이 있으며 전체 도움정도는 2.46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정착주민지원센터의 역할강화 및 운영 내실화가 요구됨
- 정착주민을 위한 지원 정책 욕구 조사에서는 경력과 기술을 활용한 사회참여기회 제공(28.7%), 일자리 알선(25.8%),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13.4%)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 참여방안으로는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참여(44.5%), 자원봉사(25.8%)순으로 나타나 일자리 알선과 사회참여를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2. 정착주민 지원방안

가. 정착주민의 이주단계별 지원방안

1) 정착 초기 단계

-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체계 구축
- 정착주민과 선주민간의 상호 이해를 위한 정보교류 방안 마련
- 일자리 알선 및 주택마련을 위한 정보제공
 - 지역 주민 센터와 통반리 사무소를 통한 객관적 정보제공 방안 마련
 -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과 정착주민의 경력 수집을 통한 일자리 알선 창구 마련
- 정착주민에게 지역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을 소식지 제작 지원
 - 각 지역의 특성과 문화 등을 반영한 마을 안내지, 마을 경조사 등을 담은 소식지 제작 지원

2) 정착 안정기 단계

- 지역 내 활동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
- 귀농귀촌 교육 확대

나. 정책실행 단계별 지원방안

1) 단기 이행 지원방안

- 정착주민 네트워크 지원
- 선주민에 대한 정착주민 이해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정착주민에 대한 제주 이해하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체계화
- 정착주민지원센터 재정비 및 확대
- 정착주민에 대한 종합적 실태파악을 위한 DB구축 및 선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2) 중장기 지원방안

- 선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정착주민 적응을 위한 공간마련 및 인프라 구축
- 협력사업의 지속적 개발
 - 전문성과 경력이 있는 정착주민들에 관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인력풀 제공
 - 이주민의 전문성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협력 사업에 대한 개발 및 지원
 - 플리마켓 참여 및 운영,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정착주민과 선주민과의 협력사업 지원
 - 리 사무소에 정보제공 및 사무지원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배치

목 차

제 1 장 서론

1. 연구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4
가. 연구절차	4
나. 연구방법	5
4. 연구범위 및 용어정의	6
가. 연구의 범위	6
나. 용어정의	7

제 2 장 제주지역 정착주민 현황 및 관련정책

1. 국내 인구이동 현황	11
2. 제주 인구변화와 정착주민 현황	13
가. 제주지역 인구변화	13
나. 제주 정착주민 현황	15
3. 정착주민 관련 정책	19
가.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정책	19
나. 국내 귀농·귀촌 정책	20

제 3 장 제주 정착주민 실태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25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5
3. 정착준비 과정	27
가. 정착동기	27
나. 준비기간	28

다. 필요한 정보	29
라. 이주결정이 어려운 요인	31
마. 정보수집	32
4. 적응 과정	34
가. 적응 정도	34
나. 직업의 변화	35
다. 소득의 변화	37
라. 삶의 질 변화	38
마. 영역별 생활 만족도	40
바. 생활 만족/불만족 요인	48
사. 선주민들과의 관계	51
5. 정착 안정기	54
가. 영역별 지역 참여도	54
나. 정착을 통한 목표달성	60
다. 영구정착 의지	61
6. 정책욕구	64
가. 지원 수혜 경험	64
나. 지원혜택 만족도	67
다. 정착주민지원센터 인지도 및 이용경험	68
라. 생활 민원 상담 대상	72
마. 필요한 지원	73
바. 사회참여 방법	74
7. 소결	75

제 4장 심층면접 결과 분석

1. 심층면접 개요	81
가. 심층면접 방법 및 대상	81
2. 심층면접 결과	83

가. 정착 준비단계	83
나. 정착 과정	86
다. 선주민과의 관계	92
라. 정착주민 증가와 사회변화	105
마.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안	106
3. 소결	108

제 5장 시사점 및 정착주민 지원방안

1. 조사결과 시사점	113
가. 정착준비 과정	113
나. 적응과정	113
다. 정착 안정기	115
라. 정책육구	115
2. 정착주민 지원방안	116
가. 정착주민의 이주단계별 지원방안	116
나. 정책실행 단계별 지원방안	118

참고문헌	122
------------	-----

부록	123
----------	-----

표 목 차

〈표 2-1〉 제주국제학교 현황(2015년 2월 1일 기준)	14
〈표 2-2〉 제주도 순유입 인구 현황	15
〈표 2-3〉 세대별 성별 유입인구 현황	16
〈표 2-4〉 성별 연령별 순유입인구 현황	17
〈표 2-5〉 지역별 순유입인구 현황	18
〈표 2-6〉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지원 업무	20
〈표 2-7〉 연도별 귀농 귀촌 현황	20
〈표 2-8〉 시도별 귀농인 가구	21
〈표 2-9〉 귀농·귀촌 단계별 지원 현황	22
〈표 3-1〉 설문조사 내용	25
〈표 3-2〉 응답자 특성	26
〈표 3-3〉 정착동기 1순위	27
〈표 3-4〉 이주를 위한 준비기간	28
〈표 3-5〉 필요한 정보 1순위	29
〈표 3-6〉 이주 결정이 어려운 요인	31
〈표 3-7〉 정보수집 경로 1순위	32
〈표 3-8〉 가장 좋은 정보수집 방법	34
〈표 3-9〉 제주 적응 정도	35
〈표 3-10〉 정착 이전과 이후 직업	35
〈표 3-11〉 정착 이후 직업 변경 원인	36
〈표 3-12〉 제주 정착이전 소득	37
〈표 3-13〉 제주 정착이후 소득	38
〈표 3-14〉 제주 정착이전 삶의 질	38
〈표 3-15〉 제주 정착이후 삶의 질	39

<표 3-16> 자연환경 만족도	41
<표 3-17> 여가문화 만족도	41
<표 3-18> 주택마련 및 거주환경 만족도	42
<표 3-19> 교통환경 및 접근성 만족도	43
<표 3-20> 친환경적 교육환경 만족도	44
<표 3-21> 경제활동 및 소득 만족도	45
<표 3-22> 보건복지환경 만족도	46
<표 3-23> 선주민과의 관계형성 만족도	47
<표 3-24> 도의 지원정책 만족도	47
<표 3-25> 생활 만족 요인 1순위	49
<표 3-26> 생활 불만족 요인 1순위	50
<표 3-27> 선주민(이웃)들과의 관계	51
<표 3-28> 선주민과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	52
<표 3-29> 선주민과의 융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53
<표 3-30> 지역 내 마을회의/ 행사 참여도	55
<표 3-31> 지역 내 경제활동 참여도	55
<표 3-32> 자녀학교 행사 참여도	57
<표 3-33> 농민단체 모임 활동 참여도	58
<표 3-34> 문화운동 등의 여가활동 참여도	58
<표 3-35> 봉사활동 참여도	60
<표 3-36> 제주 정착을 통한 목표달성 정도	61
<표 3-37> 영구 정착 계획	62
<표 3-38> 제주 거주계획 기간	63
<표 3-39> 지인에게 제주 정착 권유의향	63
<표 3-40> 지원 수혜 경험	64
<표 3-41> 혜택 받은 분야	65

<표 3-42> 혜택 받지 못한 이유	67
<표 3-43> 제공 받은 혜택에 대한 만족도	68
<표 3-44> 정착주민지원센터 인지	69
<표 3-45> 정착주민지원센터 이용 경험	70
<표 3-46> 정착주민지원센터의 도움 정도	71
<표 3-47> 생활 민원 및 상담 대상	72
<표 3-48> 정착주민에게 필요한 지원	73
<표 3-49> 사회참여 방법	74
<표 4-1> 심층면접 대상의 일반적 특성	81
<표 4-2> 심층면접 내용	82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5
<그림 3-1> 정착동기	28
<그림 3-2> 필요한 정보	30
<그림 3-3> 정보 수집 경로	33
<그림 3-4> 영역별 생활 만족도	40
<그림 3-5> 생활 만족 요인	49
<그림 3-6> 생활 불만족 요인	51
<그림 3-7> 영역별 지역 참여도	54

제 1 장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범위 및 용어정의

1. 연구 목적

- 제주 순유입 인구는 201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 437명, 2011년 2342명, 2012년 4873명, 2013년 7824명, 2014년 1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 제주 이주민은 약 14,000명가량으로 증가(201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과 내부자료)하여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제주 이민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음
- 인구증가는 단순한 지역구성원의 양적증가만이 아닌 지역 사회의 다양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제주의 사회변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
- 제주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정착주민의 적응 및 정착문제, 선주민과의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갈등, 주택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문제 등 제주사회에 정착주민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관한 정책마련이 필요한 시점
- 정착주민들의 특성, 나이, 삶의 방식, 이주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수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착주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정착주민 관련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 등이 있음
 - ‘귀농·귀촌인’ 지원은 친환경농정과,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은 여성 가족 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담당부서가 분산되어 있었음
 - 2014년 4월에 기존의 개별화된 이주민 지원조례를 (귀농·귀촌인, 거주외국인, 다문화 가족) 모두 포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균형발전과에 정착주민지원 담당부서를 마련하여 관련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포괄적인 정착주민지원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 9조)
- 현재까지 파악된 제주이주민의 집단적 특성은 귀농·귀촌, 문화예술 정착, 직장이나

교육을 위한 이주, 결혼이주여성(다문화), 외국인 등으로 나눌 수 있음(김민영, 최현, 2015)

- 외국인(노동자)이나 결혼이주여성 관련 연구는 그동안 많이 진행되었으나 국내이주민에 관한 실태조사나 연구는 거의 없음
-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나 거주 외국인 보다는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으로 인해 생활습관이나 문화적 차이가 은폐되고 잘 드러나지 않아 그동안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조사가 되지 못한 제주지역의 국내이주민의 실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함
- 특히 급증하고 있는 이주민의 이주목적, 구성원의 집단적 특성 등 구체적인 최근동향을 파악함은 물론 이주민의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선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려고 함

2. 연구내용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제주지역 정착주민의 현황 파악
 - 제주지역의 인구변화, 정착주민의 현황 및 증가 추이 파악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한 정착주민의 이주동기, 생활실태, 삶의 만족도, 선주민과의 관계,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 정책수요 등을 파악함
- 제주 정착주민의 원활한 정착은 물론 선주민과의 화합과 상생 및 지역사회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 제시

3. 연구방법

가. 연구절차

- 본 연구는 2016년 1월에서 5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연구진행과정은 아래 표와 같음
- 본 연구의 연구수행 절차를 제시하면 <그림 1-1>과 같음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1월	• 연구계획 수립	⇨	• 착수보고 (연구심의위원회) • 연구세부계획 수립, 자문단 구성 등
2월	• 연구방향 설정	⇨	• 1차 자문회의, 담당 공무원 면담 • 문헌고찰 및 현황자료 수집·분석
3월	• 설문지 개발 및 조사	⇨	• 설문지 검토 및 수정 • 설문조사 착수
4월	• 심층면접조사	⇨	• 심층면접 조사 및 분석 • 설문조사 결과 분석
5월	• 보고서 집필	⇨	• 전문가 회의 및 토론회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 • 보고서 평가 및 수정 • 최종 보고서 제출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문헌조사는 제주 이주의 현황 및 동향 파악,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함
- 현황자료는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의 내부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등을 수집하여 정리함
- 기타 신문기사,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 제시된 자료를 수집·정리함

2) 설문조사

- 제주지역 정착주민 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제주지역 42개 읍면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조직된 ‘정착주민협의회’ 를 통한 편의 표집
- 기타 귀농귀촌 협의회, 마을지역의 초등학교 학부모회, 정착주민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편의표집
- 조사내용 : 이주동기 및 목적, 정착과정 경험, 적응과정의 어려움 및 정책수요

3) 심층면접

- 설문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인 정보나 조사내용에 관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함
- 특히 정착주민과 선주민과의 관계나 갈등, 혹은 상생방안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착주민 및 선주민 포함 총 18명이 심층면접에 참여하였음
- 조사내용 : 이주과정(준비~이행)경험,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 가족관계 변화, 선주민과의 갈등 경험 및 해소과정, 정책수요 등

4. 연구범위 및 용어정의

가. 연구의 범위

- 본 연구는 최근 제주지역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 정착주민의 생활실태를 통해 선주민과의 갈등 및 상생방안을 모색하려는데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정착주민은 구체적으로 외국인이나 타 시도에서 이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이주한 이주민과 국내이주민의 집단적 특성 및 생활실태가 매우 달라 적응이나 정착에 필요한 지원도 다르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외국에서 이주한 이주민은 그동안 다문화 관련 정책이나 외국인노동자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국내에서 거주지를 옮긴 지역 간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나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임
- 국내 이주민을 연구대상으로 할 때, 그 시기에 따라 이주 배경 및 목적, 적응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정책 마련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 이주 현황은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의 영향을 받고 있음
 - 일제강점기의 대량 해외이출과 1948년의 4.3 사건, 한국전쟁 기간의 군인 및 피난민 이동과 1960년대 이후의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산업화가 제주도의 인구변화를 촉진하였음 (이창기, 1998: 15-16. 염미경, 2011:9에서 재인용)
 - 해방 이후 제주지역의 이주민은 주로 60-70년대 개발 시기에 전라도 사람을 중심으로 이주물결이 시작되었고 198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제주도에 유입된 인구는

광주전남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인구의 비중이 낮아지고 서울지역이나 부산경남지역에서 유입된 인구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여 90년대 초반에는 서울이나 인천, 부산경남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약 70%를 차지하였음 (염미경, 2011: 19)

- 제주지역 유입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시기는 2010년 이후이고 최근에 이주한 사람들은 삶의 패턴과 가치관에서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본 연구의 대상 및 범위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고자 공간적으로는 국내에서 유입된 정착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이주시기별로는 정착주민이 급격히 증가한 2010년을 전후로 비교적 최근에 이주한 사람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되, 본인이 제주생활에 익숙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정착주민을 포함함

나. 용어정의

- 정착주민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명시된 정착주민의 개념은 ‘외국 혹은 타 시·도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제주 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지역주민으로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제주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함
 - 본 연구에서는 최근(2010년 전후) 국내에서 제주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정착주민으로 정의함
- 이주민 (immigrants)
 - 이주민(immigrants)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가서 사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옮겨 와서 사는 사람을 의미함
 - 글로벌 시대 이주민의 증가현상과 함께 이민 혹은 이주한 사람은 주로 국가 간 (trans-national) 이동을 하는 사람과 지방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 간 이동 (trans-local)을 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제주 이주 시기를 중심으로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0년 전후가 아닌 그 이전에 이주한 사람은 이주민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 원주민

- “원주민”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지역에 본디 살던 사람을 의미함
- 보통 원주민이라는 개념은 문명사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미개하고 벗고 다닌다는 인상이 강함
- “원주민“이라는 말을 거의 다 바깥에서 쳐들어온 다른 집단들한테 차별, 토지약탈, 착취 등으로 지배받고 고통 받는 집단을 일컫는데 사용함

○ 토착민

- 토착민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곳에서 대대로 오래도록 살아 내려오는 사람을 의미하며 문명화되지 않은 미개한 집단이라는 의미는 없으나 한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원주민과 비슷하게 사용함

○ 선주민

- 선주민의 사전적 의미는 먼저 살던 사람을 의미함

○ 정착주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원주민은 문명화 되지 않고 침략 및 착취를 받는 집단이라는 의미가 강하고 토착민은 오랫동안 한 곳에 살던 사람을 의미하므로 거주 이동이 자유로운 현재의 우리 지역사회의 현실을 설명하기 어려움

○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이외에서 이주해서 사는 사람을 정착주민으로 정의하고 정착주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착주민보다 약간 먼저 살던 사람을 의미하는 선주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함

○ 다만 정착을 위해 삶의 터전을 옮긴 행위는 ‘이주’ 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함

제주지역 정착주민 현황 및 관련정책

1. 국내 인구이동 현황
2. 제주 인구변화와 정착주민 현황
3. 정착주민 관련 정책

1. 국내 인구이동 현황

- 인구이동은 경제적·문화적·지리적·인구학적 요인에 의해 인구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두산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측면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덜 우호적인 환경을 떠나 더 나은 여건을 갖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행동이라고 정의함 (이상림, 2009)
- 근대사회에는 직업이동에 따른 단신 혹은 가족단위의 반영구적인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그 중심이 되고 있음
- 인구이동은 전출(轉出)과 전입(轉入)을 포함하는 국내 인구이동과 이주를 포함하는 국제 인구이동으로 구별함.
- 국내 인구이동은, ① 이동자의 집단성에 의하여 단신이동·가족이동·집단이동으로 구분되고, ② 이동지역에 따라 지역사회 내 이동·도시농촌 간 이동·도시 간 이동으로, ③ 이동시간에 따라 정기이동·계절이동으로, ④ 이동목적에 따라 직업이동·연유(緣由)이동·취학이동 등으로 구분됨
-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학적 요인, 생애주기 등을 포함한 사회학적 요인, 지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 인구규모와 이동거리 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많은 요인이 복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최성호, 이창무, 2013)
-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인구이동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개별 지역 간에 나타나는 실질임금의 차이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한다고 설명함
 - 지역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각종 세제 등 지역정책에 의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학력과 연령대를 비롯하여 유입지와 유출지의 산업분포와 직업의 차이도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함 (권상철, 2010)
- 인구이동에 대한 국내 연구 중 상당수는 연령대별 인구이동인 생애주기에 따른 지역 간 인구이동으로 사회 변화를 설명하고 있음
 - 수도권 전출은 새로운 고용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30대 초반 이하가 높게 나타나며 고학력 가구의 이동성이 더 높음
- 인구이동은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남

- 지역에 따라 인구유입이나 유출의 수준이 다르게 분포하는 것은 해당지역이 지역 거주자들에게 제고할 수 있는 임금 수준, 취업기회, 교육환경, 주거여건 등 다양한 형태의 기회수준이 다름
 -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개인별로 이동의 여부 혹은 이동력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연령, 학력, 직업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기대되는 이익이나 혹은 기존 지역을 떠났을 때 비용이 다르게 나타남
 -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인구이동의 수준이 결정되고 그 결과 지역의 인구 규모 및 인구구조의 변화가 초래됨
- 우리나라는 근대화 이후 이촌향도의 인구이동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1960 년대에 들어서자 공업화·도시화의 본격적인 진전에 따라 다수의 농어촌 인구가 도시지역 및 개발지역으로 이주함
- 1970~1990년 전 기간에 걸쳐 서울·부산·경기가 전입초과 현상을 보인 반면, 강원을 비롯한 나머지 8개도가 모두 전출초과 현상을 나타냈고 서울과 인접지역인 경기를 비롯하여 대도시 지역과 그 주변부에는 인구집중현상이 심화되었음
- 2000년 이후 최근의 변화는 부동산 경기나 고용상황 등에 따라 다소 증감을 나타내 기는 하지만 고령화, 산업화, 및 도시화가 완화되고 교통의 발달 등으로 도시집중 화 현상이 감소하고 있음
- 2015년 현재 국내 이동자 수는 총 775만5천 명으로 전년보다 1.7%(12만6천 명) 증가 한 것으로 파악되며, 인구 백 명당 이동자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15.2%로 전년 보다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통계청 국가지표체계 2015. <http://www.index.go.kr>)
- 지역 간 순유입률은 세종(29.0%, 5만3천 명), 제주(2.3%, 1만4천 명), 순유출률은 서울(-1.4%, 13만7천 명) 등이 높았음
 - 연령별 순유입률 상위 3대 지역(세종시 제외)으로 20대는 경기(1.4%), 서울(1.4%), 제 주(0.6%), 30대는 제주(4.0%), 경기(1.3%), 전남(1.0%), 40~50대는 제주(2.9%), 전남 (1.0%), 충남(0.8%), 60대 이상은 제주(0.7%), 경기(0.5%), 충남(0.4%) 순으로 나타남
- 국내인구이동은 대규모 신규아파트 입주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이주, 부동산경기나 고용상황 등에 따라 다소 증감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고령화, 산업화 및

도시화 완화, 교통의 발달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집중되던 인구가 20-30대 젊은 연령층의 인구감소로 인해 점차 유입규모가 감소하고, 세종시 및 혁신도시건설, 산업단지조성 등 지역균형 개발정책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의 비수도권 이전으로 인구 유출이 증가하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인구이동의 패턴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인구이동의 문제를 반영한 지역 단위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에는 인구이동의 특성들이 반영되어야 함
- 제주지역은 청년인구 감소형으로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유입이 나타나고 있지만 2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인구의 유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이상림, 2014, 권상철, 2003)

2. 제주 인구변화와 정착주민 현황

가. 제주지역 인구변화

- 해방 이후 제주지역의 이주민은 주로 60-70년대 개발 시기에 전라도 사람을 중심으로 이주물결이 시작되었고 이들은 해남 촌으로 불리는 일정 지역에 모여 살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개발과정에 참여했음(염미경, 2011)
- 산업화 시대와 함께 관광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관광이나 감귤재배, 혹은 관광관련 투자를 위한 이주가 꾸준히 발생했고 2000년 이후 제주이주의 촉발요인으로는 글로벌 시대의 도래와 함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였고 지방정부의 외자 및 기업의 유치사업으로 상당수 이주민이 기업이전과 함께 유입되었음
- 제주지역의 인구는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과 경기도가 제주지역과 가장 많은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임 (이성용, 하창현, 2014)
- 제주지역에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는 2010년 이후이고 최근의 이주민들은 삶의 패턴과 가치관에서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박경훈, 2013)
 - 최근 제주지역 이주민들은 한국사회의 과도한 경쟁 시스템에 지친 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 느리게 살면서 위안을 삼으려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많은 것이 특징임 (홍창욱, 2015)

- 2010년 이후 제주지역 이주민 증가 배경은 한국사회의 미세한 변화와 함께 연관하여 분석해야 할 것으로 봄
- 제주의 이주민 증가요인은 크게는 세계화 질서의 변화 아래 한국사회 전체의 변화와 연관(김민영·최현, 2015)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요인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개된 혁신도시, 그리고 제주도의 기업유치 노력에 의한 기업이전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국제학교 설립, 올레길이 개발됨에 따른 새로운 가치의 관광개발, 저가항공 등 교통의 발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국제자유도시 계획은 제주도 종합 개발 계획 기간이 1994년부터 2001년 말로 종료되어 세계화·지방화·정보화·지식화 등 21세기 국내외 환경 변화를 수용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종합 발전 계획의 수립이 요구됨에 따라 2002년부터 10년간 제주를 국가 개방의 거점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의 소득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정하여 개발을 하게 됨
- 아울러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07년 세계자연유산 지정, 2011년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제주지역의 자연환경 및 삶의 터전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외지인의 제주지역 이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제주지역의 자연환경 및 초중고 자녀들의 학군 및 교육여건이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 은퇴 이후 제2의 고향, 귀농귀촌의 선호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점 등이 제주지역 이주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함
 - 2011년 이후 개원한 제주 국제학교도 교육환경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제주 이주를 유인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됨

〈표 2-1〉 제주국제학교 현황(2015년 2월 1일 기준)

(단위: 명)

학교명	KIS	KIS고등학교	NLCS	BHA	합계
설립주체	제주도 교육청	(주) YBMJIS	(주) 해울	(주) 해울	
개교일	2011. 9. 19	2013. 8. 19	2011. 9. 26	2012.10. 15	
대상	1학년-8학년	9학년-12학년	유치원-13학년	유치원-12학년	
모집정원	728명	408명	1,508명	1,212명	3,856명
현원	402명	186명	809명	595명	1,992명
외국인	24명	7명	82명	72명	185명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내부자료. 2015 (김민영, 최현. 2015에서 재인용)

- 정부의 수도권 기업이전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제주지역의 기업유치 노력도 활발해짐에 따라, 2000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지방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발전 역제를 위하여 세금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한승철, 2014)
- 2004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으로 발표한 혁신도시¹⁾ 사업의 전개로 제주도의 인구이동의 한 요인이 됨
 - 지역 내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각종 세제혜택 등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기울임
 - 대표적 기업으로 다음(Daum), 넥센(NXC), (주) 제주반도체, 유씨엘 등이 있음

나. 제주 정착주민 현황

- 제주지역 순유입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0년 이후로 볼 수 있음
- 2010년 처음으로 제주지역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를 앞섰고 총 437명이 순유입 인구가 발생하기 시작함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2016)
- 2011년부터 제주지역 순유입 인구의 증가는 지속되었고 유입인구의 규모는 2012년 4,876명에서 2013년 7,823명, 2014년 11,112명, 2015년 13,257명으로 점점 유입인구의 증가의 폭이 커지고 있음
- 지역별 순유입 인구의 증가는 제주시가 2012년 4,404명에서 2015년 8,507명으로 약 4,000명 증가하였고 서귀포시는 2012년 472명에서 2015년에는 5,750명으로 무려 5,000명 이상 증가해 최근 서귀포 지역의 이주민 증가현상이 뚜렷함

<표 2-2> 제주도 순유입 인구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순유입	전입	전출	순유입	전입	전출	순유입	전입	전출	순유입	전입	전출
합계	4,876	25,221	20,345	7,823	28,244	20,421	11,112	32,835	21,723	14,257	38,544	24,287
제주시	4,404	18,129	14,989	6,370	20,161	15,124	8,338	23,374	15,948	8,507	25,796	17,775
서귀포	472	7,092	5,356	1,453	8,083	5,297	2,774	9,461	5,775	5,750	12,748	6,512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주민등록인구 기준

1) 혁신도시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혁신도시 (토지이용 용어사전, 2011. 1., 국토교통부)

- 제주 유입인구의 세대별 분포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30대가 22.9%로 가장 많고 40대(18.6%), 20대(17.4%) 순으로 나타남
- 2012년에 비해 30대 유입인구(2012년 24.3%→2015년 22.9%)는 조금 줄었으나 50대(2012년 11.1%→2015년 13.7%), 60대(2012년 4.9%→2015년 6.2%) 유입인구 분포가 조금 늘어났음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으나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

〈표 2-3〉 세대별 성별 유입인구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계	25,221 (100.0)	28,244 (100.0)	32,835 (100.0)	38,544 (100.0)
9세 미만	2,805 (11.1)	3,422 (12.1)	3,929 (12.0)	4,210 (10.9)
10 - 19세	2,209 (8.8)	2,349 (8.3)	2,492 (7.6)	2,854 (7.4)
20 - 29세	4,992 (19.8)	5,249 (18.6)	6,100 (18.6)	6,708 (17.4)
30 - 39세	6,138 (24.3)	6,785 (24.0)	8,026 (24.2)	8,817 (22.9)
40 - 49세	4,267 (18.3)	5,010 (17.7)	5,784 (17.6)	7,192 (18.6)
50 - 59세	2,809 (11.1)	3,242 (11.5)	3,904 (11.9)	5,293 (13.7)
60 - 69세	1,238 (4.9)	1,340 (4.7)	1,666 (5.1)	2,376 (6.2)
70세 이상	763 (3.0)	847 (3.0)	934 (2.8)	1,094 (2.8)
여성	11,717 (46.5)	13,181 (46.7)	15,315 (46.6)	18,312 (47.5)
남성	13,504 (53.5)	15,063 (53.3)	17,520 (53.4)	20,232 (52.5)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주민등록인구 기준

- 연령별로는 2015년 기준으로 30대가 가장 많고(26.3%), 40대(23.8%), 20대(17.7%) 순으로 나타남, 이는 2012년부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주목할 것은 20대의 순유입 인구 감소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최근 20대 초반에는 지역을 떠나는 인구가 여전히 많으나 20대 후반에 돌아오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입인구가 많으나 점차 여성의 순유입 인구 비율(2012년 41.9%, 2013년 45.8%, 2014년 45.9%, 2015년 47.8%)이 증가하고 있음

<표 2-4> 성별 연령별 순유입인구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연령별	10세 미만	964 (19.8)	1,546 (19.8)	1,838 (16.5)	2,040 (14.5)
	10대	149 (3.1)	352 (4.5)	335 (3.0)	648 (4.5)
	20대	-683 (-14.0)	-70 (-0.9)	404 (3.6)	395 (2.8)
	30대	1,768 (36.3)	2,451 (31.3)	3,651 (32.9)	3,756 (26.3)
	40대	1,228 (25.2)	1,800 (23.0)	2,273 (20.5)	3,398 (23.8)
	50대	938 (19.2)	1,164 (14.9)	1,690 (15.2)	2,524 (17.7)
	60대	367 (7.5)	428 (5.5)	682 (6.1)	1,131 (7.9)
	70세 이상	124 (2.5)	124 (1.6)	194 (1.7)	257 (1.8)
성별	여성	2,044 (41.9)	3,582 (45.8)	5,102 (45.9)	6,816 (47.8)
	남성	2,832 (58.1)	4,241 (54.2)	6,010 (54.1)	7,441 (52.2)
합계	계	4,876 (100.0)	7,823 (100.0)	11,112 (100.0)	14,257 (100.0)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주민등록인구 기준

- 순유입 인구의 시별 분포를 보면 2012년에 제주시가 90.3%, 서귀포시가 9.7%를 차지해 주로 제주도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었으나 2013년 (제주시 81.4%, 서귀포시 18.6%), 2014년(제주시 75.0%, 서귀포시 25.0%), 2015년 (제주시 59.7%, 서귀포시 40.3%)로 제주시보다는 서귀포지역의 순유입 인구의 증가폭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지역별 순유입 인구 증가현황은 최근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유입인구가 많은 곳은 제주시의 삼양동(14.7%), 아라동(13.5%), 서귀포시 대정읍(9.7%), 제주도 애월읍(8.9%) 순으로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음
- 반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은 2015년을 기준으로 제주도 용담2동(-2.0%), 건입동(-1.2%), 삼도1동(-1.1%), 서귀포시 중앙동(-1.1%) 등으로 주로 구도심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 전년대비 순유입 인구가 증가한 곳은 제주시에서 13곳, 서귀포시에서 11곳이고, 순유입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제주시에서 12곳, 서귀포시에서 불과 5곳이었음.
- 전년도 대비 순유입 인구의 증가폭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 애월읍(5.0%), 서귀포시 대정읍(4.8%), 대천동(3.8%) 순이었고 전년도 대비 순유입 인구 증가율이 낮은 지역은 제주도 화북동(10.5%), 삼양동(8.3%), 노형동(8.1%) 순이었음

〈표 2-5〉 지역별 순유입인구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전년대비증감	
제주시	한림읍	115 (2.4)	131 (1.7)	91 (0.8)	233 (1.6)	▲ 0.8
	애월읍	313 (6.4)	60 (0.8)	438 (3.9)	1266 (8.9)	▲ 5.0
	구좌읍	-100 (-2.1)	-96 (-1.2)	364 (3.3)	176 (1.2)	▽ 2.1
	조천읍	-263 (-5.4)	-204 (-2.6)	111 (1.0)	574 (4.0)	▲ 3.0
	한경면	19 (0.4)	102 (1.3)	153 (1.4)	192 (1.3)	▽ 0.1
	추자면	-97 (-2.0)	-84 (-1.1)	-138 (-1.2)	-33 (-0.2)	▲ 1.0
	우도면	54 (1.1)	24 (0.3)	23 (0.2)	77 (0.5)	▲ 0.3
	일도1동	24 (0.5)	-187 (-2.4)	-139 (-1.3)	-114 (-0.8)	▲ 0.5
	일도2동	-311 (-6.4)	-938 (-12.0)	-498 (-4.5)	-110 (-0.8)	▲ 3.7
	이도1동	68 (1.4)	-79 (-1.0)	112 (1.0)	83 (0.6)	▽ 0.4
	이도2동	2590 (53.1)	797 (10.2)	679 (6.1)	347 (2.4)	▽ 3.7
	삼도1동	230 (4.7)	108 (1.4)	43 (0.4)	-151 (-1.1)	▽ 1.5
	삼도2동	-211 (-4.3)	-303 (-3.9)	-203 (-1.8)	-8 (-0.1)	▲ 1.7
	용담1동	-246 (-5.0)	-50 (-0.6)	-138 (1.2)	-17 (-0.1)	▽ 1.3
	용담2동	-27 (-0.6)	-287 (-3.7)	-180 (-1.6)	-280 (-2.0)	▽ 0.4
	건입동	-94 (-1.9)	-355 (-4.5)	-213 (-1.9)	-178 (-1.2)	▲ 0.2
	화북동	-108 (-2.2)	509 (6.5)	1568 (14.1)	344 (2.4)	▽ 10.5
	삼양동	28 (0.6)	1022 (13.1)	2555 (23.0)	2094 (14.7)	▽ 8.3
	붕개동	13 (0.3)	5 (0.1)	-17 (-0.2)	119 (0.8)	▲ 1.0
	아라동	1067 (21.9)	4899 (62.6)	1570 (14.1)	1928 (13.5)	▽ 0.6
오라동	383 (7.9)	895 (11.4)	875 (7.9)	1039 (7.3)	▽ 0.6	
연동	678 (14.1)	-148 (-1.9)	-267 (-2.4)	-107 (-0.8)	▲ 1.6	
노형동	23 (0.5)	-106 (-1.4)	1091 (9.8)	243 (1.7)	▽ 8.1	
외도동	324 (6.6)	648 (8.3)	528 (4.8)	820 (5.8)	▲ 1.0	
이호동	-69 (-1.4)	-19 (-0.2)	-57 (-0.5)	-23 (-0.2)	▲ 0.3	
도두동	1 (0.0)	26 (0.3)	-13 (-0.1)	-7 (-0.0)	▲ 0.1	
합계	4,404 (90.3)	6,370 (81.4)	8,338 (75.0)	8,507 (59.7)	▽ 15.3	
서귀포시	대정읍	40 (0.8)	57 (0.7)	546 (4.9)	1390 (9.7)	▲ 4.8
	남원읍	-97 (-1.9)	17 (0.2)	203 (1.8)	426 (3.0)	▲ 1.2
	성산읍	-78 (-1.6)	55 (0.7)	86 (0.8)	549 (3.9)	▲ 1.1
	안덕면	57 (1.2)	86 (1.1)	74 (0.7)	350 (2.5)	▲ 1.8
	표선면	12 (0.2)	104 (1.3)	248 (2.2)	273 (1.9)	▽ 0.3
	송산동	-13 (-0.2)	-48 (-0.6)	-84 (-0.8)	12 (0.1)	▲ 0.3
	정방동	-43 (-0.9)	-62 (-0.8)	-85 (-0.8)	22 (0.2)	▲ 0.4
	중앙동	-58 (-1.2)	53 (0.7)	79 (0.7)	-152 (-1.1)	▽ 0.4
	천지동	82 (1.7)	67 (0.9)	-22 (-0.2)	-81 (-0.6)	▽ 0.4
	효돈동	-79 (-1.6)	-6 (-0.1)	-50 (-0.4)	160 (1.1)	▲ 0.7
	영천동	18 (0.4)	20 (0.3)	25 (0.2)	79 (0.6)	▲ 0.4
	동홍동	217 (4.5)	380 (4.9)	229 (2.1)	278 (1.9)	▽ 0.2
	서홍동	283 (5.8)	474 (6.1)	130 (1.2)	397 (2.8)	▲ 1.6
	대륜동	5 (0.1)	-97 (1.2)	1061 (9.5)	836 (5.9)	▽ 3.6
	대천동	85 (1.7)	219 (2.8)	113 (1.0)	686 (4.8)	▲ 3.8
	중문동	30 (0.6)	82 (1.0)	142 (1.3)	437 (3.1)	▲ 1.8
	예래동	11 (0.2)	52 (0.7)	79 (0.7)	88 (0.6)	▽ 0.1
합계	472 (9.7)	1,453 (18.6)	2,774 (25.0)	5,750 (40.3)	▲ 15.3	
총합계	4,876	7,823	11,112	14,257		

3. 정착주민 관련 정책

가.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정책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정착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전 이주민과 관련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2007. 5),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2008. 4),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조례」(2010. 4)가 있었음
-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의 관련조례들을 연계한 융·복합 조례라고 할 수 있음
- 2014년 4월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착주민의 안정적 적응을 통해 도민과 정착주민 간 상생과 협력을 촉진하여 정착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정착주민 지원, 실태조사 실시, 위원회 설치, 정착주민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착주민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음
 - 2014년 정착주민 지원위원회 및 정주환경 개선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정착주민 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이주관련 종합 상담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도와 행정시 읍면동을 포함한 46개소의 정착주민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정착주민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정착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착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정착주민 관련 종합정보제공을 위하여 제주생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여 제주에 관한 이해, 귀농귀촌, 다문화가족, 취업 및 고용지원 등 분야별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음
 - 정착주민과 선주민간의 융화와 협력을 위하여 정착주민 지역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정착주민 지역융화 홍보를 위하여 정착주민과 선주민간의 상생과 발전 사례 홍보를 지원하고 있음

- 정착주민에 대한 찾아가는 제주 이해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제주알기 강좌 및 문화 체험을 운영하고 있음

○ 조례에 명시된 정착주민 관련 지원 사업 내용과 2016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2-6〉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지원 업무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착주민 지원사업 내용	정착주민 지원업무 (지역균형발전과, 2016)
1. 정착정보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 정주관련 각종 정보제공 사업 2. 정착주민에 대한 창업, 취업, 등 지원사업 3. 정착주민에 대한 주거, 문화, 교통, 의료, 안전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4. 제주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현장 답사 기회 제공 사업 5. 마을주민과의 상생 협력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정착지원과 네트워크 강화사업 6. 교육·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정착주민 제주융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7. 정착주민의 재능, 기술 및 경력의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참여 촉진 사업 8. 정착주민에 대한 제주도민 환대 제고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사업	1. 정착주민 지원센터(읍면동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2. 정착, 지역민과의 융화·협력(네트워크) 사업 3. 찾아가는 정착주민 제주 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4. 제주 정착주민 지역 융화 홍보사업

나. 국내 귀농·귀촌 정책

- 국내의 이주민 정책은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취지인 국내이주민을 위한 정책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귀농귀촌 정책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 국내 귀농귀촌인구의 증가가 2012년 통계가 집계된 이래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

〈표 2-7〉 연도별 귀농 귀촌 현황

(단위: 가구, 명)

구 분	'10	'11	'12	'13	'14
가구수(세대원)	4,067	10,503	27,008(47,322)	32,424(56,267)	44,586(80,855)
귀농(세대원)			11,220(19,657)	10,923(18,825)	11,144(18,864)
귀촌(세대원)			15,788(27,665)	21,501(37,442)	33,442(61,991)

주1) '11년까지는 지자체를 통한 행정조사 결과이며, '12년 이후는 농식품부(귀촌 행정조사)와 통계청(귀농 통계조사)이 각각 조사한 후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임.

주2)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16

- 시도별 귀농귀촌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은 타 지역이 답보상태이거나 약간 증가한데 반해 귀농인의 인구가 2012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고 2014년에는 3,875가구로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음

〈표 2-8〉 시도별 귀농인 가구

(단위: 가구)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27,008 (11,220)	32,424 (10,923)	44,586 (11,144)
광역시	1	1	5	22	35	5	0	0	26	20	123	408 (346)	414 (329)	914 (343)
경기	57	18	44	19	28	57	89	126	102	69	224	7,671 (1,027)	9,430 (931)	11,096 (947)
강원	151	26	156	227	102	134	121	141	232	312	2,167	3,758 (972)	3,721 (875)	3,772 (812)
충북	25	43	56	141	68	172	196	142	270	272	582	3,815 (918)	4,918 (872)	5,144 (906)
충남	28	74	46	137	237	184	157	227	335	324	727	1,533 (1,214)	1,856 (1,177)	2,558 (1,237)
전북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883	611	1,247	2,228 (1,238)	2,993 (1,211)	4,285 (1,204)
전남	77	67	51	37	89	249	257	289	549	768	1,802	2,046 (1,733)	2,506 (1,825)	4,343 (1,844)
경북	115	218	86	334	359	378	772	485	1,118	1,112	1,755	3,095 (2,080)	3,496 (2,087)	5,517 (2,172)
경남	243	210	265	203	242	267	277	373	525	535	1,760	2,121 (1,434)	2,618 (1,348)	3,082 (1,373)
제주	56	22	31	16	7	58	48	50	40	44	115	333 (258)	472 (268)	3,875 (30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16 , 괄호안은 귀농인 가구

- 국내 귀농귀촌 정책은 201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해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정부는 관련부서를 통해 귀농·귀촌 인에 관한 단계별 지원 매뉴얼을 작성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중임
- 제주지역의 귀농·귀촌 정책은 큰 틀에서 중앙의 지침을 따르고 있음

<표 2-9> 귀농·귀촌 단계별 지원 현황

단계	구분	주요 내용
관심	귀농귀촌 종합센터	○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종합정보 제공, 상담·멘토링, 교육지원 등을 위한 종합 지원센터 운영 - 관심단계부터 정착시까지 현장 밀착 지원 * 시군 상담의 날, 지역 귀농귀촌 강좌, 소그룹 강의 운영 및 귀농귀촌관련 기본공동교육 등 제공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 귀농귀촌 종합정보, 상담 제공 -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참여
	귀농귀촌 교육	○ 현장 실습 위주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운영 - 국고 70~80%, 교육생 자부담 20~30%
실행	도시민농촌 유치지원	○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활동 활성화 지원 - 시군당 3년간 6억 지원(국고 50%, 지자체 50)
	귀농인의 집 조성	○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 까지 거주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게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 * (‘15~’17) 3년간 300개소 건립 지원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 이해, 농촌 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One-stop 지원센터 * 사업 선정 : (‘13) 제천·영주, (‘14) 홍천·구례, 금산, (‘15) 고창·영천 * 금산은 ‘14년에 10억원 국비 지원 * 운영 : (‘15) 금산, (‘16) 제천·영주·홍천·구례, (‘17) 고창·영천
정착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최대 3.5억원 융자 지원 - 한도 :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신축 5천만원 - 금리 : 창업 2%, 주택구입 2.7%(65세이상 2%) - 상환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귀농인 실습지원 (농진청)	○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 습득 - 선도농업인에게 매월 40만원, 교육생에게 80만원 지원 - 5개월간, 국고50%, 지자체 50%

자료 :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제주 정착주민 실태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 정착준비 과정
4. 적응과정
5. 정착 안정기
6. 정책욕구
7. 소결

1.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방법

- 가구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 관련단체(귀농·귀촌 협의회, 정착주민협의회 등)를 통한 조사 병행하였음
- 소수집단 조사의 어려움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나 최대한 지역의 편중을 피하고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의 전 지역에 걸쳐 대상자를 표집함

○ 조사 대상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정착주민 500명

○ 조사 내용 : 정착준비과정, 적응단계, 정착안정기, 정책욕구 등이고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표 4-1과 같음

○ 조사결과 분석은 빈도분석을 주로 하였으며 집단 간의 차이검증을 위해 카이검증을 하였음

〈표 3-1〉 설문조사 내용

영역	세부영역
정착준비	이주동기, 준비기간, 정보습득경로 등
제주 적응단계	적응정도, 직업 및 소득의 변화, 생활의 어려움, 생활만족도(자연환경, 여가문화, 거주환경, 교통환경, 교육환경, 복지환경,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 등)도의 지원혜택 인지 여부 등
제주 정착 안정기	지역사회 참여(참여현황, 참여방법 등), 네트워크 형성, 삶의 질 변화, 이주 만족도
정책욕구	필요한 민원 및 정보, 지원센터 이용경험, 만족도, 정책욕구 등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제주시 59.4%, 서귀포시 36.0%로 (2015년 통계 기준 제주시 이주민이 약 67%, 서귀포 지역이 33%)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이 51.8%, 여성이 48.2%로 남성이 약간 많아 통계수치(남성 52.5%, 여성 47.5%)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연령별로는 20대가 9.0%(2015년 통계 17.4%), 30대 29.2%(2015년 통계 22.9%), 40대 36.0%(2015년 통계 18.7%), 50대 이상은 25.8%(2015년 통계 2.0%)로 나타남
- 이주 이전 거주지로는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에서 이주한 정착주민이 5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표 3-2〉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비율(%)
합계		500	100
성별	남성	259	51.8
	여성	241	48.2
연령	20대	45	9.0
	30대	146	29.2
	40대	180	36.0
	50대 이상	129	25.8
결혼여부	미혼	137	27.4
	기혼	355	71.0
	별거	8	1.6
가족구성원	1명	105	21.0
	2명	114	22.8
	3명	97	19.4
	4명	124	24.8
	5명 이상	60	12.0
학력	고졸이하	51	10.2
	전문대/대졸	390	78.0
	대학원이상	59	11.8
거주지역	제주시동지역	154	30.8
	제주시읍면지역	143	28.6
	서귀포시동지역	95	19.0
	서귀포시읍면지역	85	17.0
	무응답	25	4.6
이주 전 거주지역	서울시	161	32.2
	경기도	107	21.4
	광역시	94	18.8
	영남/호남/충청/강원	59	11.8
	기타	79	15.8
주거유형	자가	198	39.6
	전세	57	11.4
	월세/년세	198	39.6
	기타	47	9.4
주거기간	1년 미만	50	10.0
	2년 미만	106	21.2
	4년 미만	160	32.0
	10년 미만	126	25.2
	10년 이상	58	11.6

3. 정착준비 과정

가. 정착동기

- 정착동기 1순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직장 및 사업체 이동 (29.8%)이 가장 많았고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로 선택(28.0%), 제주 자연에 매력(21.4%)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제주의 자연에 매력을 느껴서’ 이주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음
- 연령별로는 20, 30, 40대는 ‘직장 및 사업체 이동’ 이 가장 많은 반면 50대 이상 연령에서 ‘퇴직 후 새로운 정착지로 선택’ 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제주의 자연에 매력을 느껴서’ 이주하였다는 응답은 20대가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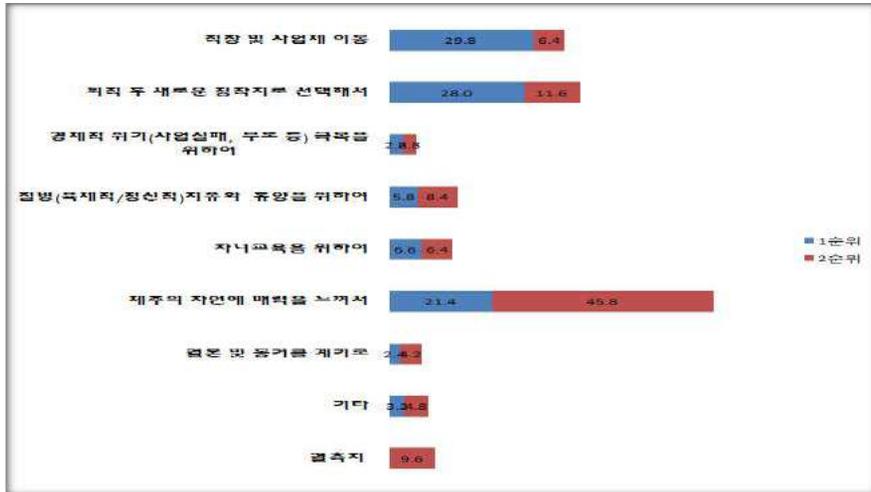
〈표 3-3〉 정착동기 1순위

(단위: 명, %)

		사례수	직장 및 사업체 이동	퇴직 후 새로운 정착지로 선택	경제적 위기(사업실패, 부도 등) 극복	질병(육체적/정신적) 치유와 휴양	자녀교육	제주의 자연에 매력	결혼 및 동거	기타	χ^2
전체		500(100.0)	149(29.8)	140(28.0)	14(2.8)	29(5.8)	30(6.6)	107(21.4)	12(2.4)	16(3.2)	
성별	남성	259(100.0)	81(31.3)	85(32.8)	10(3.9)	16(6.2)	14(5.4)	43(16.6)	5(1.9)	5(1.9)	17.281*
	여성	241(100.0)	68(28.8)	55(22.8)	4(1.7)	13(5.4)	19(7.9)	64(26.6)	7(2.9)	11(4.6)	
연령	20대	45(100.0)	16(35.6)	1(2.2)	2(4.4)	1(2.2)	6(13.3)	14(31.1)	0(0.0)	59(5.5)	73.903***
	30대	146(100.0)	47(32.2)	34(23.3)	0(0.0)	9(6.2)	10(6.8)	37(25.3)	1(0.7)	8(5.5)	
	40대	180(100.0)	61(33.9)	48(26.7)	7(3.9)	13(7.2)	14(7.8)	31(17.2)	4(2.2)	2(1.1)	
	50대이상	129(100.0)	25(19.4)	57(44.2)	5(3.9)	6(4.7)	3(2.3)	25(19.4)	7(5.4)	1(0.8)	
거주 지역	제주시동지역	154(100.0)	48(31.2)	43(27.9)	4(2.6)	9(5.8)	6(3.9)	36(23.4)	4(2.6)	4(2.6)	48.998
	제주시 읍면	143(100.0)	40(28.0)	36(25.2)	7(4.9)	12(8.4)	20(14.0)	21(14.7)	3(2.1)	4(2.8)	
	서귀포동지역	95(100.0)	28(29.5)	30(31.6)	2(2.1)	1(1.1)	4(4.2)	22(23.2)	2(2.1)	6(6.3)	
	서귀포읍면 무응답	85(100.0) 23(100.0)	25(29.4) 8(34.8)	23(27.1) 8(34.8)	1(1.2) 0(0.0)	7(8.2) 0(0.0)	2(2.4) 1(4.3)	23(27.1) 5(21.7)	3(3.5) 0(0.0)	1(1.2) 1(4.3)	
거주 기간	1년미만	50(100.0)	21(42.0)	3(6.0)	0(0.0)	1(2.0)	3(6.0)	19(38.0)	1(2.0)	2(4.0)	79.110***
	2년미만	106(100.0)	28(26.4)	30(28.3)	2(1.9)	7(6.6)	14(13.2)	21(19.8)	1(0.9)	3(2.8)	
	4년미만	160(100.0)	48(30.0)	45(28.1)	3(1.9)	14(8.8)	10(6.3)	33(20.6)	0(0.0)	7(4.4)	
	10년미만	126(100.0)	33(26.2)	44(34.9)	4(3.2)	6(4.8)	5(4.0)	27(21.4)	3(2.4)	4(3.2)	
	10년이상	58(100.0)	19(32.8)	18(31.0)	5(8.6)	1(1.7)	1(1.7)	7(12.1)	7(12.1)	0(0.0)	

주 : *p<.05,***p<.01,***p<.001

<그림 3-1> 정착동기



나. 준비기간

- 이주를 위한 준비기간은 절반 정도(51.0%)가 1년 미만이었고 1년~2년 미만 준비한 대상자가 27.0%로 나타남
- 이주를 위해 2년~ 5년 미만 비교적 장기간 준비한 경우도 22.0%나 되었음
- 연령별로는 1년 미만 준비한 연령은 20대가 6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50대가 39.5%로 가장 낮게 나타남, 반면 1년~2년 미만 준비기간을 거친 경우는 50대(31.0%)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준비기간이 대체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남.

<표 3-4> 이주를 위한 준비기간

(단위: 명, %)

		사례수	1년 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4년미만	5년미만	χ^2
전체		500(100.0)	255(51.0)	135(27.0)	48(9.6)	31(6.2)	31(6.2)	
성별	남성	259(100.0)	130(50.2)	75(29.0)	30(11.6)	7(2.7)	17(6.6)	13.747**
	여성	241(100.0)	125(51.9)	60(24.9)	18(7.5)	24(10.0)	14(5.8)	
연령	20대	45(100.0)	28(62.2)	13(28.9)	2(4.4)	2(4.4)	0(0.0)	15.357
	30대	146(100.0)	83(56.8)	35(24.0)	13(8.9)	8(5.5)	7(4.8)	
	40대	180(100.0)	93(51.7)	47(26.1)	17(9.4)	11(6.1)	12(6.7)	
	50대 이상	129(100.0)	51(39.5)	40(31.0)	16(12.4)	10(7.8)	12(9.3)	

주 : *p<.05,**p<.01

다. 필요한 정보

-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나 민원 1순위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구입안내 및 등기(38.6%), 일자리 알선(18.7%), 귀농귀촌 교육(12.0%), 제주 이해 프로그램(11.6%) 순으로 나타나 거주를 위한 공간 마련과 일자리 관련 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14.2%)은 남성(9.3%)보다 제주 이해하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남성은 여성보다 귀농귀촌 교육(남성 13.6%, 여성 10.4%), 일자리 알선(남성 20.5%, 여성 16.7%)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주택 및 부동산 관련 정보는 30대(41.8%)와 50대(41.4%)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귀농귀촌 교육은 50대(15.6%)가 높았으나 30대도 12.3%나 되었음, 일자리 알선(31.1%)과 제주 이해하기 프로그램(15.6%)은 20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응답자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으며 고졸이하는 제주 이해하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타 집단보다 높음
- 지역별로는 제주시(동 9.7%, 읍면 11.3%)보다 서귀포 지역(동 13.8%, 읍면 16.5%) 정착주민들이 귀농귀촌 교육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 이해하기 교육 수요는 서귀포 지역(동 9.6%, 읍면 9.4%)보다 제주지역(동 14.3%, 읍면 11.3%)이 높게 나타남

〈표 3-5〉 필요한 정보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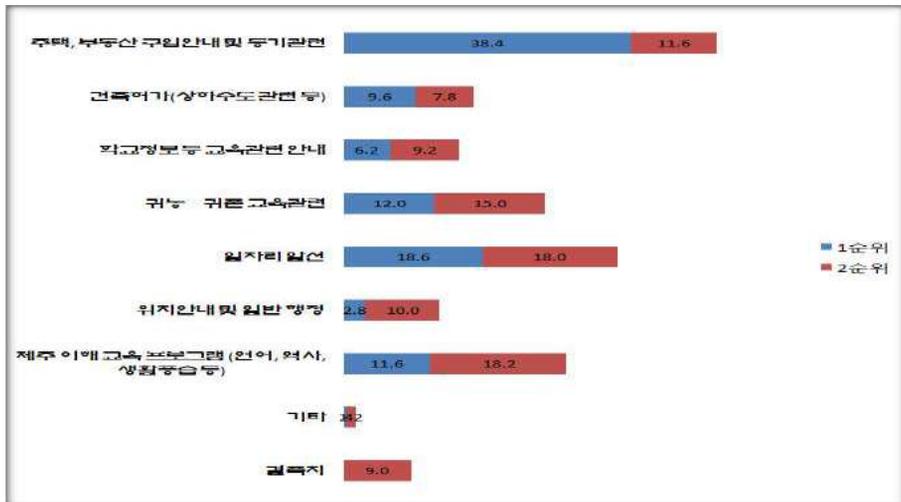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주택,부동산 구입안내 및 등기관련	건축허가(상하수도 관련 등)	학교정보 등 교육관련 안내	귀농 귀촌 교육관련	일자리 알선	위치안내 및 일반 행정	제주이해 교육프로그램	기타	χ^2
전체		498 (100.0)	192(38.6)	48(9.6)	31(6.2)	60(12.0)	93(18.7)	14(2.8)	58(11.6)	2(0.4)	
성별	남성	258 (100.0)	99(38.4)	24(9.3)	15(5.8)	35(13.6)	53(20.5)	7(2.7)	24(9.3)	1(0.4)	4.783
	여성	240 (100.0)	93(38.8)	24(10.0)	16(6.7)	25(10.4)	40(16.7)	7(2.9)	34(14.2)	1(0.4)	

		사례수	주택, 부동산 구입안내 및 등기관련	건축허가 (상하수도 관련 등)	학교정보 등 교육관련 안내	귀농 귀촌 교육관련	일자리 알선	위치안내 및 일반 행정	제주이해 교육프로그램	기타	χ^2
연령	20대	45 (100.0)	17(37.8)	0(0.0)	0(0.0)	5(11.1)	14(31.1)	2(4.4)	7(15.6)	0(0.0)	42.718**
	30대	146 (100.0)	61(41.8)	9(6.2)	7(4.8)	18(12.3)	27(18.5)	3(2.1)	19(13.0)	2(1.4)	
	40대	179 (100.0)	61(34.1)	19(10.6)	20(11.2)	17(9.5)	36(20.1)	4(2.2)	22(12.3)	0(0.0)	
	50대	128 (100.0)	53(41.4)	20(15.6)	4(3.1)	20(15.6)	16(12.5)	5(3.9)	10(7.8)	0(0.0)	
	이상										
학력	고졸 이하	51 (100.0)	22(43.1)	3(5.9)	2(3.9)	4(7.8)	6(11.8)	0(0.0)	14(27.5)	0(0.0)	29.886**
	전문대 / 대졸	389 (100.0)	143(36.8)	37(9.5)	27(6.9)	54(13.9)	76(19.5)	11(2.8)	40(10.3)	1(0.3)	
	대학원 이상	58 (100.0)	27(46.6)	8(13.8)	2(3.4)	2(3.4)	11(19.0)	3(5.2)	4(6.9)	1(1.7)	
거주 지역	제주시 동지역	154 (100.0)	56(36.4)	10(6.5)	13(8.4)	15(9.7)	35(22.7)	2(1.3)	22(14.3)	1(0.6)	54.403*
	제주시 읍면	143 (100.0)	57(40.1)	15(10.6)	6(4.2)	16(11.3)	25(17.6)	7(4.9)	16(11.3)	0(0.0)	
	서귀포 동지역	95 (100.0)	34(36.2)	8(8.5)	6(6.4)	13(13.8)	21(22.3)	3(3.2)	9(9.6)	0(0.0)	
	서귀포 읍면	85 (100.0)	37(43.5)	10(11.8)	4(4.7)	14(16.5)	10(11.8)	2(2.4)	8(9.4)	0(0.0)	
	무응답	23 (100.0)	8(34.8)	5(21.7)	2(8.7)	2(8.7)	2(8.7)	0(0.0)	3(1.3)	1(4.3)	

주 : *p<.05, **p<.01

<그림 3-2> 필요한 정보



라. 이주결정이 어려운 요인

- 이주 결정이 어려운 요인에 관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제주에서의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28.4%)과 낯선 사람과의 적응(22.2%), 직업변경 및 주변정리(20.0%)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보다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남성 34.7%, 여성 21.6%)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남성보다 직업변경 및 주변정리(남성 16.6%, 여성 23.7%)와 기후와 같은 새로운 환경 적응(남성 6.9%, 여성 11.2%) 이 높게 나타나 남성은 경제적인 문제에 여성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더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학력별 차이로는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은 고졸 이하(17.6%) 저학력보다는 전문대/대졸(31.0%) 과 대학원 이상(20.3%)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 고학력 집단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13.6%)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남

<표 3-6> 이주 결정이 어려운 요인

(단위: 명, %)

		사례수	가족 설득	제주에서의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	이주 비용 마련	낯선 사람들과의 적응	자녀 교육 문제	직업변경 및 주변정리	새로운 환경(바람, 습도 등) 적응	기타	χ^2
전 체		500 (100.0)	37(7.4)	142(28.4)	23(4.6)	111(22.2)	25(5.0)	100(20.0)	45(9.0)	17(3.4)	
성별	남성	259 (100.0)	20(7.7)	90(34.7)	13(5.0)	55(21.2)	14(5.4)	43(16.6)	18(6.9)	6(2.3)	15.767*
	여성	241 (100.0)	17(7.1)	52(21.6)	10(4.1)	56(0.0)	11(4.6)	57(23.7)	27(11.2)	11(4.6)	
연령	20대	45 (100.0)	2(4.4)	12(26.7)	4(8.9)	7(15.6)	1(2.2)	10(22.2)	4(8.9)	5(11.1)	49.318***
	30대	146 (100.0)	12(8.2)	54(37.0)	6(4.1)	29(19.9)	8(5.5)	22(15.1)	7(4.8)	8(5.5)	
	40대	180 (100.0)	10(5.6)	51(28.3)	3(1.7)	44(24.4)	10(5.6)	46(25.6)	14(7.8)	2(1.1)	
	50대 이상	129 (100.0)	13(10.1)	25(19.4)	10(7.8)	31(24.0)	6(4.7)	22(17.1)	20(15.5)	2(1.6)	
학력	고졸 이하	51 (100.0)	4(7.8)	9(17.6)	2(3.9)	13(25.5)	5(9.8)	11(21.6)	2(3.9)	5(9.8)	31.348
	전문대/대졸	390 (100.0)	24(6.2)	121(31.0)	16(4.9)	81(20.8)	15(3.8)	83(21.3)	35(9.0)	12(3.1)	
	대학원	59 (100.0)	45(15.3)	12(20.3)	2(3.4)	17(28.8)	5(8.5)	6(10.2)	8(13.6)	0(0.0)	
	이상										

주 : *p<.05,**p<.01,***p<.001

마. 정보수집

1) 정보수집 방법

- 이주관련 정보 수집 경로 1순위를 분석한 결과 제주에 먼저 이주한 지인을 통하여 44.4%, 직접 조사와 제주출신 지인을 통해서가 각각 15.8%, 총 응답자의 36.6%를 차지하며, 인터넷, SNS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보습득이 12.2%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문화강좌 1.2% 도청 홈페이지나 공무원을 통한 정보습득 1.6%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공적 영역에서의 정보제공 서비스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이(51.4%) 여성(36.9%)보다 제주에 먼저 이주한 지인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은 직접조사(여성 18.3%, 남성 13.5%)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습득(여성 13.7%, 남성 10.8%)이 남성보다 약간 높아 남성이 여성보다는 활발한 사회생활로 인적교류를 통한 정보 습득률이 높은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시간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어 직접조사나 인터넷을 통한 조사를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음
- 연령별로는 40대(50.0%)가 제주에 먼저 이주한 지인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반면 50대는 직접조사를 통한 정보습득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고(24.8%) 인터넷이나 사이버 공간 활용은 20대(15.6%)와 30대(17.1%)가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동지역(제주 48.7%, 서귀포 50.5%)에 이주한 대상자가 읍면 지역(제주 35.0%, 서귀포 43.5%) 대상자보다 제주에 먼저 이주한 지인을 통해 이주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비율이 높고, 읍면지역(제주 21.0%, 서귀포 20.0%)에 이주한 응답자가 동지역(제주 13.0%, 서귀포 9.5%)에 비해 직접조사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7〉 정보수집 경로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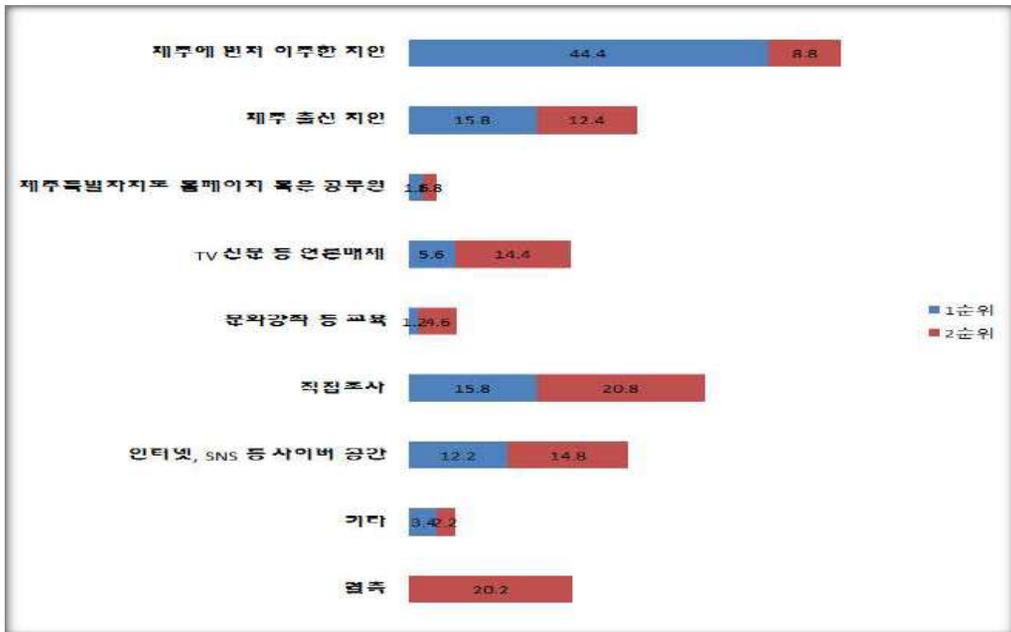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제주에 먼저 이주한 지인	제주 출신 지인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혹은 공무원	TV 신문 등 언론매체	문화강좌 등 교육	직접조사	인터넷, SNS 등 사이버 공간	χ^2
전 체		500(100.0)	222(44.4)	79(15.8)	8(1.6)	28(5.6)	6(1.2)	79(15.8)	61(12.2)	
성 별	남성	259(100.0)	133(51.4)	36(13.9)	3(1.2)	20(7.7)	1(0.4)	35(13.5)	28(10.8)	25.588**
	여성	241(100.0)	89(36.9)	43(17.8)	5(2.1)	8(3.3)	5(2.1)	44(18.3)	33(13.7)	

		사례수	제주에 먼저 이주한 지인	제주 출신 지인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혹은 공무원	TV 신문 등 언론매체	문화강좌 등 교육	직접조사	인터넷, SNS 등 사이버 공간	χ^2
연령	20대	45(100.0)	18(40.0)	8(17.8)	0(0.0)	1(2.2)	0(0.0)	8(17.8)	7(15.6)	42.025**
	30대	146(100.0)	60(41.1)	25(17.1)	4(2.7)	4(2.7)	1(0.7)	19(13.0)	25(17.1)	
	40대	180(100.0)	90(50.0)	25(13.9)	1(0.6)	12(6.7)	5(2.8)	20(11.1)	22(12.2)	
	50대 이상	129(100.0)	54(41.9)	21(16.3)	3(2.3)	11(8.5)	0(0.0)	32(24.8)	7(5.4)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154(100.0)	75(48.7)	29(18.8)	0(0.0)	6(3.9)	2(1.3)	20(13.0)	14(9.1)	50.511*
	제주시 읍면지역	143(100.0)	50(35.0)	24(16.8)	2(1.4)	10(7.0)	1(0.7)	30(21.0)	24(16.8)	
	서귀포시 동지역	95(100.0)	48(50.5)	8(8.4)	4(4.2)	4(4.2)	1(1.1)	9(9.5)	15(15.8)	
	서귀포시 읍면지역	85(100.0)	37(43.5)	15(17.6)	2(2.4)	6(7.1)	1(1.2)	17(20.0)	7(8.2)	
	무응답	23(100.0)	12(13.0)	3(13.0)	0(0.0)	2(8.7)	2(8.7)	3(13.0)	1(4.3)	

주 : *p<.05,**p<.01,***p<.001

<그림 3-3> 정보 수집 경로



2) 가장 좋은 정보수집 방법

○ 이주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에 관한 의견으로는 전체적으로 인터넷

공간을 통한 정보수집(34.8%)이 가장 높았고 주민센터 등 담당 공무원의 상담(31.6%)로 나타나 지역의 담당 공무원을 통한 정보수집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음

- 지역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을 통한 정보수집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은 성별로는 여성(23.0%)보다는 남성(39.5%)이, 세대별로는 20대(13.3%)는 낮고 30대(36.8%), 40대(36.9%)에서 높게 나타남

〈표 3-8〉 가장 좋은 정보수집 방법

(단위: 명, %)

		사례수	행정기관 홈페이지	제주 안내책자 제작	언론매체(방송, 신문 등) 광고	담당 공무원 (도, 시, 주민센터) 상담	인터넷(블로그 등) 활용	기타	χ^2
전체		497(100.0)	47(9.5)	38(7.6)	51(10.3)	157(31.6)	173(34.8)	31(6.2)	
성별	남성	258(100.0)	24(9.3)	19(7.4)	28(10.9)	102(39.5)	72(27.9)	13(5.0)	19.551**
	여성	239(100.0)	23(9.6)	19(7.9)	23(9.6)	55(23.0)	101(42.3)	18(7.5)	
연령	20대	45(100.0)	4(8.9)	6(13.3)	1(2.2)	6(13.3)	23(51.1)	5(11.1)	47.883***
	30대	144(100.0)	11(7.6)	6(4.2)	10(6.9)	53(36.8)	54(37.5)	10(6.9)	
	40대	179(100.0)	11(6.1)	10(5.6)	18(10.1)	66(36.9)	62(34.6)	12(6.7)	
	50대 이상	129(100.0)	21(16.3)	16(12.4)	22(17.1)	32(24.8)	34(26.4)	4(3.1)	

주 : *p<.05, **p<.01, ***p<.001

4. 적응 과정

가. 적응 정도

- 제주 생활 적응도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적응되었다는 응답이 70.6%, 적응이 안 되었다는 응답이 29.4%로 대부분이 적응되었다고 응답함
- 남성보다는 여성이,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적응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사회적 약자일수록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한다고 풀이할 수 있음
- 거주기간별로는 1년 미만 거주한 응답자가 적응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0%로 가장 높음, 주목할 사실은 오히려 1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 중 65.6%정도 적응되었다고 응답해 거주기간이 오래 지나도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표 3-9> 제주 적응 정도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적응되지 않음	적응 안됨	적응안됨 합계	적응됨	매우 적응됨	적응됨 합계	χ²
전체		500(100.0)	10(2.0)	137(27.4)	147(29.4)	276(55.2)	77(15.4)	353(70.6)	
성 별	남성	259(100.0)	6(2.3)	84(32.4)	90(34.7)	132(51.0)	37(14.3)	169(65.3)	7.415
	여성	241(100.0)	4(1.7)	53(22.0)	57(23.7)	144(59.8)	40(16.6)	184(76.4)	
연 령	20대	45(100.0)	0(0.0)	7(15.6)	7(15.6)	29(64.4)	9(20.0)	38(84.4)	28.088**
	30대	146(100.0)	4(2.7)	48(32.9)	52(35.6)	76(52.1)	18(12.3)	94(64.4)	
	40대	180(100.0)	1(0.6)	58(32.2)	59(32.8)	103(57.2)	18(10.0)	121(67.2)	
	50대 이상	129(100.0)	5(3.9)	24(18.6)	29(22.5)	68(52.7)	32(24.8)	100(77.5)	
거 주 기 간	1년 미만	50(100.0)	0(0.0)	10(20.0)	10(20.0)	37(74.0)	3(6.0)	40(80.0)	26.716**
	2년 미만	106(100.0)	2(1.9)	35(33.0)	37(34.9)	58(54.7)	11(10.4)	69(65.1)	
	4년 미만	160(100.0)	2(1.3)	45(28.1)	47(29.4)	89(55.6)	24(15.0)	113(70.6)	
	10년 미만	126(100.0)	2(1.6)	31(24.6)	33(26.2)	69(54.8)	24(19.0)	93(73.8)	
	10년이상	58(100.0)	4(6.9)	16(27.6)	20(34.5)	23(39.7)	15(25.9)	38(65.6)	

주 : *p<.05, **p<.01, ***p<.001

나. 직업의 변화

1) 정착 이전과 이후 직업 변화

○ 정착주민의 정착이전직업은 사무/관리직 비율이 가장 높고(29.4%), 자영업(18.0%), 판매/서비스직(11.0%) 순이었으나 정착이후 직업은 자영업이 가장 높고(32.8%) 판매/서비스직(13.6%), 1차 산업(12.2%)로 나타나 이주이전에 비해 사무/관리직 비율은 현저히 줄고 1차 산업과 자영업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남

<표 3-10> 정착 이전과 이후 직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등)	사무직/관리직(일반회사원 등)	공무원	1차산업 종사	생산직/기술직/노무직	자영업	판매직/서비스직	전업주부	학생	은퇴/무직	기타
전 체	이전 500 (100.0)	32 (6.4)	147 (29.4)	18 (3.6)	18 (3.6)	29 (5.8)	90 (18.0)	55 (11.0)	45 (9.0)	33 (6.6)	7 (1.4)	26 (5.2)
	이후 500 (100.0)	17 (3.4)	38 (7.6)	11 (2.2)	61 (12.2)	28 (5.6)	164 (32.8)	68 (13.6)	34 (6.8)	11 (2.2)	22 (4.4)	46 (9.2)
남 성	이전 259 (100.0)	24 (9.3)	63 (24.3)	15 (5.8)	13 (5.0)	17 (6.6)	55 (21.2)	21 (8.1)	28 (10.8)	9 (3.5)	0 (0.0)	14 (5.4)
	이후 259 (100.0)	12 (4.6)	17 (6.6)	9 (3.5)	30 (11.6)	12 (4.6)	88 (34.0)	40 (15.4)	16 (6.2)	1 (0.4)	9 (3.5)	25 (9.7)

구분	사례수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등)	사무직/관리직(일반회사원 등)	공무원	1차산업 종사	생산직/기술직/노무직	자영업	판매직/서비스직	전업주부	학생	은퇴/무직	기타	
여성	이전	241 (100.0)	8 (3.3)	84 (34.9)	3 (1.2)	5 (2.1)	12 (5.0)	35 (14.5)	34 (14.1)	17 (7.1)	24 (10.0)	7 (2.9)	12 (5.0)
	이후	241 (100.0)	5 (2.1)	21 (8.7)	2 (0.8)	31 (12.9)	16 (6.6)	76 (31.5)	28 (11.6)	18 (7.5)	1 (0.4)	13 (5.4)	21 (8.7)
20대	이전	45 (100.0)	2 (4.4)	14 (31.1)	1 (2.2)	1 (2.2)	0 (0.0)	2 (4.4)	10 (22.2)	3 (6.7)	4 (8.9)	0 (0.0)	8 (17.8)
	이후	45 (100.0)	2 (4.4)	3 (6.7)	3 (6.7)	6 (13.3)	1 (2.2)	13 (28.9)	8 (17.8)	3 (6.7)	0 (0.0)	0 (0.0)	6 (13.3)
30대	이전	146 (100.0)	10 (6.8)	33 (22.6)	2 (1.4)	5 (3.4)	5 (3.4)	35 (24.0)	20 (13.7)	19 (13.0)	11 (7.5)	2 (1.4)	4 (2.7)
	이후	146 (100.0)	8 (5.5)	6 (4.1)	2 (1.4)	17 (11.6)	7 (4.8)	49 (33.6)	23 (15.8)	14 (9.6)	3 (2.1)	6 (4.1)	11 (7.5)
40대	이전	180 (100.0)	9 (5.0)	56 (31.1)	8 (4.4)	8 (4.4)	19 (10.6)	34 (18.9)	11 (6.1)	11 (6.1)	13 (7.2)	5 (2.8)	6 (3.3)
	이후	180 (100.0)	4 (2.2)	14 (7.8)	3 (1.7)	24 (13.3)	15 (8.3)	58 (32.2)	19 (10.6)	8 (4.4)	5 (2.8)	11 (6.1)	19 (10.6)
50대 이상	이전	129 (100.0)	11 (8.5)	44 (34.1)	7 (5.4)	4 (3.1)	5 (3.9)	19 (14.7)	14 (10.9)	12 (9.3)	5 (3.9)	0 (0.0)	8 (6.2)
	이후	129 (100.0)	3 (2.3)	15 (11.6)	3 (2.3)	14 (10.9)	5 (3.9)	44 (34.1)	18 (14.0)	9 (7.0)	3 (2.3)	5 (3.9)	10 (7.8)

주 : *p<.05, **p<.01, ***p<.001

2) 정착 이후 직업 변경 원인

- 제주 정착이후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는 269명으로 전체 응답자 500명중 절반이 넘는 약 53.8%를 차지함
- 정착이전과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가 가장 많은 46.1%를 차지했으나 동일 분야라도 제주의 소득이 낮아서 (15.6%) 이거나 동일 분야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경우(10.0%)가 상당수 있었음

<표 3-11> 정착 이후 직업 변경 원인

(단위: 명, %)

	사례수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동일 분야의 일자리를 제주에서 찾을 수 없어서	동일 분야라도 제주 지역의 소득이 낮아서	기타	χ^2
전체	269(100.0)	124(46.1)	27(10.0)	42(15.6)	76(28.3)	

		사례수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동일 분야의 일자리를 제주에서 찾을 수 없어서	동일 분야라도 제주 지역의 소득이 낮아서	기타	χ^2
성별	남성	133(100.0)	59(44.4)	18(13.5)	25(18.8)	31(23.3)	7.361
	여성	136(100.0)	65(47.8)	9(6.6)	17(12.5)	45(33.1)	
연령	20대	34(100.0)	13(38.2)	1(2.9)	3(8.8)	17(50.0)	24.236**
	30대	74(100.0)	30(40.5)	3(4.1)	16(21.6)	25(33.8)	
	40대	96(100.0)	43(44.8)	14(14.6)	16(16.7)	23(24.0)	
	50대 이상	65(100.0)	38(58.5)	9(13.8)	7(10.8)	11(16.9)	
거주 기간	1년 미만	33(100.0)	12(36.4)	5(15.2)	3(9.1)	13(39.4)	13.914
	2년 미만	56(100.0)	22(39.3)	4(7.1)	11(19.6)	19(33.9)	
	4년 미만	84(100.0)	40(47.6)	8(9.5)	14(16.7)	22(26.2)	
	10년 미만	71(100.0)	36(50.7)	5(7.0)	13(18.3)	17(23.9)	
	10년 이상	25(100.0)	14(56.0)	5(20.0)	1(4.0)	5(20.0)	

주 : *p<.05, **p<.01, ***p<.001

다. 소득의 변화

- 제주정착 이전 소득은 300~400만 원이 25.8%, 200~300만 원이 24.3%, 100~200만원이 12.6%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은 300~400만원이 28.1%, 200~300만원이 24.5%이고 여성은 200~300만원이 24.1%. 300~400만원이 23.2%를 차지함

〈표 3-12〉 제주 정착이전 소득

(단위: 명, %)

		사례수	100만원 이하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600만원	600~700만원	700만원 이상	χ^2
전체		477(100.0)	38(8.0)	60(12.6)	116(24.3)	123(25.8)	65(13.6)	28(5.9)	15(3.1)	32(6.7)	
성별	남성	253(100.0)	14(5.5)	21(8.3)	62(24.5)	71(28.1)	38(15.0)	17(6.7)	9(3.6)	21(8.3)	16.689*
	여성	224(100.0)	24(10.7)	39(17.4)	54(24.1)	52(23.2)	27(12.1)	11(4.9)	6(2.7)	11(4.9)	
연령	20대	44(100.0)	18(40.9)	14(31.8)	10(22.7)	2(4.5)	0(0.0)	0(0.0)	0(0.0)	0(0.0)	163.830***
	30대	138(100.0)	5(3.6)	25(18.1)	50(36.2)	35(25.4)	10(7.2)	5(3.6)	3(2.2)	5(3.6)	
	40대	170(100.0)	9(5.3)	10(5.9)	40(23.5)	58(34.1)	29(17.1)	11(6.5)	4(2.4)	9(5.3)	
	50대이상	125(100.0)	6(4.8)	11(8.8)	16(12.8)	28(22.4)	26(20.8)	12(9.6)	8(6.4)	18(14.4)	

주 : *p<.05, **p<.01, ***p<.001

- 제주 정착이후의 소득분포는 200~300만 원이 24.3%, 100~200만 원이 33.9%, 100만원 이하도 22.6%로 나타나 제주 정착이후 소득이 낮아진 것으로 추측됨

- 정착이후 소득은 연령별로 비교했을 때 100만 원 이하는 20대가 가장 많고 (26.4%), 100만원-200만 원은 50대(51.5%), 20대(41.4%), 30대(34.1%)순이었고 200-300만 원대는 40대(29.0%)로 가장 많고 20대와 50대 이상이 저 소득층에 많이 분포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표 3-13〉 제주 정착이후 소득

(단위: 명, %)

		사례수	100만원 이하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600만원	600~700만원	700만원 이상	χ^2
전체		478(100.0)	108(22.6)	162(33.9)	116(24.3)	39(8.2)	20(4.2)	12(2.5)	5(1.0)	16(3.3)	
성별	남성	256(100.0)	59(23.0)	87(33.8)	67(26.1)	16(6.3)	10(4.1)	6(2.3)	2(0.9)	9(3.6)	2.653
	여성	222(100.0)	35(15.9)	141(63.6)	40(18.2)	5(2.3)	0(0.0)	0(0.0)	0(0.0)	0(0.0)	
연령	20대	44(100.0)	12(26.4)	18(41.4)	10(22.1)	1(2.1)	1(2.1)	1(2.1)	0(0.7)	1(2.9)	67.904***
	30대	140(100.0)	31(21.8)	48(34.1)	34(24.1)	10(7.1)	7(4.7)	4(2.9)	3(1.8)	5(3.5)	
	40대	170(100.0)	37(21.8)	25(14.5)	49(29.0)	31(18.5)	12(7.3)	5(3.2)	1(0.8)	8(4.8)	
	50대이상	124(100.0)	27(22.0)	64(51.5)	25(20.5)	4(3.0)	0(0.0)	2(1.5)	0(0.0)	2(1.5)	

주 : *p<.05, **p<.01, ***p<.001

라. 삶의 질 변화

1) 제주 정착 이전 삶의 질

- 제주 정착 이전 삶의 질을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간 높은 평균 3.22를 나타냄
- 성별로는 남성(평균 3.08)보다는 여성(평균 3.37)이 삶의 질이 높다고 응답함
- 정착 이전 삶의 질을 연령별로 분석하면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나 50대(평균 3.40)와 20대(평균 3.39)가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14〉 제주 정착이전 삶의 질

(단위: 명, %)

		사례수	전혀 행복하지 않음	행복하지 않음	보통	행복	매우행복	χ^2	평균
전체		480 (100.0)	2 (0.4)	61 (12.7)	265 (55.3)	133 (27.8)	19 (3.9)		3.22
성별	남성	254 (100.0)	0 (0.0)	44 (17.3)	153 (60.2)	50 (19.7)	7 (2.8)	27.645***	3.08
	여성	236 (100.0)	2 (0.8)	18 (7.6)	118 (50.0)	86 (36.4)	12 (5.1)		3.37

		사례수	전혀 행복하지 않음	행복하지 않음	보통	행복	매우행복	χ^2	평균
연령	20대	41 (100.0)	0 (0.0)	3 (7.3)	23 (56.1)	11 (26.8)	4 (9.8)	20.685	3.39
	30대	145 (100.0)	1 (0.7)	21 (14.5)	79 (54.5)	41 (28.3)	3 (2.1)		3.17
	40대	177 (100.0)	1 (0.6)	27 (15.3)	106 (59.9)	40 (22.6)	3 (1.7)		3.10
	50대이상	127 (100.0)	0 (0.0)	11 (8.7)	63 (49.6)	44 (34.6)	9 (7.1)		3.40

주 : *p<.05, **p<.01, ***p<.001

2) 제주 정착 이후 삶의 질

- 정착 이후 삶의 질(평균 3.68)은 전체적으로 이주이전(평균 3.22)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됨
- 성별로는 정착 이전과 마찬가지로 남성(평균 3.61)보다는 여성(평균 3.75)이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주이전에 비해서 그 격차가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정착 이후 연령별 삶의 질은 세대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50대 이상(평균 3.88)과 20대(평균 3.63)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두 제주 이주 이전에 비해 삶의 질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3-15> 제주 정착이후 삶의 질

(단위: 명, %)

		사례수	전혀 행복하지 않음	행복하지 않음	보통	행복	매우행복	χ^2	평균
전체		477 (100.0)	1 (0.2)	23 (4.8)	156 (32.8)	245 (51.3)	52 (10.9)	14.534**	3.68
성별	남성	249 (100.0)	0 (0.0)	18 (7.2)	90 (36.1)	111 (44.6)	30 (12.0)		3.61
	여성	228 (100.0)	1 (0.4)	5 (2.2)	66 (28.9)	134 (58.8)	22 (9.6)		3.75
연령	20대	40 (100.0)	0 (0.0)	2 (5.0)	15 (37.5)	19 (47.5)	4 (10.0)	20.475	3.63
	30대	143 (100.0)	0 (0.0)	12 (8.4)	50 (35.0)	65 (45.5)	16 (11.2)		3.59
	40대	172 (100.0)	1 (0.6)	8 (4.7)	57 (33.1)	95 (55.2)	11 (6.4)		3.62
	50대이상	122 (100.0)	0 (0.0)	1 (0.8)	34 (27.9)	66 (54.1)	21 (17.2)		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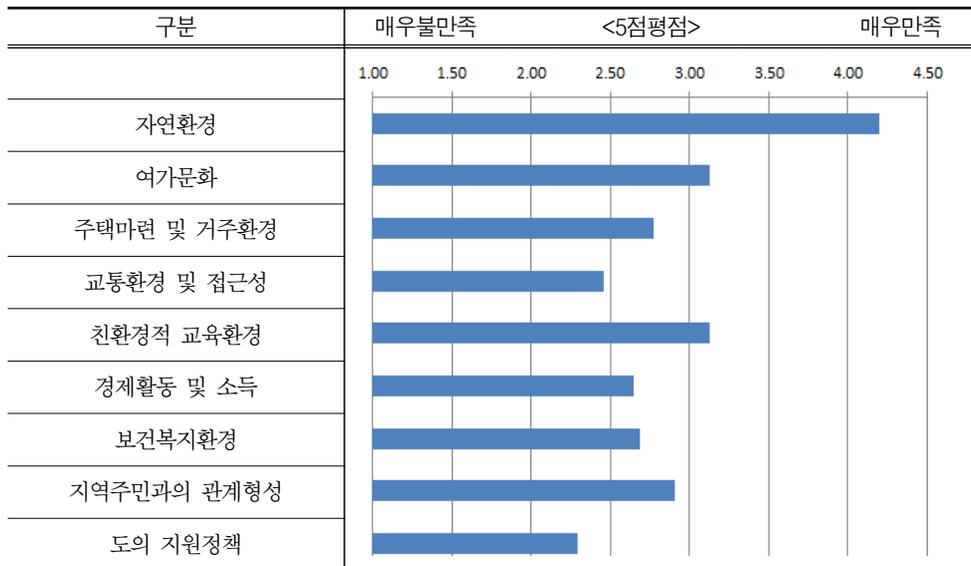
주 : *p<.05, **p<.01, ***p<.001

마. 영역별 생활 만족도

1) 영역별 생활 만족도

- 정착주민들의 이주이후 영역별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는 자연환경(평균 4.20)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여가문화와 친환경적 교육환경(평균 3.13) 등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 반면 도의 지원정책(평균 2.29)이나 교통 환경 및 접근성(평균 2.46), 경제활동 및 소득(평균 2.65)부분에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임

〈그림 3-4〉 영역별 생활 만족도



2) 자연환경 만족도

-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타 영역에 비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연령별로는 세대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남
- 거주기간별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거주기간이 짧은 1년 미만 거주자가 가장 높은 만족도(평균4.40)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님

〈표 3-16〉 자연환경 만족도

(단위: 명, %)

		사례수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χ²	평균
전체		500(100.0)	10(2.0)	8(1.6)	57(11.4)	222(44.4)	203(40.6)		4.20
연령	20대	45(100.0)	0(0.0)	3(6.7)	6(13.3)	22(48.9)	14(31.1)	16.096	4.04
	30대	146(100.0)	2(1.4)	2(1.4)	18(12.3)	64(43.8)	60(41.1)		4.22
	40대	180(100.0)	5(2.8)	3(1.7)	18(10.0)	86(47.8)	68(37.8)		4.16
	50대이상	129(100.0)	3(2.3)	0(0.0)	15(11.6)	50(38.8)	61(47.3)		4.29
거주 기간	1년미만	50(100.0)	1(2.0)	0(0.0)	3(6.0)	20(40.0)	26(52.0)	15.643	4.40
	2년미만	106(100.0)	1(0.9)	4(3.8)	12(11.3)	47(44.3)	42(39.6)		4.18
	4년미만	160(100.0)	3(1.9)	1(1.9)	14(15.0)	75(44.4)	67(36.9)		4.13
	10년미만	126(100.0)	2(1.6)	1(0.8)	11(8.7)	59(46.8)	53(42.1)		4.27
	10년이상	58(100.0)	3(5.2)	0(0.0)	7(12.1)	25(43.1)	23(39.7)		4.12

주 : *p<.05,**p<.01,***p<.001

3) 여가문화 만족도

- 여가문화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약간 높은 만족도(평균 3.13)를 나타냄
-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여성(평균 3.02)보다는 남성(평균 3.23)이 약간 여가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20대(평균 2.76)와 30대(평균 3.08)가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표 3-17〉 여가문화 만족도

(단위: 명, %)

		사례수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χ²	평균
전체		500 (100.0)	15 (3.0)	110 (22.0)	205 (41.0)	136 (27.2)	34 (6.8)		3.13
성 별	남성	259 (100.0)	4 (1.5)	50 (19.3)	110 (42.5)	73 (28.2)	22 (8.5)	8.313	3.23
	여성	241 (100.0)	11 (4.6)	60 (24.9)	95 (39.4)	63 (26.1)	12 (5.0)		3.02
연 령	20대	45 (100.0)	3 (6.7)	16 (35.6)	16 (35.6)	9 (20.0)	1 (2.2)	16.749	2.76
	30대	146 (100.0)	5 (3.4)	36 (24.7)	58 (39.7)	36 (24.7)	11 (7.5)		3.08
	40대	180 (100.0)	3 (1.7)	29 (16.1)	84 (46.7)	50 (27.8)	14 (7.8)		3.24
	50대 이상	129 (100.0)	4 (3.1)	29 (22.5)	47 (36.4)	41 (31.8)	8 (6.2)		3.16

주 : *p<.05,**p<.01,***p<.001

4) 주택마련 및 거주환경 만족도

- 주택마련 및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약간 만족(평균 2.77)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별로는 50대 이상(평균 2.98)과 20대(평균 2.93)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50대 이상 연령은 비교적 주택마련 등 거주가 안정적 형태인 경우가 많고 20대 이하에서는 오래 정착할 의지가 많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가족 수에 따른 거주환경 만족도 조사에서는 가족구성원이 4명(평균 2.98)인 가구와 3명(평균 2.93)인 가구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1인 가구(평균 2.49)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주거유형별 만족도에서는 자가 주택(평균 3.06)을 가진 대상자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월세/년세(평균 2.52)형태로 거주하는 대상자가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 정착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8〉 주택마련 및 거주환경 만족도

(단위: 명, %)

		사례수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χ^2	평균
전 체		498 (100.0)	28 (5.6)	194 (39.0)	159 (31.9)	97 (19.5)	20 (4.0)		2.77
연령	20대	44 (100.0)	1 (2.3)	13 (29.5)	20 (45.5)	8 (18.2)	2 (4.5)	21.245*	2.93
	30대	146 (100.0)	10 (6.8)	70 (47.9)	39 (26.7)	22 (15.1)	5 (3.4)		2.60
	40대	180 (100.0)	10 (5.6)	71 (39.4)	63 (35.0)	31 (17.2)	5 (2.8)		2.72
	50대이상	128 (100.0)	7 (5.5)	40 (31.3)	37 (28.9)	36 (28.1)	8 (6.3)		2.98
가족 수	1명	104 (100.0)	9 (8.7)	47 (45.2)	38 (36.5)	8 (7.7)	2 (1.9)	32.485*	2.49
	2명	114 (100.0)	4 (3.5)	55 (48.2)	27 (23.7)	23 (20.2)	5 (4.4)		2.74
	3명	97 (100.0)	4 (4.1)	30 (30.9)	37 (38.1)	21 (21.6)	5 (5.2)		2.93
	4명	124 (100.0)	5 (4.0)	37 (29.8)	44 (35.5)	32 (25.8)	6 (4.8)		2.98
	5명이상	59 (100.0)	6 (10.2)	25 (42.4)	13 (22.0)	13 (22.0)	2 (3.4)		2.66

		사례수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χ^2	평균
주거 유형	자가	197 (100.0)	8 (4.1)	57 (28.9)	57 (28.9)	65 (33.0)	10 (5.1)	51.136***	3.06
	전세	57 (100.0)	2 (3.5)	24 (42.1)	21 (36.8)	8 (14.0)	2 (3.5)		2.72
	월세/년세	198 (100.0)	16 (8.1)	97 (49.0)	59 (29.8)	19 (9.6)	7 (3.5)		2.52
	기타	46 (100.0)	2 (4.3)	16 (34.8)	22 (47.8)	5 (10.9)	1 (2.2)		2.72

주 : *p<.05,**p<.01,***p<.001

5) 교통 환경 및 접근성 만족도

- 교통 환경 및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평균 2.46으로 약간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통 환경 및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

<표 3-19> 교통환경 및 접근성 만족도

(단위: 명, %)

		사례수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χ^2	평균
전체		499 (100.0)	53 (10.6)	243 (48.7)	134 (26.9)	58 (11.6)	11 (2.2)		2.46
성별	남성	259 (100.0)	19 (7.3)	129 (49.8)	76 (29.3)	30 (11.6)	5 (1.9)	7.036	2.51
	여성	240 (100.0)	34 (14.2)	114 (47.5)	58 (24.2)	28 (11.7)	6 (2.5)		2.41
연령	20대	45 (100.0)	6 (13.3)	23 (51.1)	12 (26.7)	4 (8.9)	0 (0.0)	25.913*	2.31
	30대	146 (100.0)	15 (10.3)	84 (57.5)	31 (21.2)	12 (8.2)	4 (2.7)		2.36
	40대	180 (100.0)	13 (7.2)	89 (49.4)	58 (32.2)	18 (10.0)	2 (1.1)		2.48
	50대이상	128 (100.0)	19 (14.8)	47 (36.7)	33 (25.8)	24 (18.8)	5 (3.9)		2.60

주 : *p<.05,**p<.01,***p<.001

6) 친환경적 교육환경 만족도

- 친환경적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평균 3.13으로 약간 만족한 것으로 조사됨
- 성별로는 남성(평균 3.07)보다 여성(평균 3.19)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어 여성이 자녀교육에 더욱 관심이 많다고 할 수 있음
- 세대별 만족도에서는 20대(평균 3.53)에서 친환경적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기간별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기간이 가장 짧은 1년 미만(평균 3.46)의 거주 집단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이는 최근 이주자가 친환경적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풀이할 수 있음

〈표 3-20〉 친환경적 교육환경 만족도

(단위: 명, %)

		사례수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χ^2	평균
전체		489 (100.0)	9 (1.8)	111 (22.7)	210 (42.9)	127 (26.0)	32 (6.5)		3.13
성별	남성	255 (100.0)	2 (0.8)	70 (27.5)	105 (41.2)	64 (25.1)	14 (5.5)	9.979*	3.07
	여성	234 (100.0)	7 (3.0)	41 (17.5)	105 (44.9)	63 (26.9)	18 (7.7)		3.19
연령	20대	45 (100.0)	0 (0.0)	3 (6.7)	18 (40.0)	21 (46.7)	3 (6.7)	35.152	3.53
	30대	141 (100.0)	6 (4.3)	46 (32.6)	58 (41.1)	23 (16.3)	8 (5.7)		2.87
	40대	177 (100.0)	1 (0.6)	41 (23.2)	77 (43.5)	44 (24.9)	14 (7.9)		3.16
	50대이상	126 (100.0)	2 (1.6)	21 (16.7)	57 (45.2)	39 (31.0)	7 (5.6)		3.22
거주기간	1년미만	48 (100.0)	0 (0.0)	2 (4.2)	28 (58.3)	12 (25.0)	6 (12.5)	23.309*	3.46
	2년미만	105 (100.0)	2 (1.9)	22 (21.0)	45 (42.9)	30 (28.6)	6 (5.7)		3.15
	4년미만	154 (100.0)	3 (1.9)	45 (29.2)	55 (35.7)	41 (26.6)	10 (6.5)		3.06
	10년미만	124 (100.0)	3 (2.4)	26 (21.0)	56 (45.2)	34 (27.4)	5 (4.0)		3.10
	10년이상	58 (100.0)	1 (1.7)	16 (27.6)	26 (44.8)	10 (17.2)	5 (8.6)		3.03

주 : *p<.05, **p<.01, ***p<.001

7) 경제활동 및 소득 만족도

- 경제활동 및 소득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평균 2.65로 보통인 것으로 조사됨
- 성별로는 남성(평균 2.56)보다는 여성(평균 2.75)이 경제활동이나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라 할 수 없음
- 세대별로는 연령이 가장 낮은 20대(평균 3.22)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학력별 비교에서는 고졸이하 집단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줌, 경제활동이나 소득이 학력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때 고학력 집단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제주지역에 고소득 일자리가 많지 않다고 추측할 수 있음

〈표 3-21〉 경제활동 및 소득 만족도

(단위: 명, %)

		사례수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χ^2	평균
전체		500 (100.0)	31 (6.2)	204 (40.8)	184 (36.8)	71 (14.2)	10 (2.0)		2.65
성별	남성	259 (100.0)	20 (7.7)	114 (44.0)	91 (35.1)	28 (10.8)	6 (2.3)	8.39	2.56
	여성	241 (100.0)	11 (4.6)	90 (37.3)	93 (38.6)	43 (17.8)	4 (1.7)		2.75
연령	20대	45 (100.0)	1 (2.2)	8 (17.8)	17 (37.8)	18 (40.0)	1 (2.2)	43.321***	3.22
	30대	146 (100.0)	14 (9.6)	65 (44.5)	48 (32.9)	16 (11.0)	3 (2.1)		2.51
	40대	180 (100.0)	5 (2.8)	86 (47.8)	64 (35.6)	22 (12.2)	3 (1.7)		2.62
	50대이상	129 (100.0)	11 (8.5)	45 (34.9)	55 (42.6)	15 (11.6)	3 (2.3)		2.64
학력	고졸이하	51 (100.0)	4 (7.8)	10 (19.6)	20 (39.2)	14 (27.5)	3 (5.9)	27.697***	3.04
	전문대/ 대졸	390 (100.0)	19 (4.9)	176 (45.1)	142 (36.4)	47 (12.1)	6 (1.5)		2.60
	대학원 이상	59 (100.0)	8 (13.6)	18 (30.5)	22 (37.3)	10 (16.9)	1 (1.7)		2.63

주 : *p<.05,**p<.01,***p<.001

8) 보건복지 환경 만족도

- 보건복지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전체적으로 평균 2.69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여성이 약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연령별로는 20대(평균 3.09)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 연령이 낮았을 때 복지수요가 적어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표 3-22〉 보건복지환경 만족도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χ^2	평균
전체		496 (100.0)	14 (2.8)	185 (37.3)	242 (48.8)	52 (10.5)	3 (0.6)		2.69
성별	남성	257 (100.0)	5 (1.9)	102 (39.7)	127 (49.4)	22 (8.6)	1 (0.4)	4.606	2.66
	여성	257 (100.0)	9 (3.8)	83 (34.7)	115 (48.1)	30 (12.6)	2 (0.8)		2.72
연령	20대	45 (100.0)	0 (0.0)	7 (15.6)	28 (62.2)	9 (20.0)	1 (2.2)	25.513*	3.09
	30대	144 (100.0)	6 (4.2)	59 (41.0)	66 (45.8)	13 (9.0)	0 (0.0)		2.60
	40대	180 (100.0)	1 (0.6)	68 (37.8)	93 (51.7)	17 (9.4)	1 (0.6)		2.72
	50대이상	127 (100.0)	7 (5.5)	51 (40.2)	55 (43.3)	13 (10.2)	1 (0.8)		2.61

주 : *p<.05,**p<.01,***p<.001

9) 선주민과의 관계형성 만족도

- 선주민과의 관계형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평균 2.90으로 나타나 약간 만족한 것으로 조사됨
- 선주민과의 관계형성 만족도에서는 남성(평균 2.81)보다는 여성(평균 3.01)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선주민과의 관계형성을 더 잘한다고 볼 수 있음
- 연령별로는 20대(평균 3.49)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30대(평균 2.74)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냄

〈표 3-23〉 선주민과의 관계형성 만족도

(단위: 명, %)

		사례수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χ^2	평균
전체		497 (100.0)	35 (7.0)	105 (21.1)	245 (49.3)	97 (19.5)	15 (3.0)		2.90
성별	남성	257 (100.0)	28 (10.9)	56 (21.8)	122 (47.5)	40 (15.6)	11 (4.3)	18.757**	2.81
	여성	240 (100.0)	7 (2.9)	49 (20.4)	123 (51.3)	57 (23.8)	4 (1.7)		3.01
연령	20대	45 (100.0)	1 (2.2)	3 (6.7)	21 (46.7)	13 (28.9)	7 (15.6)	58.015***	3.49
	30대	145 (100.0)	19 (13.1)	26 (17.9)	76 (52.4)	21 (14.5)	3 (2.1)		2.74
	40대	178 (100.0)	6 (3.4)	37 (20.8)	97 (54.5)	37 (20.8)	1 (0.6)		2.94
	50대이상	129 (100.0)	9 (9.0)	39 (38.9)	51 (50.9)	26 (26.0)	4 (4.0)		2.82

주 : *p<.05, **p<.01, ***p<.001

10) 도의 지원정책 만족도

- 도의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타 영역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적으로 평균 2.29로 약간 불만족 하다고 할 수 있음
- 성별로는 남성(평균 2.16)보다는 여성(평균 2.45)이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음
- 연령별로는 20대(평균 2.93)와 50대 이상(평균 2.47)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가장 짧은 1년 미만(평균 2.63) 거주자 그룹과 10년 이상 거주자(평균 2.48) 그룹에서 그나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표 3-24〉 도의 지원정책 만족도

(단위: 명, %)

		사례수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χ^2	평균
전체		488 (100.0)	23 (23.4)	123 (32.2)	223 (37.3)	323 (6.1)	423 (1.0)		2.29
성별	남성	257 (100.0)	78 (30.4)	80 (31.1)	82 (31.90)	15 (5.8)	2 (0.8)	16.172***	2.16
	여성	231 (100.0)	231 (15.6)	231 (33.3)	231 (43.30)	231 (6.5)	231 (1.3)		2.45

		사례수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χ^2	평균
연령	20대	45 (100.0)	1 (2.2)	8 (17.8)	30 (66.70)	5 (11.1)	1 (2.2)	47.536***	2.93
	30대	145 (100.0)	51 (35.2)	42 (29.0)	44 (30.30)	6 (4.1)	2 (1.4)		2.08
	40대	174 (100.0)	41 (23.6)	67 (38.5)	59 (33.90)	7 (4.0)	0 (0.0)		2.18
	50대이상	124 (100.0)	21 (16.9)	40 (32.3)	49 (39.50)	12 (9.7)	2 (1.6)		2.47
거주기간	1년미만	49 (100.0)	4 (8.2)	13 (26.5)	29 (59.20)	3 (6.1)	0 (0.0)	36.155**	2.63
	2년미만	106 (100.0)	31 (29.2)	23 (21.7)	42 (39.60)	8 (7.5)	2 (1.9)		2.31
	4년미만	158 (100.0)	39 (24.7)	53 (33.5)	50 (31.60)	14 (8.9)	2 (1.3)		2.28
	10년미만	123 (100.0)	30 (26.0)	41 (41.5)	39 (31.70)	11 (0.8)	2 (0.0)		2.07
	10년이상	52 (100.0)	8 (15.4)	17 (32.7)	22 (42.30)	4 (7.7)	1 (1.9)		2.48

주 : *p<.05,**p<.01,***p<.001

바. 생활 만족/불만족 요인

1) 생활만족 요인

- 제주생활이 만족스러운 요인에 대한 1순위 응답에서 전체적으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적은 비율이지만 ‘제주에 투자한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라고 응답한 대상이 8.2%를 차지함
- 성별로는 남성(57.4%)보다는 여성(69.4%)이 아름다운 자연 때문에 제주생활이 만족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남성(11.2%)은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5.1%)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는 ‘이웃이나 동네 사람들이 좋고 잘 도와주어서’ (17.8%) 항목과 ‘제주에서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할 수 있어서’ 가 11.1%로 다른 연령보다 만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30대(10.0%) 40대(10.2%)는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그리고 50대 이상(8.9%) 그룹에서는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가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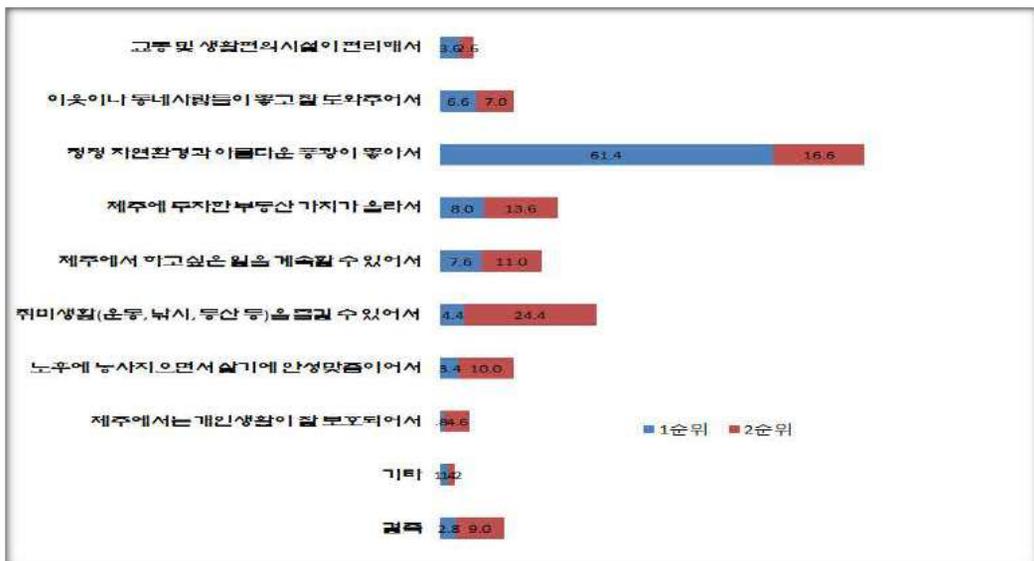
<표 3-25> 생활 만족 요인 1순위

(단위: 명, %)

		사례수	교통 및 생활편의시설이 편리해서	이웃이나 동네사람들이 좋고 잘 도와주어서	청정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풍광이 좋아서	제주에 투자한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제주에서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할 수 있어서	취미생활(운동, 낚시, 등산 등)을 즐길 수 있어서	노후에 농사지으면서 살기에 안성맞춤이어서	제주에서는 개인생활이 잘 보호되어서	기타	χ ²
전체		486 (100.0)	18 (3.7)	33 (6.8)	307 (63.2)	40 (8.2)	38 (7.8)	21 (4.5)	17 (3.5)	39 (0.8)	6 (1.4)	
성별	남성	251 (100.0)	17 (6.8)	15 (6.0)	144 (57.4)	28 (11.2)	20 (8.0)	15 (6.0)	8 (3.2)	1 (0.4)	3 (1.2)	25.788**
	여성	235 (100.0)	1 (0.4)	18 (7.7)	163 (69.4)	12 (5.1)	18 (7.7)	7 (3.0)	9 (3.8)	3 (1.3)	4 (1.7)	
연령	20대	45 (100.0)	1 (2.2)	8 (17.8)	26 (57.8)	0 (0.0)	5 (11.1)	2 (4.4)	0 (0.0)	1 (2.2)	2 (4.4)	48.387**
	30대	140 (100.0)	11 (7.9)	9 (6.4)	88 (62.9)	14 (10.0)	10 (7.1)	2 (1.4)	2 (1.4)	1 (0.7)	3 (2.1)	
	40대	177 (100.0)	3 (1.7)	7 (4.0)	117 (66.1)	18 (10.2)	14 (7.9)	7 (4.0)	9 (5.1)	0 (0.0)	2 (1.1)	
	50대 이상	124 (100.0)	3 (2.4)	9 (7.3)	76 (61.3)	8 (6.5)	9 (7.3)	11 (8.9)	6 (4.8)	2 (1.6)	0 (0.0)	

주 : *p<.05, **p<.01, ***p<.001

<그림 3-5> 생활 만족 요인



2) 생활 불만족 요인

- 제주생활이 불만족한 원인 1순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제주도내 교통이 불편해서’가 가장 높은 비율(33.8%)을 나타냈고 제주도민의 배타성(12.1%)과 일자리 부족(11.0%) 순으로 조사됨
-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남성(13.3%)은 일자리 부족 항목에서 여성(8.5%)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여성(12.1%)은 육지출입이 불편한 점에서 남성(6.6%)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54.5%)는 제주도내 교통 불편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며 40대(14.3%)는 마땅한 일자리 부족이 타 연령층보다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50대 이상(19.8%)은 제주도민의 배타성이 불만족 원인이라는 응답률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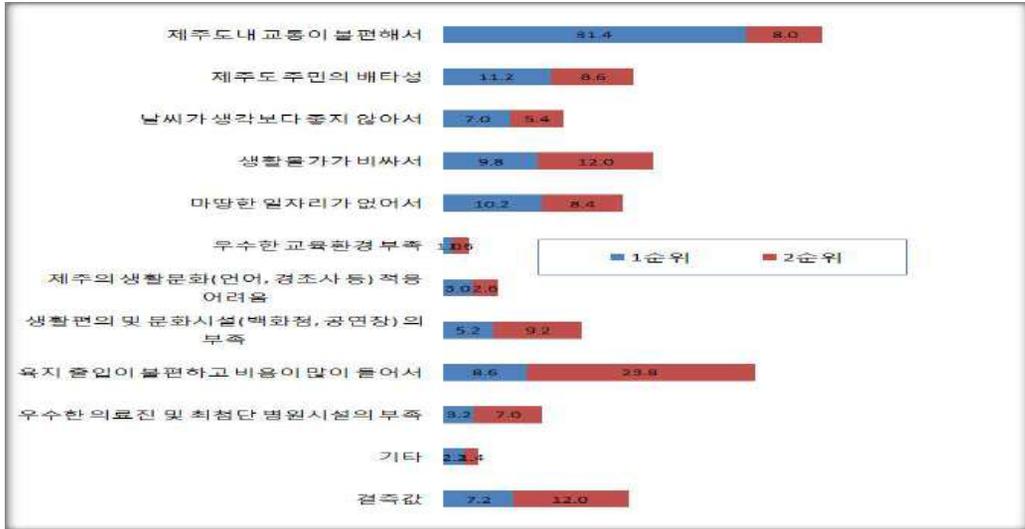
〈표 3-26〉 생활 불만족 요인 1순위

(단위: 명, %)

	사례수	제주도내 교통이 불편해서	제주도 주민의 배타성	날씨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생활물가가 비싸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우수한 교육환경 부족	제주의 생활문화 적응 어려움	생활편의 및 문화시설의 부족	육지출입이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우수한 의료진 및 최첨단 병원시설 부족	기타	χ ²	
전체	464 (100.0)	157 (33.8)	56 (12.1)	35 (7.5)	49 (10.6)	51 (11.0)	5 (1.1)	15 (3.2)	26 (5.6)	43 (9.3)	16 (3.4)	11 (2.4)		
성별	남성	241 (100.0)	83 (34.4)	31 (12.9)	20 (8.3)	24 (10.0)	32 (13.3)	5 (2.1)	7 (2.9)	12 (5.0)	16 (6.6)	4 (1.7)	7 (2.9)	17.388
	여성	223 (100.0)	74 (33.2)	25 (11.2)	15 (6.7)	25 (11.2)	19 (8.5)	0 (0.0)	8 (3.6)	14 (6.3)	27 (12.1)	12 (5.4)	4 (1.8)	
연령	20대	44 (100.0)	24 (54.5)	1 (2.3)	1 (2.3)	2 (4.5)	1 (2.3)	0 (0.0)	2 (4.5)	7 (15.9)	2 (4.5)	2 (4.5)	2 (4.5)	72.475**
	30대	136 (100.0)	47 (34.6)	12 (8.8)	13 (9.6)	17 (12.5)	12 (8.8)	3 (2.2)	8 (5.9)	4 (2.9)	9 (6.6)	6 (4.4)	5 (3.7)	
	40대	168 (100.0)	64 (38.1)	20 (11.9)	10 (6.0)	15 (8.9)	24 (14.3)	1 (0.6)	3 (1.8)	13 (7.7)	15 (8.9)	2 (1.2)	1 (0.6)	
	50대	116 (100.0)	22 (19.0)	23 (19.8)	11 (9.5)	15 (12.9)	14 (12.1)	1 (0.9)	2 (1.7)	2 (1.7)	17 (14.7)	6 (5.2)	3 (2.6)	
	이상	116 (100.0)	22 (19.0)	23 (19.8)	11 (9.5)	15 (12.9)	14 (12.1)	1 (0.9)	2 (1.7)	2 (1.7)	17 (14.7)	6 (5.2)	3 (2.6)	
거주지역	제주시	144 (100.0)	2 (1.5)	10 (6.6)	29 (19.9)	17 (11.8)	20 (14.0)	32 (22.1)	24 (16.9)	8 (5.9)	2 (1.5)	8 (5.6)	2 (1.7)	70.639**
	동지역	132 (100.0)	5 (3.8)	12 (9.2)	28 (21.4)	23 (17.6)	12 (9.2)	32 (24.4)	12 (9.2)	6 (4.6)	1 (0.8)	0 (0.0)	0 (0.0)	
	제주시 읍면	88 (100.0)	0 (0.0)	4 (4.6)	15 (17.2)	18 (20.7)	14 (16.1)	24 (27.6)	7 (8.0)	4 (4.6)	1 (1.1)	2 (2.1)	2 (2.8)	
	서귀포 동지역	80 (100.0)	0 (4.8)	4 (12.0)	14 (13.3)	17 (12.0)	13 (7.2)	22 (36.1)	6 (8.4)	4 (4.8)	1 (1.2)	2 (0.0)	2 (0.0)	
	서귀포 시 읍면	20 (100.0)	2 (10.0)	0 (0.0)	2 (10.0)	1 (5.0)	5 (25.0)	7 (35.0)	1 (5.0)	1 (5.0)	1 (5.0)	0 (0.0)	0 (0.0)	
	무응답	20 (100.0)	2 (10.0)	0 (0.0)	2 (10.0)	1 (5.0)	5 (25.0)	7 (35.0)	1 (5.0)	1 (5.0)	1 (5.0)	0 (0.0)	0 (0.0)	
	무응답	20 (100.0)	2 (10.0)	0 (0.0)	2 (10.0)	1 (5.0)	5 (25.0)	7 (35.0)	1 (5.0)	1 (5.0)	1 (5.0)	0 (0.0)	0 (0.0)	

주 : *p<.05, **p<.01, ***p<.001

〈그림 3-6〉 생활 불만족 요인



사. 선주민들과의 관계

- 선주민과의 관계에 관한 의견을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3.31로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3.19)보다는 여성(3.44)이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하였고 연령별로는 20대(3.78)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7〉 선주민(이웃)들과의 관계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좋다	매우좋다	χ^2	평균
전체		495 (100.0)	2 (0.4)	61 (12.3)	253 (51.1)	138 (27.9)	41 (8.3)		3.31
성별	남성	258 (100.0)	1 (0.4)	45 (17.4)	132 (51.2)	63 (24.4)	17 (6.6)	15.641*	3.19
	여성	237 (100.0)	1 (0.4)	16 (6.8)	121 (51.1)	75 (31.6)	24 (10.1)		3.44
연령	20대	45 (100.0)	0 (0.0)	4 (8.9)	16 (35.6)	11 (24.4)	14 (31.1)	50.309***	3.78
	30대	143 (100.0)	0 (0.0)	29 (20.3)	69 (48.3)	36 (25.2)	9 (6.3)		3.17
	40대	179 (100.0)	1 (0.6)	20 (11.2)	98 (54.7)	53 (29.6)	7 (3.9)		3.25
	50대이상	128 (100.0)	1 (0.8)	8 (6.3)	70 (54.7)	38 (29.7)	11 (8.6)		3.39

주 : *p<.05,**p<.01,***p<.001

- 선주민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는 전체의 절반 정도가 ‘이웃과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어서’ 나 ‘선주민이 배타적’이라는 의견도 20.1%로 조사되었음
- 선주민이 배타적이라는 의견은 남성(18.8%)보다는 여성(21.5%)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28.2%)와 20대(20.0%)가 많았으며 거주기간별로는 4년~10년 미만(26.3%), 10년 이상(25.8%)이 높게 나타나 거주기간이 오래되어도 선주민의 배타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표 3-28〉 선주민과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사례수	낮선 이웃들과 굳이 왕래하기 싫어서	선주민 (이웃)들이 배타적이어서	일이 바빠서	친해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웃과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어서	기타	χ^2
전체		284 (100.0)	27 (9.5)	57 (20.1)	27 (9.5)	23 (8.1)	139 (48.9)	11 (3.9)	
성별	남성	154 (100.0)	22 (14.3)	29 (18.8)	12 (7.8)	12 (7.8)	75 (48.7)	4 (2.6)	10.836
	여성	130 (100.0)	5 (3.8)	28 (21.5)	15 (11.5)	11 (8.5)	64 (49.2)	7 (5.4)	
연령	20대	10 (100.0)	0 (0.0)	2 (20.0)	1 (10.0)	1 (10.0)	4 (40.0)	2 (20.0)	30.302*
	30대	92 (100.0)	17 (18.5)	15 (16.3)	9 (9.8)	8 (8.7)	39 (42.4)	4 (4.3)	
	40대	111 (100.0)	5 (4.5)	20 (18.0)	7 (6.3)	9 (8.1)	66 (59.5)	4 (3.6)	
	50대이상	71 (100.0)	5 (7.0)	20 (28.2)	10 (14.1)	5 (7.0)	30 (42.3)	1 (1.4)	
거주기간	1년미만	25 (100.0)	1 (4.0)	2 (8.0)	4 (16.0)	0 (0.0)	15 (60.0)	3 (12.0)	36.784*
	2년미만	64 (100.0)	11 (17.2)	11 (17.2)	9 (14.1)	3 (4.7)	28 (43.8)	2 (3.1)	
	4년미만	88 (100.0)	7 (8.0)	16 (18.2)	3 (3.4)	13 (14.8)	46 (52.3)	3 (3.4)	
	10년미만	76 (100.0)	8 (10.5)	20 (26.3)	5 (6.6)	6 (7.9)	35 (46.1)	2 (2.6)	
	10년이상	31 (100.0)	0 (0.0)	8 (25.8)	6 (19.4)	1 (3.2)	15 (48.4)	1 (3.2)	

주 : *p<.05, **p<.01, ***p<.001

- 선주민과 융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착주민과 선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30.8%)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착주민 자신의 태도변화 (24.2%), 정착주민과 선주민의 네트워크 구축(19.3%)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은 정착주민과 선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35.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여성은 정착주민 자신의 태도변화(27.4%), 연령별로는 20대는 정착주민과 선주민의 네트워크 구축(35.6%)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한편 선주민의 적극적인 수용태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50대 이상(21.4%)로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는 1년 미만 거주자 집단(34.0%)이 ‘정착주민 자신의 태도변화’와 ‘정착주민과 선주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10년 이상 거주한 집단(45.5%)은 ‘정착주민과 선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3-29> 선주민과의 융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명, %)

		사례수	정착주민 자신의 가치와 태도 변화	제주 선주민들의 적극적인 수용 태도	정착주민과 선주민의 네트워크 구축	정착주민 대상 제주 이해하기 교육	정착주민과 선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	기타	χ^2
전체		491 (100.0)	119 (24.2)	84 (17.1)	95 (19.3)	38 (7.7)	151 (30.8)	4 (0.8)	
성별	남성	254 (100.0)	54 (21.3)	42 (16.5)	55 (21.7)	13 (5.1)	89 (35.0)	1 (0.4)	12.429*
	여성	237 (100.0)	65 (27.4)	42 (17.7)	40 (16.9)	25 (10.5)	62 (26.2)	3 (1.3)	
연령	20대	45 (100.0)	13 (31.1)	8 (17.8)	7 (35.6)	3 (11.1)	13 (4.4)	1 (0.0)	39.357**
	30대	145 (100.0)	41 (28.3)	27 (18.6)	23 (15.9)	9 (6.2)	43 (29.7)	2 (1.4)	
	40대	175 (100.0)	36 (20.6)	22 (12.6)	33 (18.9)	9 (5.1)	73 (41.7)	2 (1.1)	
	50대이상	126 (100.0)	28 (22.2)	27 (21.4)	23 (18.3)	15 (11.9)	33 (26.2)	0 (0.0)	
거주기간	1년미만	50 (100.0)	17 (34.0)	6 (12.0)	18 (36.0)	6 (12.0)	3 (6.0)	0 (0.0)	42.915**
	2년미만	104 (100.0)	22 (21.2)	18 (17.3)	23 (22.1)	12 (11.5)	28 (26.9)	1 (1.0)	
	4년미만	158 (100.0)	40 (25.3)	29 (18.4)	30 (19.0)	7 (4.4)	52 (32.9)	0 (0.0)	
	10년미만	124 (100.0)	31 (25.0)	20 (16.1)	18 (14.5)	9 (7.3)	43 (34.7)	3 (2.4)	
	10년이상	55 (100.0)	9 (16.4)	11 (20.0)	6 (10.9)	4 (7.3)	25 (45.5)	0 (0.0)	

주 : *p<.05,**p<.01,***p<.001

5. 정착 안정기

가. 영역별 지역 참여도

- 정착주민의 지역 내 행사 참여활동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항목별로는 문화운동 등 여가활동이 가장 높았고(2.89), 자녀학교 행사(2.68), 기타(2.56), 마을회의나 행사(2.45) 순이었음
- 마을 내의 경제활동이나 농민단체 모임 등의 참여는 낮게 나타나 **선주민**들과의 적극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는 참여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그림 3-7> 영역별 지역 참여도



1) 마을회의 및 행사 참여도

- 마을회의나 행사 참여도는 전체적으로 2.45로 참여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20대(2.67)와 50대 이상(2.66)의 연령대에서 마을행사 참여도가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동지역(제주시 2.14, 서귀포 2.46)보다 읍면지역(제주시 2.59, 서귀포 2.61) 거주자가 마을회의 참여도가 약간 높게 나타남

<표 3-30> 지역 내 마을회의/ 행사 참여도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평균
전체		498 (100.0)	82 (16.5)	198 (39.8)	150 (30.1)	46 (9.2)	22 (4.4)		2.45
연령	20대	45 (100.0)	10 (22.2)	10 (22.2)	12 (26.7)	11 (24.4)	2 (4.4)	48.561***	2.67
	30대	146 (100.0)	30 (20.5)	62 (42.5)	43 (29.5)	9 (6.2)	2 (1.4)		2.25
	40대	179 (100.0)	20 (11.2)	84 (46.9)	62 (34.6)	7 (3.9)	6 (3.4)		2.41
	50대이상	128 (100.0)	22 (17.2)	42 (32.8)	33 (25.8)	19 (14.8)	12 (9.4)		2.66
거주 지역	제주시 동지역	152 (100.0)	30 (19.7)	76 (50.0)	41 (27.0)	5 (3.3)	0 (0.0)	40.644**	2.14
	제주시 읍면지역	143 (100.0)	21 (14.7)	49 (34.3)	47 (32.9)	19 (13.3)	7 (4.9)		2.59
	서귀포시동 지역	95 (100.0)	17 (17.9)	39 (41.1)	23 (24.2)	10 (10.5)	6 (6.3)		2.46
	서귀포시 읍면지역	85 (100.0)	12 (14.1)	28 (32.9)	31 (36.5)	9 (10.6)	5 (5.9)		2.61
	무응답	23 (100.0)	2 (8.6)	6 (26.0)	8 (34.9)	3 (13.1)	4 (17.4)		3.03

주 : *p<.05,**p<.01,***p<.001

2) 경제활동 참여도

- 정착주민의 지역 내 경제활동 참여도는 전체적으로 2.31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동지역(제주시 2.14, 서귀포 2.23)보다 읍면지역(제주시 2.38, 서귀포 2.55) 거주자가 지역 내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거주기간별로는 4년~10년(2.52) 거주한 집단이 가장 지역 내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고 1년 미만(2.02) 거주한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1> 지역 내 경제활동 참여도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평균
전체	496 (100.0)	89 (17.9)	209 (42.1)	160 (32.3)	32 (6.5)	6 (1.2)		2.31

		사례수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평균
거 주 지 역	제주시 동지역	153 (100.0)	32 (20.9)	72 (47.1)	44 (28.8)	5 (3.3)	0 (0.0)	31.768 [*]	2.14
	제주시 읍면지역	143 (100.0)	26 (18.2)	53 (37.1)	48 (33.6)	16 (11.2)	0 (0.0)		2.38
	서귀포시동 지역	93 (100.0)	18 (19.4)	43 (46.2)	27 (29.0)	3 (3.2)	2 (2.2)		2.23
	서귀포시 읍면지역	85 (100.0)	11 (12.9)	31 (36.5)	32 (37.6)	7 (8.2)	4 (4.7)		2.55
	무응답	22 (100.0)	2 (11.1)	10 (55.6)	9 (33.3)	1 (0.0)	0 (0.0)		2.38
거 주 기 간	1년미만	50 (100.0)	18 (36.0)	16 (32.0)	13 (26.0)	3 (6.0)	0 (0.0)	32.336 ^{**}	2.02
	2년미만	106 (100.0)	17 (16.0)	53 (50.0)	29 (27.4)	6 (5.7)	1 (0.9)		2.25
	4년미만	159 (100.0)	27 (17.0)	66 (41.5)	58 (36.5)	7 (4.4)	1 (0.6)		2.30
	10년미만	124 (100.0)	16 (12.9)	51 (41.1)	38 (30.6)	15 (12.1)	4 (3.2)		2.52
	10년이상	57 (100.0)	11 (19.3)	23 (40.4)	22 (38.6)	1 (1.8)	0 (0.0)		2.23

주 : *p<.05,**p<.01,***p<.001

3) 자녀 학교 행사 참여도

- 자녀 학교 행사 참여도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평균 2.68로 약간 참여가 활발하다고 볼 수 있음
- 성별로는 남성(2.58)보다는 여성(2.80)이 자녀학교 행사에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자녀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40대(2.99)가 가장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는 10년 이상(2.83) 거주한 집단이 자녀의 학교행사 참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1년 미만(2.20) 거주한 집단이 가장 참여도가 낮아 거주기간이 길수록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32〉 자녀학교 행사 참여도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평균
전체		450 (100.0)	71 (15.8)	135 (30.0)	132 (29.3)	90 (20.0)	22 (4.9)		2.68
성별	남성	234 (100.0)	33 (14.1)	84 (35.9)	72 (30.8)	39 (16.7)	6 (2.6)	14.959**	2.58
	여성	216 (100.0)	38 (17.6)	51 (23.6)	60 (27.8)	51 (23.6)	16 (7.4)		2.80
연령	20대	44 (100.0)	13 (29.5)	13 (29.5)	10 (22.7)	7 (15.9)	1 (2.3)	27.338**	2.32
	30대	138 (100.0)	23 (16.7)	48 (34.8)	43 (31.2)	21 (15.2)	3 (2.2)		2.51
	40대	167 (100.0)	15 (9.0)	43 (25.7)	50 (29.9)	46 (27.5)	13 (7.8)		2.99
	50대이상	101 (100.0)	20 (19.8)	31 (30.7)	29 (28.7)	16 (15.8)	5 (5.0)		2.55
거주 기간	1년미만	44 (100.0)	15 (34.1)	14 (31.8)	7 (15.9)	7 (15.9)	1 (2.3)	30.121*	2.20
	2년미만	98 (100.0)	14 (14.3)	40 (40.8)	28 (28.6)	13 (13.3)	3 (3.1)		2.50
	4년미만	147 (100.0)	21 (14.3)	40 (27.2)	43 (29.3)	33 (22.4)	10 (6.8)		2.80
	10년미만	108 (100.0)	15 (13.9)	29 (26.9)	31 (28.7)	28 (25.9)	5 (4.6)		2.81
	10년이상	53 (100.0)	6 (11.3)	12 (22.6)	23 (43.4)	9 (17.0)	3 (5.7)		2.83

주 : *p<.05,**p<.01,***p<.001

4) 농민단체 활동 참여도

- 응답자의 농민단체 활동에 참여도는 전체적으로 2.1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여성(2.12)보다는 남성(2.25)이 조금 높은 참여도를 보였고 연령별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20대와 50대 이상(2.27)이 타 연령층보다 약간 높은 참여도를 나타냄
- 지역별로는 제주시(동지역 1.99, 읍면지역 2.10) 보다는 서귀포 지역이(동지역 2.29, 읍면지역 2.52),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이 농민단체 활동에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서귀포시 읍면지역(2.52) 농민단체 활동이 그나마 활발하고 정착주민들의 참여도 약간 높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표 3-33〉 농민단체 모임 활동 참여도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평균
전체		483 (100.0)	116 (24.0)	205 (42.4)	125 (25.9)	30 (6.2)	7 (1.4)		2.19
성별	남성	253 (100.0)	55 (21.7)	107 (42.3)	68 (26.9)	19 (7.5)	4 (1.6)	2.861	2.25
	여성	230 (100.0)	61 (26.5)	98 (42.6)	57 (24.8)	11 (4.8)	3 (1.3)		2.12
연령	20대	44 (100.0)	12 (26.2)	15 (43.4)	12 (26.2)	3 (4.1)	2 (0.0)	18.543	2.27
	30대	145 (100.0)	38 (26.2)	63 (43.4)	38 (26.2)	6 (4.1)	0 (0.0)		2.08
	40대	174 (100.0)	36 (20.7)	79 (45.4)	50 (28.7)	7 (4.0)	2 (1.1)		2.20
	50대이상	120 (100.0)	30 (25.0)	48 (40.0)	25 (20.8)	14 (11.7)	3 (2.5)		2.27
거주 지역	제주시 동지역	150 (100.0)	41 (27.3)	75 (50.0)	29 (19.3)	4 (2.7)	1 (0.7)	46.211**	1.99
	제주시 읍면지역	138 (100.0)	43 (31.2)	51 (37.0)	31 (22.5)	13 (9.4)	0 (0.0)		2.10
	서귀포시동 지역	92 (100.0)	16 (17.4)	42 (45.7)	26 (28.3)	7 (7.6)	1 (1.1)		2.29
	서귀포시 읍면지역	83 (100.0)	13 (15.7)	30 (36.1)	29 (34.9)	6 (7.2)	5 (6.0)		2.52
	무응답	20 (100.0)	3 (15.0)	7 (35.0)	10 (50.0)	0 (0.0)	0 (0.0)		2.30

주 : *p<.05, **p<.01, ***p<.001

5) 문화운동 등 여가활동 참여도

- 문화 활동 등 여가활동에 참여도를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평균 2.89로 보통이라고 할 수 있음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참여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3-34〉 문화운동 등의 여가활동 참여도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평균
전체		494 (100.0)	61 (12.3)	116 (23.5)	158 (32.0)	134 (27.1)	25 (5.1)		2.89

		사례수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평균
성별	남성	255 (100.0)	24 (9.4)	71 (27.8)	80 (31.4)	67 (26.3)	13 (5.1)	8.154	2.90
	여성	239 (100.0)	37 (15.5)	45 (18.8)	78 (32.6)	69 (28.0)	12 (5.0)		2.88
연령	20대	45 (100.0)	8 (17.8)	11 (24.4)	13 (28.9)	9 (20.0)	4 (8.9)	11.806	2.78
	30대	146 (100.0)	21 (14.4)	38 (26.0)	50 (34.2)	33 (22.6)	4 (2.7)		2.73
	40대	179 (100.0)	16 (8.9)	40 (22.3)	61 (34.1)	52 (29.1)	10 (5.6)		3.00
	50대이상	124 (100.0)	16 (12.9)	27 (21.8)	34 (27.4)	40 (32.3)	7 (5.6)		2.96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150 (100.0)	21 (14.3)	35 (23.4)	49 (32.5)	41 (27.3)	4 (2.6)	17.705	2.81
	제주시 읍면지역	142 (100.0)	18 (12.7)	35 (24.6)	42 (29.6)	42 (29.6)	5 (3.5)		2.87
	서귀포시동 지역	90 (100.0)	11 (12.0)	20 (21.7)	28 (31.5)	25 (28.3)	6 (6.5)		2.96
	서귀포시 읍면지역	77 (100.0)	6 (8.3)	19 (25.0)	27 (35.7)	16 (20.2)	8 (10.7)		3.00
	무응답	19 (100.0)	3 (15.8)	4 (21.0)	7 (36.8)	6 (31.5)	1 (5.2)		2.96

주 : *p<.05,**p<.01,***p<.001

6) 봉사활동 참여도

- 조사대상자의 공부방, 돌봄이 활동 등을 포함한 봉사활동 참여도는 전체적으로 평균 2.39로 나타나 약간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음
- 성별 봉사활동 참여도는 여성(2.34)보다 남성(2.44)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라고 할 수 없음
- 연령별로는 20대(2.51)와 40대(2.57)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긴 4년~10년(2.47) 거주 집단과 10년 이상(2.56) 거주 집단이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 거주기간이 길수록 지역 환경과 선주민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볼 수 있음

〈표 3-35〉 봉사활동 참여도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평균
전체		478 (100.0)	96 (20.1)	170 (35.6)	143 (29.9)	67 (14.0)	2 (0.4)		2.39
성별	남성	247 (100.0)	41 (16.6)	94 (38.1)	75 (30.4)	37 (15.0)	0 (0.0)	6.493	2.44
	여성	231 (100.0)	55 (23.8)	76 (32.9)	68 (29.4)	30 (13.0)	2 (0.9)		2.34
연령	20대	45 (100.0)	8 (17.8)	13 (28.9)	18 (40.0)	5 (11.1)	1 (2.2)	26.607*	2.51
	30대	144 (100.0)	37 (25.7)	53 (36.8)	44 (30.6)	10 (6.9)	0 (0.0)		2.19
	40대	175 (100.0)	25 (14.3)	65 (37.1)	46 (26.3)	38 (21.7)	1 (0.6)		2.57
	50대이상	114 (100.0)	26 (22.8)	39 (34.2)	35 (30.7)	14 (12.3)	0 (0.0)		2.32
거주 기간	1년미만	47 (100.0)	17 (36.2)	14 (29.8)	10 (21.3)	6 (12.8)	0 (0.0)	25.738	2.11
	2년미만	102 (100.0)	15 (14.7)	47 (46.1)	27 (26.5)	12 (11.8)	1 (1.0)		2.38
	4년미만	154 (100.0)	35 (22.7)	49 (31.8)	49 (31.8)	21 (13.6)	0 (0.0)		2.36
	10년미만	118 (100.0)	21 (17.8)	44 (37.3)	31 (26.3)	21 (17.8)	1 (0.8)		2.47
	10년이상	57 (100.0)	8 (14.0)	16 (28.1)	26 (45.6)	7 (12.3)	0 (0.0)		2.56

주 : *p<.05,**p<.01,***p<.001

나. 정착을 통한 목표달성

- 제주 정착이후 이주를 통한 목표달성 정도에 관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3.10로 약간 만족한 것으로 조사됨
- 성별로는 남성(3.05)보다는 여성(3.15)이 목표달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20대가 이주를 통한 목표달성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거주 지역별로는 동 지역(제주 2.99, 서귀포 3.04)보다는 읍면지역(제주 3.15, 서귀포 3.21)이 이주를 통한 목표달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귀포 읍면 지역 거주자들이 정착이후 목표달성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읍면 지역 거주자들의 이주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표 3-36〉 제주 정착을 통한 목표달성 정도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평균
전체		494 (100.0)	12 (2.4)	87 (17.6)	253 (51.2)	124 (25.1)	18 (3.6)		3.10
성 별	남성	257 (100.0)	6 (2.3)	59 (23.0)	119 (46.3)	61 (23.7)	12 (4.7)	13.179*	3.05
	여성	237 (100.0)	6 (2.5)	28 (11.8)	134 (56.5)	63 (26.6)	6 (2.5)		3.15
연 령	20대	45 (100.0)	0 (0.0)	6 (13.3)	22 (48.9)	12 (26.7)	5 (11.1)	16	3.36
	30대	144 (100.0)	3 (2.1)	31 (21.5)	76 (52.8)	33 (22.9)	1 (0.7)		2.99
	40대	180 (100.0)	6 (3.3)	32 (17.8)	88 (48.9)	48 (26.7)	6 (3.3)		3.09
	50대이상	125 (100.0)	3 (2.4)	18 (14.4)	67 (53.6)	31 (24.8)	6 (4.8)		3.15
거 주 지 역	제주시 동지역	153 (100.0)	4 (2.6)	28 (18.3)	92 (60.1)	23 (15.0)	6 (3.9)	38.252**	2.99
	제주시 읍면지역	143 (100.0)	3 (2.1)	30 (21.0)	58 (40.6)	46 (32.2)	6 (4.2)		3.15
	서귀포시동 지역	91 (100.0)	4 (4.4)	19 (20.9)	40 (44.0)	25 (27.5)	3 (3.3)		3.04
	서귀포시 읍면지역	85 (100.0)	1 (1.2)	10 (11.8)	47 (55.3)	24 (28.2)	3 (3.5)		3.21
	무응답	22 (100.0)	0 (0.0)	0 (0.0)	16 (72.7)	6 (27.3)	0 (0.0)		3.05

주 : *p<.05,**p<.01,***p<.001

다. 영구정착 의지

- 제주에 영구 정착 의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무려 응답자의 64%가 영구정착 의지가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는 남성(67.6%)이 여성(60.2%)보다 영구정착 의지가 있다는 응답이 약간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연령별로는 20대는 영구정착의지가 있다는 응답이 40%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30대(67.1%), 40대(69.4%), 50대 이상(61.2%)은 모두 60% 이상이 영구정착 의지가 있다고 응답해 20대 연령층이 제주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거주 지역별로는 도심지 지역인 제주시 동지역(73.4%)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영구정착 의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37〉 영구 정착 계획

(단위: 명, %)

		사례수	예	아니오	χ^2
전체		500 (100.0)	320 (64.0)	180 (36.0)	
성별	남성	259 (100.0)	175 (67.6)	84 (32.4)	2.968
	여성	241 (100.0)	145 (60.2)	96 (39.8)	
연령	20대	45 (100.0)	18 (40.0)	27 (60.0)	14.61**
	30대	146 (100.0)	98 (67.1)	48 (32.9)	
	40대	180 (100.0)	125 (69.4)	55 (30.6)	
	50대이상	129 (100.0)	79 (61.2)	50 (38.8)	
거주 지역	제주시 동지역	154 (100.0)	113 (73.4)	41 (26.6)	23.081***
	제주시 읍면지역	143 (100.0)	79 (55.2)	64 (44.8)	
	서귀포시 동지역	91 (100.0)	59 (65.3)	32 (34.7)	
	서귀포시 읍면지역	85 (100.0)	59 (69.4)	26 (30.6)	
	무응답	22 (100.0)	7 (31.8)	15 (68.2)	

주 : *p<.05,**p<.01,***p<.001

- 영구정착 의지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 가운데 제주에서 얼마동안 거주할 계획인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2년~5년(13.0%), 6년~10년(9.0%), 10년 이상 (8.8%)순으로 조사되어 적어도 2년~5년 미만 거주할 계획인 응답자가 많았음
- 성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으나 연령별로는 20대에서 1년 미만(24.4%) 거주예정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30대(14.4%), 40대(11.7%)는 2년~5년, 50대 이상에서는 10년 이상(16.3%) 거주할 예정이라는 응답률이 높았음
- 영구정착 의지가 없는 응답자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단기간 거주할 예정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장기간 거주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표 3-38〉 제주 거주계획 기간

(단위: 명, %)

		사례수	1년 미만	2년~5년	6년~10년	10년 이상	영구정착계획	χ²
전체		500 (100.0)	26 (5.2)	65 (13.0)	45 (9.0)	44 (8.8)	320 (64.0)	
성별	남성	259 (100.0)	14 (5.4)	29 (11.2)	23 (8.9)	18 (6.9)	175 (67.6)	4.555
	여성	241 (100.0)	12 (5.0)	36 (14.9)	22 (9.1)	26 (10.8)	145 (60.2)	
연령	20대	45 (100.0)	11 (24.4)	6 (13.3)	5 (11.1)	5 (11.1)	18 (40.0)	60.637***
	30대	146 (100.0)	10 (6.8)	21 (14.4)	12 (8.2)	5 (3.4)	98 (67.1)	
	40대	180 (100.0)	4 (2.2)	21 (11.7)	17 (9.4)	13 (7.2)	125 (69.4)	
	50대이상	129 (100.0)	1 (0.8)	17 (13.2)	11 (8.5)	21 (16.3)	79 (61.2)	

주 : *p<.05, **p<.01, ***p<.001

- 지인에게 제주 이주를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를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3.25로 나타나 이주를 권유할 의향이 약간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성별로는 남성(3.23)보다는 여성(3.27)이 이주 권유 의향이 약간 높았음
- 연령별로는 20대(3.59)와 50대 이상(3.45) 연령층에서 이주권유 의향이 높게 나타남
 - 특이한 점은 앞선 조사에서 20대는 영구정착 의지도 가장 낮고 거주예정 기간도 1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어 지인들에게도 영구정착 혹은 장기간 거주를 위한 이주를 권유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되나 실제로는 제주 이주 권유의향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54.5%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39〉 지인에게 제주 정착 권유의향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²	평균
전체		492 (100.0)	14 (2.8)	111 (22.6)	139 (28.3)	194 (39.4)	34 (7.0)		3.25
성별	남성	256 (100.0)	7 (2.7)	68 (26.6)	67 (26.2)	88 (34.4)	26 (10.2)	18.686**	3.23
	여성	236 (100.0)	8 (3.4)	39 (16.5)	78 (33.1)	103 (43.6)	8 (3.4)		3.27

		사례수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평균
연령	20대	44 (100.0)	0 (0.0)	4 (9.1)	16 (36.4)	18 (40.9)	6 (13.6)	32.718**	3.59
	30대	145 (100.0)	3 (2.1)	43 (29.7)	46 (31.7)	49 (33.8)	4 (2.8)		3.06
	40대	175 (100.0)	5 (2.9)	43 (24.6)	52 (29.7)	66 (37.7)	9 (5.1)		3.18
	50대이상	128 (100.0)	7 (5.5)	17 (13.3)	31 (24.2)	58 (45.3)	15 (11.7)		3.45
거주 지역	제주시 동지역	148 (100.0)	3 (2.0)	46 (31.1)	41 (27.7)	54 (36.5)	4 (2.7)	35.871*	3.07
	제주시 읍면지역	143 (100.0)	5 (3.5)	29 (20.3)	40 (28.0)	59 (41.3)	10 (7.0)		3.28
	서귀포시동 지역	93 (100.0)	4 (4.3)	22 (23.7)	21 (22.6)	37 (39.8)	9 (9.7)		3.27
	서귀포시 읍면지역	85 (100.0)	3 (3.5)	9 (10.6)	30 (35.3)	35 (41.2)	8 (9.4)		3.42
	무응답	23 (100.0)	0 (0.0)	1 (4.3)	13 (56.5)	6 (26.0)	3 (13.2)		3.49

주 : *p<.05,**p<.01,***p<.001

6. 정책욕구

가. 지원 수혜 경험

-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이주와 관련한 혜택을 받은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20.4%가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통계적 의미가 없는 근소한 차이지만 여성(19.7%)보다는 남성이(21.0%) 지원혜택을 받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대(22.3%)와 50대 이상(29.1%) 연령층이 지원혜택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3-40> 지원 수혜 경험

(단위: 명, %)

	사례수	예	아니오	χ^2
전체	495 (100.0)	101 (20.4)	394 (79.6)	

		사례수	예	아니오	χ^2
성별	남성	257 (100.0)	54 (21.0)	203 (79.0)	0.122
	여성	238 (100.0)	47 (19.7)	191 (80.3)	
연령	20대	44 (100.0)	8 (18.2)	36 (81.8)	14.347***
	30대	145 (100.0)	16 (11.0)	129 (89.0)	
	40대	179 (100.0)	40 (22.3)	139 (77.7)	
	50대이상	127 (100.0)	37 (29.1)	90 (70.9)	

주 : *p<.05,**p<.01,***p<.001

- 구체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은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귀농·귀촌 교육(48.5%)이 가장 높았고 제주문화 이해하기 교육(24.8%)과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사업(10.9%) 순이었음
- 성별로는 남성은 귀농·귀촌 교육(51.9%)이 여성(44.7%)보다 높았고, 여성(31.9%)이 제주문화 이해하기 교육이 남성(18.5%)보다 높았음
- 거주 지역별로는 귀농·귀촌 교육은 제주시(동지역 10.5%, 읍면지역 44.4%)보다는 서귀포시(동지역 69.0%, 읍면지역 60.9%)가 혜택을 받은 비율이 높았고 제주시의 경우 동지역 거주자보다는 읍면 지역 거주자가 귀농·귀촌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높아 서귀포시(동지역, 읍면지역)와 제주시 읍면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귀농·귀촌 교육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표 3-41> 혜택 받은 분야

(단위: 명, %)

		사례수	정착준비 현장교육 (팜투어)	제주문화 이해하기 교육	선주민과의 네트워크 사업	폐교위기 마을의 주택지원	귀농 귀촌 기본교육	기타	χ^2
전체		101 (100.0)	8 (7.9)	25 (24.8)	11 (10.9)	1 (1.0)	49 (48.5)	7 (6.9)	3.91
성별	남성	54 (100.0)	4 (7.4)	10 (18.5)	6 (11.1)	1 (1.9)	28 (51.9)	5 (9.3)	
	여성	47 (100.0)	4 (8.5)	15 (31.9)	5 (10.6)	0 (0.0)	21 (44.7)	2 (4.3)	

		사례수	정착준비 현장교육 (팜투어)	제주문화 이해하기 교육	선주민과의 네트워크 사업	폐교위기 마을의 주택지원	귀농 귀촌 기본교육	기타	χ^2
거주 지역	제주시 동지역	19 (100.0)	2 (10.5)	6 (31.6)	6 (31.6)	1 (5.3)	2 (10.5)	2 (10.5)	47.946**
	제주시 읍면지역	27 (100.0)	1 (3.7)	8 (29.6)	3 (11.1)	0 (0.0)	12 (44.4)	3 (11.1)	
	서귀포시동 지역	29 (100.0)	1 (3.4)	6 (20.7)	2 (6.9)	0 (0.0)	20 (69.0)	0 (0.0)	
	서귀포시 읍면지역	23 (100.0)	3 (13.0)	5 (21.7)	0 (0.0)	0 (0.0)	14 (60.9)	1 (4.3)	
	무응답	3 (100.0)	1 (33.3)	0 (0.0)	0 (0.0)	0 (0.0)	1 (33.3)	1 (33.3)	
거주 기간	1년미만	5 (100.0)	0 (0.0)	1 (20.0)	0 (0.0)	0 (0.0)	1 (20.0)	3 (60.0)	34.35*
	2년미만	17 (100.0)	3 (17.6)	3 (17.6)	1 (5.9)	0 (0.0)	9 (52.9)	1 (5.9)	
	4년미만	35 (100.0)	3 (8.6)	10 (28.6)	4 (11.4)	1 (2.9)	17 (48.6)	0 (0.0)	
	10년미만	36 (100.0)	1 (2.8)	8 (22.2)	6 (16.7)	0 (0.0)	19 (52.8)	2 (5.6)	
	10년이상	8 (100.0)	1 (12.5)	3 (37.5)	0 (0.0)	0 (0.0)	3 (37.5)	1 (12.5)	

주 : *p<.05,**p<.01,***p<.001

- 정착주민 관련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정보가 없어서’ (52.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돼서’ 라는 응답(32.8%)도 상당수 드러남
- 성별로는 여성(58.5%)은 남성(47.1%)에 비해 정보가 없어서 라는 응답이 높았고 남성(40.3%)은 여성(24.9%)에 비해 실질적인 도움이 안돼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여성의 정보접근성이 남성보다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음
- 거주기간 별로는 1년 미만(81.8%) 거주자는 ‘정보가 없어서’ 지원혜택을 받지 못했고, 1년 이상 장기 거주자 집단에서도 ‘정보가 없어서’ 지원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모두 40%이상으로 나타나 대부분 지원혜택에 대한 정보가 없어 혜택을 못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1년 이상 장기 거주자 집단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돼서’ 라는 응답이 모두 30%이상으로 나타나 정착주민을 위한 지원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응답이 상당수 차지함

〈표 3-42〉 혜택 받지 못한 이유

(단위: 명, %)

		사례수	정보가 없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돼서	기타	χ^2
전체		399 (100.0)	210 (52.6)	53 (13.3)	131 (32.8)	5 (1.3)	
성별	남성	206 (100.0)	97 (47.1)	24 (11.7)	83 (40.3)	2 (1.0)	10.83*
	여성	193 (100.0)	113 (58.5)	29 (15.0)	48 (24.9)	3 (1.6)	
연령	20대	38 (100.0)	24 (63.2)	11 (28.9)	3 (7.9)	0 (0.0)	20.823*
	30대	126 (100.0)	64 (50.8)	18 (14.3)	42 (33.3)	2 (1.6)	
	40대	145 (100.0)	70 (48.3)	15 (10.3)	58 (40.0)	2 (1.4)	
	50대이상	90 (100.0)	52 (57.8)	9 (10.0)	28 (31.1)	1 (1.1)	
거주기간	1년미만	44 (100.0)	36 (81.8)	2 (4.5)	5 (11.4)	1 (2.3)	28.5**
	2년미만	91 (100.0)	41 (45.1)	17 (18.7)	30 (33.0)	3 (3.3)	
	4년미만	126 (100.0)	67 (53.2)	15 (11.9)	44 (34.9)	0 (0.0)	
	10년미만	91 (100.0)	43 (47.3)	11 (12.1)	37 (40.7)	0 (0.0)	
	10년이상	47 (100.0)	23 (48.9)	8 (17.0)	15 (31.9)	1 (2.1)	

주 : *p<.05,**p<.01,***p<.001

나. 지원혜택 만족도

- 제공받은 지원혜택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평균 3.45로 약간 만족한 것으로 조사됨
-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나 남성(3.59)이 여성(3.30)에 비해 약간 높음
- 연령별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30대(3.19)와 40대(3.36)에 비해 20대(3.50)와 50대 이상(3.66)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거주기간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비교적 거주기간이 짧은 집단(1년 미만 3.60, 2년 미만 3.59, 4년 미만 3.60)이 거주기간이 긴 집단(10년 미만 3.27,

10년 이상 3.13)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이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거나 새로운 지원정책이 드러나지 않는데 원인이 있을 수도 있음

〈표 3-43〉 제공 받은 혜택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χ^2	평균
전체		98 (100.0)	2 (2.0)	7 (7.1)	40 (40.8)	43 (43.9)	6 (6.1)		3.45
성별	남성	51 (100.0)	0 (0.0)	4 (7.8)	17 (33.3)	26 (51.0)	4 (7.8)	5.439	3.59
	여성	47 (100.0)	2 (4.0)	3 (6.4)	23 (48.9)	17 (36.2)	2 (4.3)		3.30
연령	20대	8 (100.0)	0 (0.0)	0 (0.0)	4 (50.0)	4 (50.0)	0 (0.0)	10.559	3.50
	30대	16 (100.0)	1 (6.3)	1 (6.3)	8 (50.0)	6 (37.5)	0 (0.0)		3.19
	40대	39 (100.0)	1 (2.6)	4 (10.3)	15 (38.5)	18 (46.2)	1 (2.6)		3.36
	50대이상	35 (100.0)	0 (0.0)	2 (5.7)	13 (37.1)	15 (42.9)	5 (14.3)		3.66
거주 기간	1년 미만	5 (100.0)	0 (0.0)	0 (0.0)	2 (40.0)	3 (60.0)	0 (0.0)	20.33	3.60
	2년 미만	17 (100.0)	0 (0.0)	2 (11.8)	3 (17.6)	12 (70.6)	0 (0.0)		3.59
	4년미만	35 (100.0)	1 (2.9)	1 (2.9)	13 (37.1)	16 (45.7)	4 (11.4)		3.60
	10년미만	33 (100.0)	1 (3.0)	4 (12.1)	15 (45.5)	11 (33.3)	2 (6.1)		3.27
	10년이상	8 (100.0)	0 (0.0)	0 (0.0)	7 (87.5)	1 (12.5)	0 (0.0)		3.13

주 : *p<.05,**p<.01,***p<.001

다. 정착주민지원센터 인지도 및 이용경험

1) 정착주민지원센터 인지도

○ 응답자의 정착주민지원센터 인지도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는 모른다고 응답한 대상이 64.1%에 달함

○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여성(68.1%)이 남성(60.5%)보다 모른다는 응답률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73.3%)가 모른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55.6%)이 가장 낮게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모른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제주지역(동지역 16.6%, 읍면지역 36.4%)보다 서귀포 지역(동지역 46.8%, 읍면지역 52.9%)이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고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에 거주자가 정착주민지원센터를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44〉 정착주민지원센터 인지

(단위: 명, %)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른다	χ^2
전체		496 (100.0)	178 (35.9)	318 (64.1)	
성별	남성	258 (100.0)	102 (39.5)	156 (60.5)	3.11
	여성	238 (100.0)	76 (31.9)	162 (68.1)	
연령	20대	45 (100.0)	12 (26.7)	33 (73.3)	9.792*
	30대	145 (100.0)	41 (28.3)	104 (71.7)	
	40대	180 (100.0)	69 (38.3)	111 (61.7)	
	50대이상	126 (100.0)	56 (44.4)	70 (55.6)	
거주 지역	제주시 동지역	151 (100.0)	25 (16.6)	126 (83.4)	42.881***
	제주시 읍면지역	143 (100.0)	52 (36.4)	91 (63.6)	
	서귀포시 동지역	94 (100.0)	44 (46.8)	50 (53.2)	
	서귀포시 읍면지역	85 (100.0)	45 (52.9)	40 (47.1)	
	무응답	23 (100.0)	12 (52.2)	11 (47.8)	

주 : *p<.05,**p<.01,***p<.001

2) 정착주민지원센터 이용경험

- 정착주민지원센터 이용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는 응답자 중 15.4%만이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미미한 차이지만 여성(16.1%)이 남성(14.8%)보다 약간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고 연령층인 40대(20.0%)와 50대 이상(21.8%)이 정착주민지원센터의 이용경험이 높았고 20대(6.7%)와 30대(7.0%)에서 이용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별 이용경험 비율은 제주지역(동지역 7.8%, 읍면지역 12.0%)보다 서귀포 지역(동지역 26.4%, 읍면지역 21.7%)이 이용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5〉 정착주민지원센터 이용 경험

(단위: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χ^2
전체		492 (100.0)	76 (15.4)	416 (84.6)	
성별	남성	256 (100.0)	38 (14.8)	218 (85.2)	0.149
	여성	236 (100.0)	38 (16.1)	198 (83.9)	
연령	20대	45 (100.0)	3 (6.7)	42 (93.3)	17.139**
	30대	143 (100.0)	10 (7.0)	133 (93.0)	
	40대	180 (100.0)	36 (20.0)	144 (80.0)	
	50대 이상	124 (100.0)	27 (21.8)	97 (78.2)	
거주 지역	제주시 동지역	153 (100.0)	12 (7.8)	141 (92.2)	25.412***
	제주시 읍면지역	142 (100.0)	17 (12.0)	125 (88.0)	
	서귀포시 동지역	91 (100.0)	24 (26.4)	67 (73.6)	
	서귀포시 읍면지역	83 (100.0)	18 (21.7)	65 (78.3)	
	서귀포시 기타	23 (100.0)	5 (21.7)	18 (78.3)	

주 : *p<.05,**p<.01,***p<.001

3) 정착주민지원센터 도움 정도

- 정착주민지원센터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조사결과 응답자 전체적으로는 평균 2.46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성별로는 통계적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여성(2.53)이 남성(2.40)보다 조금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50대 이상(2.80)과 20대(2.70)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대의 경우 인지도와 이용경험에서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만족도에서 약간 높게 나타나 정착주민지원센터를 이용자는 소수지만 이용만족도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추측함
-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지역(동지역 2.09, 읍면지역 2.52)보다는 서귀포 지역(동지역 2.58, 읍면지역 2.68) 거주자의 도움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차이는 정착주민지원센터 인지여부와 이용경험의 지역별 차이와도 일치되는 결과이고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 그리고 제주시보다는 서귀포 지역에 거주하는 정착주민이 정착주민지원센터 인지, 이용경험, 도움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표 3-46〉 정착주민지원센터의 도움 정도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도움됨	대체로 도움됨	보통	별로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χ^2	평균
전체		458 (100.0)	9 (2.0)	66 (14.4)	162 (35.4)	110 (24.0)	111 (24.20)		2.46
성별	남성	244 (100.0)	5 (2.0)	35 (14.3)	81 (33.2)	54 (22.1)	69 (28.3)	5.014	2.4
	여성	214 (100.0)	4 (1.9)	31 (14.5)	81 (37.9)	56 (26.2)	42 (19.6)		2.53
연령	20대	44 (100.0)	0 (0.0)	7 (15.9)	23 (52.3)	8 (18.2)	6 (13.6)	49.377***	2.7
	30대	129 (100.0)	2 (1.6)	18 (14.0)	41 (31.8)	20 (15.5)	48 (37.2)		2.27
	40대	167 (100.0)	1 (0.6)	13 (7.8)	60 (35.9)	54 (32.3)	39 (23.4)		2.3
	50대이상	118 (100.0)	6 (5.1)	28 (23.7)	38 (32.2)	28 (23.7)	18 (15.3)		2.8
거주 지역	제주시 동지역	137 (100.0)	0 (0.0)	12 (8.8)	42 (30.7)	30 (21.9)	53 (38.7)	51.92***	2.09
	제주시 읍면지역	134 (100.0)	3 (0.0)	20 (21.4)	48 (57.1)	36 (21.4)	27 (0.0)		2.52
	서귀포시 동지역	90 (100.0)	5 (5.6)	14 (15.6)	26 (28.9)	28 (31.1)	17 (18.9)		2.58
	서귀포시 읍면지역	75 (100.0)	1 (1.3)	13 (17.3)	35 (46.7)	13 (17.3)	13 (17.3)		2.68
	무응답	22 (100.0)	0 (0.0)	7 (31.8)	11 (50.0)	3 (13.6)	1 (4.5)		3.12

주 : *p<.05,**p<.01,***p<.001

라. 생활 민원 상담 대상

- 생활민원이나 사회문화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하는 대상은 전체적으로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34.9%)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마을주민(17.4%),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직원(15.8%), 이주민 동료(1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장이나 통장(3.4%)과 상담을 하는 비율은 극히 낮았음
- 성별로는 남성(36.9%)은 여성(32.8%)에 비해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과 마을주민(남성 19.6%, 여성 15.1%)과 상담하는 반면 여성(20.6%)은 남성(11.0%)보다 정착주민 동료와 상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거주 지역별 민원상담 대상은 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제주시 동지역 35.1% 읍면지역 30.1%, 서귀포 동지역 43.6% 읍면지역 36.1%)과 정착주민 동료(제주시 동지역 17.9% 읍면 14.7%, 서귀포 동지역 18.1% 읍면 6.0%)와 상담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읍면지역보다는 동지역이었고 마을주민(제주시 동지역 11.3% 읍면 20.3%, 서귀포 동지역 14.9% 읍면 25.3%)과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제주시 동지역 15.2% 읍면 19.6%, 서귀포 동지역 11.7% 읍면 15.7%)과 상담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로 나타남
 - 읍면 지역 거주자를 위한 마을주민 네트워크,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정착주민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함

〈표 3-47〉 생활 민원 및 상담 대상

(단위: 명, %)

		사례수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	읍면동 주민자치센 터 직원	이장· 통장	선 (이웃) 주민	정착주 민(동료)	인터넷 블로그 및SNS	취미 및 스포츠 동호회	기타	χ^2
전체		493 (100.0)	172 (34.9)	78 (15.8)	17 (3.4)	86 (17.4)	77 (15.6)	47 (9.5)	4 (0.8)	12 (2.4)	
성별	남성	255 (100.0)	94 (36.9)	39 (15.3)	11 (4.3)	50 (19.6)	28 (11.0)	29 (11.4)	1 (0.4)	3 (1.2)	16.974*
	여성	238 (100.0)	78 (32.8)	39 (16.4)	6 (2.5)	36 (15.1)	49 (20.6)	18 (7.6)	3 (1.3)	9 (3.8)	
연령	20대	45 (100.0)	6 (13.3)	4 (8.9)	2 (4.4)	13 (28.9)	13 (28.9)	5 (11.1)	1 (2.2)	1 (2.2)	64.966***
	30대	142 (100.0)	41 (28.9)	26 (18.3)	1 (0.7)	37 (26.1)	13 (9.2)	14 (9.9)	2 (1.4)	8 (5.6)	
	40대	178 (100.0)	70 (39.3)	25 (14.0)	4 (2.2)	21 (11.8)	36 (20.2)	19 (10.7)	1 (0.6)	2 (1.1)	

	사례수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	읍면동 주민자치센 터 직원	이장· 통장	선 (이웃) 주민	정착주 민(동료)	인터넷 블로그 및SNS	취미 및 스포츠 동호회	기타	χ^2
50대 이상	128 (100.0)	55 (43.0)	23 (18.0)	10 (7.8)	15 (11.7)	15 (11.7)	9 (7.0)	0 (0.0)	1 (0.8)	
거주 지역	제주시 동지역	151 (100.0)	53 (35.1)	23 (15.2)	4 (2.6)	17 (11.3)	27 (17.9)	20 (13.2)	3 (2.0)	4 (2.6)
	제주시 읍면지역	143 (100.0)	43 (30.1)	28 (19.6)	9 (6.3)	29 (20.3)	21 (14.7)	10 (7.0)	1 (0.7)	2 (1.4)
	서귀포시 동지역	94 (100.0)	41 (43.6)	11 (11.7)	1 (1.1)	14 (14.9)	17 (18.1)	6 (6.4)	0 (0.0)	4 (4.3)
	서귀포시 읍면지역	83 (100.0)	30 (36.1)	13 (15.7)	3 (3.6)	21 (25.3)	5 (6.0)	9 (10.8)	0 (0.0)	2 (2.4)
	무응답	22 (100.0)	5 (22.7)	3 (13.6)	0 (0.0)	5 (22.7)	7 (31.8)	2 (9.1)	0 (0.0)	0 (0.0)

주 : *p<.05, **p<.01, ***p<.001

마. 필요한 지원

- 정착주민을 위한 지원 정책조사에서는 경력과 기술을 활용한 사회참여기회 제공 (28.7%), 일자리 알선(25.8%),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13.4%)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는 일자리 알선(33.3%)이 가장 높았고 30대(36.9%)와, 40대(34.7%)는 사회참여기회제공이 높게 나타남
- 항목별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 임대 알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50대 이상 (12.0%)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았고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대(19.0%)와 50대 이상(15.2%)에서 높게 나타남

<표 3-48> 정착주민에게 필요한 지원

(단위: 명, %)

	사례수	제주에서 일할수있 도록일자 리(직장 등)알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 임대 알선	제주어 및 제주생활 풍습 적응교육 프로그램 확대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감금, 축산부 분영농 교육	지역주민 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성공적 으로 정착한 이주민 건설링	과거의 경력과 기술을 활용한 사회참 여	기타	χ^2
전체	484 (100.0)	125 (25.8)	32 (6.6)	31 (6.4)	23 (4.8)	9 (1.9)	65 (13.4)	53 (11.0)	139 (28.7)	7 (1.4)	

		사례수	제주에서 일할수있 도록일자 리(직장 등)알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 임대 알선	제주어 및 제주생활 풍습 적응교육 프로그램 확대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감금, 축산부 분영농 교육	지역주민 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성공적 으로 정착한 이주민 컨설팅	과거의 경력과 기술을 활용한 사회참 여	기타	χ^2
성별	남성	249 (100.0)	64 (25.7)	17 (6.8)	13 (5.2)	8 (3.2)	5 (2.0)	33 (13.3)	27 (10.8)	79 (31.7)	3 (1.2)	5.619
	여성	235 (100.0)	61 (26.0)	15 (6.4)	18 (7.7)	15 (6.4)	4 (1.7)	32 (13.6)	26 (11.1)	60 (25.5)	4 (1.7)	
연령	20대	42 (100.0)	14 (33.3)	2 (4.8)	4 (9.5)	3 (7.1)	2 (4.8)	8 (19.0)	3 (7.1)	6 (14.3)	0 (0.0)	48.906**
	30대	141 (100.0)	36 (25.5)	5 (3.5)	4 (2.8)	5 (3.5)	3 (2.1)	17 (12.1)	14 (9.9)	52 (36.9)	5 (3.5)	
	40대	176 (100.0)	45 (25.6)	10 (5.7)	9 (5.1)	6 (3.4)	1 (0.6)	21 (11.9)	22 (12.5)	61 (34.7)	1 (0.6)	
	50대이상	125 (100.0)	30 (24.0)	15 (12.0)	14 (11.2)	9 (7.2)	3 (2.4)	19 (15.2)	14 (11.2)	20 (16.0)	1 (0.8)	

주 : *p<.05, **p<.01, ***p<.001

바. 사회참여 방법

- 지역사회 참여방안 조사결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참여(44.5%), 자원봉사(25.8%)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남성 49.2%, 여성 39.5%)과 각종위원회 참여활동(남성 9.1%, 여성 5.6%)이 높은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원봉사활동(남성 21.4%, 여성 30.5%)이나 지역의 자생단체 활동(남성 8.3%, 여성 15.5%) 이 바람직한 사회참여방안이라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는 20대(42.9%)는 자원봉사 활동, 30대(46.2%), 40대(53.4%)는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3-49> 사회참여 방법

(단위: 명, %)

	사례수	각종위원회 (자문, 심의 등)참여	주민자치위 원, 개발위 원, 통리반 장활동	자생단체 활동	자원봉사활 동(재능기 부등)	마을 협동조합 설립 등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참여	기타	χ^2
전체	485 (100.0)	36 (7.4)	32 (6.6)	57 (11.8)	125 (25.8)	216 (44.5)	19 (3.9)	

		사례수	각종위원회 (자문, 심의 등)참여	주민자치위 원, 개발위 원, 통리반 장활동	자생단체 활동	자원봉사활 동(재능기 부등)	마을 협동조합 설립 등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참여	기타	χ^2
성 별	남성	252 (100.0)	23 (9.1)	20 (7.9)	21 (8.3)	54 (21.4)	124 (49.2)	10 (4.0)	15.109*
	여성	233 (100.0)	13 (5.6)	12 (5.2)	36 (15.5)	71 (30.5)	92 (39.5)	9 (3.9)	
연 령	20대	42 (100.0)	1 (2.4)	2 (4.8)	7 (16.7)	18 (42.9)	11 (26.2)	3 (7.1)	42.519***
	30대	143 (100.0)	10 (7.0)	7 (4.9)	18 (12.6)	32 (22.4)	66 (46.2)	10 (7.0)	
	40대	178 (100.0)	10 (5.6)	13 (7.3)	25 (14.0)	34 (19.1)	95 (53.4)	1 (0.6)	
	50대이상	122 (100.0)	15 (12.3)	10 (8.2)	7 (5.7)	41 (33.6)	44 (36.1)	5 (4.1)	

주 : *p<.05, **p<.01, ***p<.001

7. 소결

○ 정착준비과정

-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정착주민들의 정착 동기는 제주의 자연에 매력을 느껴서, 그리고 새로운 정착지로 선택, 직장 및 사업체 이동 순으로 나타났고 정착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는 주택구입 및 부동산 정보와 일자리 알선, 귀농귀촌 관련 정보로 나타남

○ 적응과정

- 정착주민의 제주생활 적응도 조사에서는 70% 이상이 적응되었다고 응답했으나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된 응답자도 적응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34.5%)도 많아 거주하는 동안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정착주민의 이주 이전직업은 사무/관리직 비율이 가장 높고(29.4%), 자영업(18.0%), 판매/서비스직(11.0%) 순이었으나 이주 이후 직업은 자영업이 가장 높고(32.8%) 판매/서비스직(13.6%), 1차 산업(12.2%) 로 나타나 이주 이전에 비해 사무/관리직 비율은 현저히 줄고 1차 산업과 자영업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남
- 제주정착 이전 소득은 300-400만원이 25.8%, 200-300만원이 24.3%, 100-200만 원

이 12.6% 인데 반하여 제주정착 이후의 소득분포는 100-200만 원이 33.9%, 200-300만원이 24.3%, 100만 원 이하도 22.6%로 나타나 제주 정착 이후 소득이 낮아진 것으로 추측됨

- 제주 정착이후 삶의 질(평균 3.68)은 정착이전(평균 3.22)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직업변경과 소득저하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향상되었다고 인식함
- 정착주민들의 이주 이후 영역별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는 자연환경(평균 4.20)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여가문화와 친환경적 교육환경(평균 3.13) 영역이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도의 지원정책(평균 2.29)이나 교통 환경 및 접근성(평균 2.46), 경제활동 및 소득(평균 2.65)부분에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응답자의 생활이 만족스러운 이유는 자연환경과 취미생활이 대표적이었고 불만족 원인은 교통 불편, 육지출입 불편, 비싼 생활물가, 지역주민의 배타성 순으로 나타나 불만족 원인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구됨
-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관한 의견을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3.31로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이웃과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어서 이나, 지역주민이 배타적이라는 의견도 상당수 (20.1%) 나타남
- 지역주민과 융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30.8%)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이주민 자신의 태도 변화 (24.2%), 이주민과 선주민의 네트워크 구축(19.3%) 순으로 나타나 네트워크 구축과 인식변화 교육 등을 포함하는 정착주민과 선주민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함

○ 정착 안정기

- 정착주민의 지역 내 행사 참여활동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항목 별로는 문화운동 등 여가활동이 가장 높았고(2.89) 자녀학교 행사(2.68) 가 조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2.31)이나 농민단체 모임(2.19) 등의 참여는 낮게 나타나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는 참여정도가 낮아 지역사회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함

○ 정책욕구

-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이주와 관련한 혜택을 받은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20.4%가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구체적인 분야는 귀농귀촌 교육(48.5%)이 가장 높았고 제주문화 이해하기 교육(24.8%)과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사업(10.9%) 순이었음
- 정착주민 관련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 (52.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돼서’ 라는 응답(32.8%)도 상당수 드러남
- 응답자의 정착주민지원센터 인지도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는 모른다고 응답한 대상이 64.1%를 차지하였고 정착주민지원센터 이용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15.4%만이 이용경험이 있으며 전제 도움정도는 2.46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정착주민지원센터의 역할강화 및 운영 내실화가 요구됨
- 정착주민을 위한 지원 정책 욕구 조사에서는 경력과 기술을 활용한 사회참여기회 제공(28.7%), 일자리 알선(25.8%),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13.4%)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 참여방안으로는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참여(44.5%), 자원봉사(25.8%)순으로 나타나 일자리 알선과 사회참여를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심층면접 결과 분석

1. 심층면접 개요
2. 심층면접 결과
3. 소결

1. 심층면접 개요

가. 심층면접 방법 및 대상

1) 면접 개요 및 대상자의 특성

- 설문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함
 - 심층면접대상자는 정착주민 12명, 귀향인 1명, 선주민 5명으로 구성함
 - 대상자 선정은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되 성(gender), 연령별, 직업, 이주동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정착주민과 선주민의 서로에 대한 인식차이와 갈등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주민도 성(gender), 연령, 거주지, 직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면접 시간은 1시간-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면접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하고 이를 풀어서 정리함
 - 분석방법은 녹취내용을 반복하여 읽고 주요 테마를 선정한 후 내용의 맥락을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함
 - 조사내용은 정착주민들은 이주결정 동기, 이주 이후 적응과정에서의 경험, 선주민과의 관계, 선주민과의 갈등 해결 및 상생방안 등으로 구성하였음
 - 선주민에 대한 면접조사 내용은 정착주민 증가이후 변화, 정착주민에 대한 인식, 정착주민과의 관계, 상생방안 등으로 구성하였음
 - 심층면접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4-1과 같음
 - 정착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아래 표 4-2와 같음

〈표 4-1〉 심층면접 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결혼여부	직업	이주 후 거주기간	비고
사례1	남성	30대	기혼	마을기업	8년	
사례2	여성	30대	기혼	협동조합 운영	2년	육지 머느리
사례3	여성	40대	기혼	교사	4년	
사례4	여성	40대	기혼	문화예술	4년	

구분	성별	연령	결혼여부	직업	이주 후 거주기간	비고
사례5	여성	40대	기혼	꿀 판매	4년	
사례6	여성	40대	기혼	전업주부	4년	
사례7	여성	30대	미혼	농업, 플라마켓 참여	6년	
사례8	남성	50대	기혼	농업(감귤)	1년	귀향인
사례9	남성	30대	기혼	사회적 기업	4년	육지 사위
사례10	여성	30대	미혼	문화예술	3년	
사례11	남성	60대	기혼	농업	-	선주민
사례12	남성	50대	기혼	농업	-	선주민
사례13	남성	50대	기혼	사회적 기업	7년	
사례14	남성	60대	기혼	농업	2년	은퇴자
사례15	여성	40대	기혼	서비스직	2년	도시거주
사례16	남성	50대	기혼	농업	-	선주민
사례17	여성	30대	기혼	프리랜서	-	선주민
사례18	여성	50	기혼	농업	-	선주민

〈표 4-2〉 심층면접 내용

영역	세부영역
이주 준비과정	이주동기, 준비과정의 어려움, 정보습득 방법(일자리, 주거, 학교 등)
정착과정	제주살이의 장·단점, 가족관계의 변화, 제주이해의 어려움 등
지역주민과의 관계	선주민과의 접촉, 공동체 참여여부, 선주민과의 갈등경험, 소통방식, 갈등해소 및 협력방안 등
정책수요	사회참여(공동체 기여)방안, 정책제안, 필요한 민원 및 정보, 정책육구 등

2. 심층면접 결과

가. 정착 준비단계

1) 정착 동기

○ 경쟁위주의 삶에서 탈피, 육체적·정신적 힐링 및 치유

- 정착주민들의 이주동기를 보면 경쟁위주의 삶에 지쳐 여유로운 삶을 통한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치유를 위하여 이주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음
- 앞장의 설문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서울과 경기도(51.0%)에서 이주한 이주민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경쟁위주의 삶에서 정신적인 여유를 찾고자 이주를 선택한 사실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사례3은 자녀의 아토피 치유를 위해 바다가 있는 제주로 이주를 결심하였다고 진술함

방학 때마다 온 것 같은데. 왔다가. 애가 바닷가에서 수영하는데 이제. 아토피가 (...) 바다 수영을 하고 애가 그날 너무 안 가려워 하니까.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낮는 걸 보니깐. 이게 이제 우연인가 싶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테스트 삼아 계속 이제 이 바다수영을 한 번 봤는데. 진짜 그때마다 진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사례3)

- 사례6은 남편이 직장생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건강에 이상이 온 이후 약간의 휴식기간을 가진 뒤 자연환경이 좋은 제주로 이주를 희망하였고 제주에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찾은 결과 이주를 실행에 옮길 수 있었음

스트레스성 위염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들락날락 거리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그렇고 하니까. 이제 좀 쉬면서 조금 생각 좀 해보고. 조금 더 편안한 일자리로 좀 바꿔보자. 그런 생각에. 이제 검사검사 그 길에 알아봤는데. 제주도에 일자리가 나더라고요. 하하. 그래서..(사례6)

- 사례10과 사례9의 경우도 서울의 긴 출퇴근 시간, 업무와 연관된 인간관계, 도시의 치열한 경쟁위주의 노동환경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서울 생활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 서울이라는 공간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에, 제주도에 가서 사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니까, 아, 가도 되는 구

나, (...) 직장생활이나 일을 하면서 좀 지친 게 좀 있었어요. (...) 사람을 좀 그만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 온전히 정말 저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례10)

(이주 이전에는) 지하철로만 꼬박 2시간이 걸렸어요., 왕복 하루에 4시간을 전철하고 버스에서 시달리다가, 제주도 내려왔는데 (...) 확실히 이제 짧아진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것들, 조금만 20분 넘어가는 길 00는 안 가게 되고, 그런 것들 (사례9)

○ 대안적 교육을 위한 선택

-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이주 동기는 정신적·육체적인 치유와 힐링 이외에도 자녀교육을 위해서 이주한 경우가 있었음
- 사례3의 주장은 제주지역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초등학교의 통폐합에 맞서 제주지역의 마을 공동체의 학생유치를 위한 노력과 시골학교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음

그 애는 좀 인원수가 좀 작은 그런 시골학교. (...) 제주도가 이 거의 유일하게 통폐합이 안 되는 그니까. 전국이 통폐합이 되고 있거든요. 소규모 학교들이 (...) 근데 여기는 중앙에 되게 강하게 맞서는 교육청 중에 하나예요. 통폐합 안 되고.(...) 사실은 육지는 못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없어지는데. 여기는 마을 주민들이 정말 결사반대. 절대 반대하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자기네가 돈 모아서 무상임대 시작하는데가 제주도예요.(사례3)

- 대안교육을 위해 제주도 이주를 결심한 배경에는 사례5의 진솔처럼 도시에서의 경쟁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비롯된 치열하고 비인간적인 생활의 연속으로 인한 문제의식에 있다고 할 수 있음

너무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경쟁. 아이들 그 사이에서도. 그리고 엄마들 사이에서도 너무 이렇게 그 내 아이. 내 아이. 이런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렇게 조금 좋은 학원이 있으면 뭐 안 가르쳐주고 약간 그런 식 있잖아요. 약간 그러고 수업만 끝나면 바로 전화 와서 몇 점이야 뭐 이런. 저는 이렇게 너무 싫었어요. (사례5)

- 그러나 대안교육 환경은 자녀가 중학교 진학 이후 여유 있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다시 내몰리는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

- 사례5와 사례4의 진술은 자녀가 중학교 진학이후 과도한 학업부담으로 힘든 상황이 되면서 변화된 교육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갈등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중학교 진학 이후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제주를 떠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함

나의 선택이 이게 잘 한 걸까? 아이가 다시 또 힘든 이 상황으로 몰려져 버리니까. 그런 마음이 좀 요즘엔 좀 있어요. 있는데 벗어날 수는 없고. 애가 그 안에서 잘 버텨야 되겠죠. (사례5)

아침마다 나가는데 가방을 잡고 싶은 거예요. 못 가게. 그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너무 해맑게 즐겁게 학교를 갔거든요. 빨리 학교 가서 놀아야 되. 빨리 가야 돼. 근데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아이어깨가 너무 무거워 진거예요. 그래서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홈스쿨을 할까. 별 고민을 다했어요. (...) 초등학교. 근데 이제 중학교에 부딪히면서 다시 전학을 가는 엄마들이 있어요.(사례4)

2) 정착을 위한 준비 : 인터넷 SNS 를 중심으로 정보수집

- 심층면접에 참여한 정착주민들은 이주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제주에 와서 현장 조사를 하거나 지인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인터넷 카페나 소셜 네트워크(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많이 이용하고 있음
- 사례3의 진술처럼 인터넷 카페나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보이용은 주로 제주 이주에 관한 성공사례 위주로, 그리고 낭만적인 환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음
- 이러한 사실은 앞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주민이 이주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공기관(주민센터)의 상담을 통하여 얻기를 원하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음

처음에는 카페 통해서 정보 공유 많이 했고요. 그니까 뭐 제주도 살기위한 모임이 니..뭐 제주 맘 카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때만 해도 언론에도 많이 쓰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제주에 계신 선배님 통해서 또 정보 좀 얻고. 요즘이야 책도 많이 나오고 기사도 많잖아요. 근데 (...) 성공사례들만 주로 쓰기 때문에 실은 그게 또한 함정이 되더라고요. (...)

- 그러나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정보교류는 이주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공기관을 통하여 얻을 수 없거나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이주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함
- 사례3의 경우는 시골학교에서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마련한 무상임대 주택에 관한 정보가 공적인 통로를 통하여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고 있어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다고 진술함

제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막 알렸어요. 이렇게 혜택 받을 수 있더라 하면서 막 알려서. 제 이후에 오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집 얻는 정보도 너무 얻기 힘들었고. 어.... 정보를 얻는 데가 진짜 이 제주맘(카페)이라는 게 너무 황당했죠.(사례3)

-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는 공적인 통로를 통하여 홍보되지 않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게 되었고 폐교 위기의 시골 학교들이 되살아남은 물론 이주민들의 대안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사례3의 진술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주민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주도 안에서는 뭔가 정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아웃풋이 안돼요.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되서. (...) 제주도 초등학교 정보를 제가 거기다(인터넷 블로그) 올리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알 데가 없어서 너무 고생했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이주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진짜 많이 막 그 초등학교 어디.. 그니까 어디가 이제 그런 시골 학교이고. 애를 기다리고. 가면 어떤 집이나 이런 혜택을 주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데. 그걸 다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는 이 시스템(사례3)

나. 정착 과정

1) 구직 및 경제활동의 어려움

- 정착주민의 이주이후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일자리 찾기에서 시작됨
- 면접자들은 대부분 이주이전 지역에서 하던 일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을 시작하나 같은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상당 수 발생함

- 사례9의 경우처럼 동일한 계통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게 되고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됨

저는 이제 00였었는데, (...) 제주도에 있는 회사들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게 참, 뭐 옛날하고는 너무 차이가 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악한데, 일은 더 많이 해야 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안더라고요, (...)그 일을 제껴놓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갈 수 있는 폭들은 굉장히 줄어들죠, (사례9)

- 동일업종에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간관계를 통한 신뢰관계 형성이 어려운 점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사례1의 진술처럼 이주 이후 일자리 구하기 어려움으로 인해 창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나 새로운 곳에서의 창업은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따르고 지역주민들과 접촉하기보다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을 위주로 실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움

이제 새로운 사람들에게 출신성분을 믿을 수가 없는 부분도 많을 거니까. 새로운 일이 필요하기 보다는 아는 사람으로 해서 알음알음 채용하고. (...) 새로운 어떤 산업이고. 새로운 산업에 새로운 일자리가 있어야 가능성이 있는데 (...) 그게 아니고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은 창업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비용이 또 많이 들고 실패할 확률도 높으니까. (...)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네트워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하고 똑같이 여행을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해서, 벌 수 밖에 없는 (...) 여행업이라고 하는 게, 순간, 썩~하는 거니까, 고정적인 급여를 잡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니까 (사례1)

- 제주에 이주한 이후 정착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성인 경우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 사례10의 경우도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결국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집을 운영하여 필요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진술함

일단 아무런 준비 없이 급하게 와서, 와서는 돈을 다 까먹고, 흑독하게,, 그 뒤부터 조금씩 이제 뭐, 일, 아르바이트 같은 거 조금 하다가 (...) 제가 사는 공간에 방을 한 두개 정도, 여자 분들한테 빌려주는 민박을 하게 되었어요, 경제적인 거는 (...) 딱 정말 생활할 정도만 벌고 있어요.(사례10)

2) 의사소통의 어려움

- 면접자들의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제주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들 수 있음
- 제주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이주이후 제주인과 가족 관계를 맺은 경우 더욱 심하다는 의견임
- 사례2와 사례3은 제주사람과 결혼으로 가족관계를 형성한 이후 정착하면서 가족관계 내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가 있었음을 토로함

의사소통 문제가 제일 힘들구요, (...)처음에는 저 때문에 신경 쓰셔서 표준말을 해주세요 그런데 불편해 하시니까 (...)말씀 편하게 하세요 라고 하면, ‘아유 나도 나도 시골에 가면 아무 말도 못 알아들어’ 뭐 이렇게 하시지만, (...) 사실상은 못 알아들어서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언어소통에 따른 갈등과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사례2)

처음에는 이제 언어 때문에 좀 어려웠죠 (...) 아버님한테 처음 인사를 드리러간 자리였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가 음식 내려 온다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아버님이랑 딱 들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 하시는데, 그거를 못 알아 들겠는 거예요, (사례9)

- 전통적인 가족관계 내에서 며느리의 위치는 가장 낮은 지위에 있음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제주 남성과 결혼한 육지며느리의 입장에서 시댁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내에서 힘든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됨을 의미함

제가 하는 말을 상대방은 정확히 알아듣지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저는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니까, 몇 번 여쭙봐야 하고, 분위기가 못 물어봐서 대충 어림짐작해서 또 틀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냥 양가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시집살이 하는 거에, 플러스 알파가 되요, (사례2)

3) 생활문화의 차이

- 정착주민과 선주민들의 생활문화의 차이로 인한 적응상의 어려움은 여러 면접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음
- 이러한 차이는 제사나 별초, 경조사 때 부조금문화의 차이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활문화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선주민들과 일상생

활에서 잘 융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여성 면접자들의 경우 지역의 경조사 문화를 비롯한 생활문화의 차이, 마을의 운영이나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고 주장함

제주 경조사문화, 제사문화, 그리고 각종 부주문화 (...) 뭐 이렇게 무슨 행사를 하고,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잔치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을 할 때, 역할을 어떻게 담당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 몸에 베어서, 어느 포지션에 들어가서 내가 뭘하면 된다 라는 게 있어요. (...) 그게 굉장히 조직화 돼서, 훈련이 되는, 일련의 생활사 적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마을에서도 마을 행사도 많은데, 거기 이주민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마을 회비나 이런 것들, 마을 재산이나 회비 같은 것들도 잘 모르고(사례2)

그리고 제사 먹으로 가는 일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 용어 제사 먹으로 간다는 표현 (...) 여기에서는 제사가 직계가족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수 십명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 제사도 똑같이 부주해요, 예전에 쌀 하다가 지금은 봉투 올려놓고 가요. (사례2)

- 선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착주민들의 생활문화에서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함
- 특히 도시생활을 하던 정착주민이 제주의 시골마을에 정착할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 앞 도로의 잡초제거나 마을세를 비롯한 행사비용을 부담하는 문제 등에서 인식 차이를 발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선주민인 사례11의 지적은 이러한 차이로 인한 갈등이 도시생활에 익숙한 정착주민이 시골마을의 공간적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에 제주지역 마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소가 추가되어 나타남

그 외지에서 들어 온 분들은 아파트 생활을 했거나 어쨌든 그런 그 자기만의 생활을 했던 분들이 이런 쪽에 오면 적응이 안 되죠. 예를 들어가지고 (...) 도로가.. 도시는 접할 도로가 적지만 여기는 50m, 100m가 자기만 사용하는 도로들이 많습니다. 길이. 농촌이다 보니까(...) 그런데 잡초라도 있으면은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은 자기들이 다 제거하고 청소하고 다 하거든요. 도시에서 와 사시는 분들은 일절 안합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거 시에서 와서 하면 되지 (사례11)

네 그 분들이. 지금 보면은 처음부터 배타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 13년도, 14년도가 그 이장이 외지인하고 그 회의를, 대화를 아주 많이 개발의원들

하고 많이 가졌었는데. 그 때 외지인 사람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게. 겐디 근데 그 생각의 차이가... 뚜렷해요. 뚜렷해 (...)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그 리세라는 명목은 없고 이런 행사비라도 이렇게 얼마 모으면 왜 우리가 내야 되는가.(사례11)

- 도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착주민의 경우 선주민과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그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있음
- 선주민인 사례11의 진술에 따르면 최근 도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착주민들 중 전업주부가 많이 눈에 띄며 이러한 모습은 선주민 여성의 삶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함

우리 아이들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왜 엄마는 집에 없냐고 물어봐요. 하하하. 이주해온 엄마들은 다 집에 있어요, 거의. (...) 또 이주한 엄마들은 여유를 가지고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그니까 막 치열한 공부를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도 안 보내고. 근데 저희는 어쩔 수없이 막 학원을 돌려야 되는데. (...) 그 엄마들은 놀애들을 학교에 데리러 가고 데려와서 놀이터에서 놀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사례17)

4)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 갈등

- 정착주민이 제주사회에 적응이 어려운 경우 종종 가족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가족이 함께 이주했으나 남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사례4의 진술처럼 제주에 정착하는 것을 두고 가족 구성원 간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갈등이 드러날 여지가 있음

아빠가 직장을 계속 .. 이렇게..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니까 아빠가 다시 육지로 가자하고. 엄마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살고자 하고. 이런 점들은 좀 있었어요.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게 뭐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 같고.(사례4)

현실적으로 (...) 여기 그냥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연봉 뭐 25000이 안되고. 그러면 투잡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 엄마아빠 다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 버리고 (...)맛별이를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방치되잖아요. (사례4)

- 남성이 일자리를 오랫동안 구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내의 갈등은 정서적인 면에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음

- 사례3은 남편이 제주에 정착한 이후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스트레스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졌음을 지적함

남자들이 일 안하고 사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폐인 되겠더라고요. 이주자들이 처음에 목소리 높여 싸우는 게 이제 남자들이 말로는. 아 막 이제. “야 나 일 좀 안 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 한 보름? 이거 지나면 답답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 것 때문에 목소리 높여 싸우고. 힘들었죠. (...) 매일 같이 짜증내고 이제 그런 거죠. 본인이 정착할 곳이 없으니까. (사례3)

5) 기후 적응, 대중교통 불편, 병원 등 편의시설 접근성 나쁨

- 이주민들의 적응상의 어려움 중 이주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으로 육지와는 다른 기후에 적응하는 문제를 들 수 있음
- 구체적인 기후적응의 어려움으로는 잦은 안개, 높은 습도, 시골에서 사는 경우 벌레 등을 언급함

큰게 직업, 주택, 애들 교육문제 (...) 생활문화나 뭐 기후나 (...) 구체적인 일상은 별로 생각을.. 소홀히 하잖아요. 그 실제 살아보시니까 (...) 조금만 옮기면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보이고 이런 것들은 생각안하죠. (...) 벌레 나오고 뭐 습도 장난 아니고. 빨래 안 마르고 이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하죠.(사례3)

- 면접자들이 지적하는 제주지역 정착의 어려움은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좋지 않은 점, 그리고 시골에 거주하는 경우 병원이나 편의시설 이용의 어려움 등이 있음

교통편 때문에 좀 불편했던거? 와이프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저는 차가 있으니까 가지고 다니는데, 제주 도민들, 뭐 한집에 차가 두 세대씩 있잖아요. 그것도 교통이 불편하니까, (...) 문화생활이라든지, 뭘 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교통편이 대중교통이 편하지 않은 마을에 산다고 하면, 하루에 버스가 몇 대 밖에 안다니는데, 여기에서 생필품이라도 갑자기 떨어졌다, 그러면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사례1)

아 근데 병원이랑.. 이제 애기들이 어리고. 그 때 임신해 있었고 막 이러니까. 출산하기에는 서귀포 쪽은 차타고 거의 막 임박했을 때 여기 40분, 1시간을 넘어와야 되는데 (...) 아 원래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살아보니까 조금 더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병원. (사례6)

6) 정서적 긴장감

- 면접자들 중 상당수는 경쟁위주의 도시생활에서 여유 있는 삶을 위하여 제주 이주를 선택하였고 외부환경이나 시간적으로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으나 정서적으로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
- 이러한 지적은 사례4의 ‘정서적인 섬’ 이라는 표현에서 엿볼 수 있음
 -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함과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는 지역적인 환경에 늘 인간관계 형성에 긴장할 수밖에 없음을 토로함

형태적으로 섬인데, 정서적으로도 섬 인거예요. 그니까 관계..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아직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항상 긴장하고 있고. 반면 이게 릴렉스 하고 싶어 가지고 왔는데 관계 속에서는 아직 긴장이(...)제주가 무튼 섬이고. 활동하는 폭들이 넓지 않다보니까 금방 점프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이. (...)사람 관계에. 예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 엄마들이랑 가깝게 잘 지내면서 정보도 많이 얻고, 마음 분들하고도 교류도 조금씩 하고. 음. 근데 여전히 조심스러워요. (사례4)

- 인간관계 안에서 긴장해야 하는 일상을 살아야 하는 어려움은 제주지역의 특성 이라기보다는 도시에서의 개인화된 삶에서 시골의 마을공동체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으로 풀이할 수 있음

수십년동안 굉장히 개인화된 삶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그거조차도 이제 조금 풀어내리고 싶어서, 제주도를 찾았는데, (...) 공동체도 잘 어울려야 되고, 인사도 잘 해야 되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풀도 잘 뽑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 어울리면은,, 부딪혀야지 되는데, 그 지금 제가 보면은 육지 온 사람들은 육지 온 사람들 끼리 어울리고, 그리고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를 지켜보는 이 어떤 기간동안 나는 너무 불편하거든, (...) 굳이 개입할 필요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느낌이 들고,(사례9)

다. 선주민과의 관계

1) 정착주민과 선주민 : 물과 기름?

- 대부분의 면접자들은 선주민들과의 관계를 ‘물과 기름’ 으로 표현하고 있음

- 선주민과의 관계를 ‘물과 기름’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함께 융합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먼저 오신 분들도 아, 여기서는 10년이 지나도 물과 기름 같은 저기 외지인이다. 뭐 그런데요. 1세대가 되도 그러기 때문에 (...) 근데 그런 거는 뭐 감수하고 왔기 때문에 (사례14)

- 시간이 오래 지나도 제주사람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는 마을 공동체에서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장벽을 의미하기도 함
- 이러한 선주민과의 융합의 어려움에 면접자들은 사례10의 경우처럼 먼저 적극적으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을에 대하여 이해하는 노력을 하기도 하고 사례2의 경우처럼 정착주민들 끼리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어려움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기도 함

우리한테 어차피 발언권이 주어지지도 않고, 그분들이 저희를 봐줄꺼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깐 (...) 현재로서는 그냥 이제 좀 물과 기름 같은 존재로,, (...) 이제 좀 마을일에 좀 참여하는 편이거든요, (...) 마을에서 해설사 과정도 듣고, 마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기도 하고, 마을 어르신들도 좀 만나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례10)

많은 경우의 이주민들은 선주민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아주 피상적으로 접하는 것 외에 좀 친밀한 인간관계로 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 사실 이주민들 친하고, 그들끼리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내려와서 그냥 고립되고 외로우니까 서로서로 연결되다보면, 이 친구들 간의 엄청난 네트워크가 형성 되거든요, (사례2)

2) ‘제주사람’과 ‘육지사람’의 경계

- 정착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제주사람과 육지 사람의 차이를 드러내어 구별 짓기²⁾를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차이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함

2) 구별짓기는 인간의 집단적 정체성을 통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피에르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집단적으로 형성된 문화적 습성인 아비투스(Habitus)을 가지고 정체성을 형성한다. 집단간 혹은 개인간의 취향이나 차이로 인한 구별짓기는 문화적, 사회적,

- 그러나 제주사람과 육지 사람의 경계를 나누고 구별하는 기준은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가장 우선적인 제주사람의 기준은 제주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사례9와 사례3의 진술은 제주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일단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제주 사람이 아닌 육지 사람으로 취급받고 이러한 구별 짓기의 기준은 선주민들과 함께 잘 지내려는 노력하지만 곧 의욕을 상실하게 됨을 보여줌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아들은 제주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뭐 전라도 어디에서 내려오셨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여기에서 사신지 60년이 넘으셨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육지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들은 제주 것이라는 표현을 듣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례9)

그 진짜 이럴 때 맥 빠지죠. (...) 저희 남편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술 먹다가. 그럼 나. 내가 얼마나 살면 여기서 받아줄 거냐고. (연구자 : 삼대를 살아야 된다고요?) 그니까 그게 맥 빠지는 거죠. 결국은 ‘내가 노력해도 여기서 안 되겠구나’ 가 되는 거죠. (사례3)

- 제주사람으로 수용하는 기준은 지역에서 사람들과 오랫동안 함께 공유한 시간이 우선적인 기준이 되나 가족관계 형성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도 함
- 사례2는 자신이 육지 며느리로서 제주에 정착해서 산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제주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함
- 이러한 현상은 유교중심의 전통적 가부장제 이념이 공동체 안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남성중심의 가족주의 사고방식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음³⁾

제주 도내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바라보면 (...) 이제 그 시간을 어느 정도 공유 했냐 라는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 부모님이 모두 제주사람이나, 아니면, 아니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면에서 권력화된 다중의 차별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취향과 차이에 의한 구별짓기는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한다 할 수 있다 (Pierre Bourdieu, *(La)distinction :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Paris: Editions de Minuit, c1979. 최종철 역,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서울. 새물결. 2005. 참조)

- 3) 유교중심의 전통적 가부장제 이념이란 과거 조선시대에 유교식 가족주의를 국가 통치이념과 연결시켜 국가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논리를 말한다. 여성을 가족내에 세대주에게 속한 존재로 규정하여 세대주 중심으로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통치이념을 가족주의와 결부한다. 가령 아버지를 한 가정내에서 왕처럼 따르고 왕을 아버지처럼 따르라는 의미에서 국부라 칭하는 것은 그러한 사례를 말해준다.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남성의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현상을 이러한 유교중심의 전통적 가부장제 사고에서 비롯된 인식이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Martina Deuchl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 Cambridge :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 c1992 참조)

나 그것 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육지를 한번 갔다 왔나 이것도 또, (...)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저 같이 소위말해서 가족 관계로 한명이라도 얽히는 사람이 있냐 없냐, (...) 육지 며느리우다. 이렇게 얘기하면, (...) 그 동네 아는 사람이 있지, 이러면서 바로 경계의식이 풀어지는데 (사례2)

- 유교중심의 전통적 가부장제 사고방식은 육지 며느리와 육지 사위를 지역 공동체 안에서 다르게 구별하고 있음
- 육지며느리가 결혼과 동시에 온전히 제주사람으로 인정되는 반면 사례9의 주장에 의하면 육지사위는 절반만 제주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음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따당하거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들이, 반육지것? 반제주것? ‘너는 반 제주것이니까 넘어간다’ 뭐 이런 표현들 (사례9)

- 제주사람과 육지 사람에 대한 경계나누기의 기준은 자신이 태어난 곳 뿐 아니라 부모님의 출생지 또한 중요하며, 가족관계, 제주에서 살아온 시간 등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주민들은 정착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구별 짓기를 통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

제가 볼때는, 이게 미세하게 들어가면, 어떻게까지 가냐하면, 예를 들어서 언제왔느냐, 이주를 언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준이 다 달라요. 오죽하면 내가 니네가 좀 정해줘라, 백년이면 백년, 삼대면 삼대, 기준을 정해라 기준도 없으면서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거죠, 부모 중에 한 분이 육지사람이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육지사람이나, 어머니가 육지사람이나에 따라서 서열이 달라요, 대하는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주도 사람이어야, 더 우위에 서있어요. 보통 (사례13)

- 제주사람과 육지 사람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전환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사례17은 제주에서 태어난 제주사람의 입장에서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제주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성찰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여기 있으면 도민인거죠. 다 같이 도민이고. (...) 여기가 섬이라는 이유 때문에 막 마

치 이민을 온 것처럼 이런 게 좀 많이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의식 변화?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제주 도민이 불편한 만큼 이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와가지고 웬지 융합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도에서 뭐 10년을 살아도 이주민이라는 타이틀이 안 떼지는 그런 거? (...) 서울에서 온지 몇 년차 됐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근데 사실 제주에서 서울 가면 그런 얘기 안하잖아요. (사례17)

○ 제주를 떠나지 않아야 제주인?

- 면접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제주사람의 기준에는 제주를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야 진정한 제주사람이라고 함
- 그 원인은 사례8의 지적처럼 ‘돌아보지 못한 세월’에 대한 공백 기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즉 지속적으로 친인척과 경조사 참여를 통하여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이러한 관계유지를 통하여 제주사람이라는 공동체를 확인해나간다고 할 수 있음

저희 동네는 더 그런 아직까지 뭐 집성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 아 육지에서 살던 분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게 있어요. (...) 외적으로 반갑기는 한데 또 이때까지 돌아보지를 못했잖아요. (...)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동창회도 가입하고 뭐 그렇게 사람은 어느 정도 약간 섞이는데 가끔 해마다 겨울에 내려왔잖아요. 그게 약간 섞여요. 여기서. 근데 갑자기 30년 만에 갑자기 딱 나타나면 있죠. 아, 못 섞여요. (사례8)

3) 정착주민과 선주민간의 인식 차이

① 정착주민이 불편한 선주민

- 정착주민에 대한 선주민의 인식은 ‘웬지 모를 불편함’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사례2는 선주민들이 정착주민에게 가지는 불편한 심정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선주민인 그녀의 주장에 의하면 정착주민의 유입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일정한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온 익숙한 삶의 패턴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정리하고 있음.
- 육지머느리인 그녀의 진술은 제주사람의 입장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불편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지금까지 사는데가 별로 불편함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막 다이내믹하게 변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크구요, 그니까 사람들 안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런 말 되게 많이 듣고요 (...) 지금까지 살아온거에 대해서, 익숙한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 패턴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즉, 나름 신뢰관계망들을, 아는 사람들 끼리끼리 갖고 있잖아요. (...) 정식으로 공시된 정보가 아닌, 끼리끼리 알음알음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움직여지는 곳인데 (사례2)

- 반면 사례18은 선주민들이 정착주민에게 느끼는 불편함을 ‘우리와 남’ 이라는 이분법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그녀는 증가하고 있는 정착주민에 대하여 불편함을 내색하는 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나도 그런 게 있어요, 실은. 우리만 살고 싶은데 귀찮다는 거 (...) 일단 들어오면. 아유, 우리끼리 그냥 살고 싶은데. 남이라는 별개의 사람이 들어오면 일단은 살고 있는 사람은 불편하잖아. 일단 속에는 그 불편하고 귀찮다는 그 생각이 있긴 있어요. 실은. (...) 자주 만나고 그니까 그 귀찮음이나 불편한 거를 내색안하고 서로 뭐 양보하고. 그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례18)

- 정착주민을 대하는 선주민들의 불편한 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피해의식, 섭섭함, 부러움과 질투 등의 감정이 함께 섞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피해의식의 밑바탕에는 육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산인 학력, 경제력은 물론이고 개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인적자산에 대한 부러움과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득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박탈감 혹은 소외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음

이 원래 제주도민도 그렇지만 배타적인 부분. 보면은 참 뭐 저 똑똑한 것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끼리 모여자지고 말이야 뭔가를 이상한 궁리를 하면서 마을에 뭘 (피해를 주지 않을까?) 뭐 그러지 않을까. (사례16)

크게 말하면 개발인데. 막 그자 공사를 하잖아요. 집. 전기 땡겨 가고 수도 땡기고 집짓고 뭐뭐 펜션이다 뭐다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면서 어떤 위기감을 느끼겠죠. 우리 마을 분들은. 어떤(...) 어쨌든 뭐 돈 가진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이렇게 해가니까 자기는 없어서 그런 거 하지도 못 하고게. (...) 음. 위화감. 그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사례11)

근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도민들은 상당히 섭섭한 감정을.. 자기가 손해 보거나 피해를 본 건 아닌데 자기가 생산한 밀감을 팔아주니까 이 사람은 가만 앉아가지고 농사도 안지어가지고 (사례12)

- 정착주민에 대한 선주민들의 불편한 감정에는 심정적인 부러움과 소외감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그동안 마을 공동체를 지켜온 물질적 기반인 마을재산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억울함 또는 부당함의 감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예를 들어 마을의 공공재산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분들이 이제 달랑 와가지고 우리가 몇 백 년 흘러온 걸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 버리고.(사례11)

- 그러나 사례18의 진술은 선주민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정착주민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이성적으로 성찰하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착주민들에 대한 불편한 인식은 결국 합리적이지 않은 것임을 나타냄
- ‘참 웃긴다’ 는 그녀의 표현은 이러한 자신들의 감정을 타당하지 않다는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음

참 웃긴 게. 원래 여기 토박이들은 자꾸 애들을 장가보내면 내보내요. 여기는. 도시로. 도시로. 내 보내고. 남의 자식은 이렇게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 아하하. (...) 다들 뭐 잘난 아들은 육지 나라의 아들이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일단은 당신 자식들은 다 보내려고 하니까. (...) 하하. 남아 있는 사람들은 또 귀찮아하는 거고. 불편해 하는 거고 그 들어오는.. (사례18)

② 선주민에게 소외되는 정착주민

- 정착주민들이 선주민들에게 느끼는 소외감은 마을 공동체에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되었을 때, 그리고 협동사업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신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사례3은 남편이 제주에 정착한 이후 선주민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청년회 활동을 비롯하여 마을행사나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마을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대의원으로 추천 받지 못하여 마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다고 주장함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려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끝에 가면 배척당했다고...(...) 그렇게 온 몸을 바쳐서 이제 자기는 할 만큼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회의에서 년 발언권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 야. 년 안돼. 이러면서 아예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이... 추천권? 그런 것들도 못 받았어요. 그니까. 아... ‘나는 거기서는 못 살겠구나’ 를 계속 느꼈던 거죠. (사례3)

- 마을구성원들에 대한 배제와 소외감은 선주민과 협력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함
- 육지 사람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산물 유통업을 시도했던 사례3은 선주민의 불신과 반발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나한테 그런 일자리를 주면 나 여기서 평생 살 거야. 했지만 안줬다는 거죠. (...) 경매사업도 참여해가지고. (...) 옥돔 택배를 할 테니까 네가 잡으면 (...) 우리가 육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팔게. 라고 해서 좋다고 해가지고 명함을 이만큼 봤는데 막상 팔리기 시작하니까 접더라고요. (...) 이제 갑자기 그 화를 버럭 내면서 물고기는 내가 잡고 왜 네가 파냐. 이렇게 되버린 거죠.(사례3)

- 선주민에게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는 시골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공공기관 종사자의 불친절한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음
- 도시인이 귀농할 경우 기본적인 귀농관련 교육만으로는 실제 농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할 것이고 선주민들과의 친밀성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관련정보 수집을 필요로 하게 됨

뭐 가면은 하도 어렵게들 하셔가지고 내 눈에는 정말 9급 공무원 뭐 아... 정말.. (...) 뭐 따뜻하게 해줄 의사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면 사무소에서 내가 비료를 신청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무슨 비료를 뿌리는지도 몰라요 (...)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럼 그거 하느라고 내가 진땀을 빼서 하는데, (...) 이 사람이 분명 이주민인지 아니까 좀 가르쳐주든지. (...) 아무도 그냥 뭐 원숭이 보듯이 이려고들 있고. (사례14)

- 선주민과의 관계가 편하지 못하다는 의견은 마을에 거주하는 정착주민 뿐 아니라 도시의 직장인에게도 나타남
- 사례15는 육지 사람에 대한 경계와 불신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편안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서로 경계하게 된다고 토로함

육지 것들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 막 자기들만의 그런 있잖아. 소곤 소곤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 지금 일하는 곳에서도. 마음 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 안하는 게 상책이다 싶고. 어쨌거나 내가 편안하게 일을 하려면 속마음 안주고 그냥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대하면서 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사례15)

4) 오해와 갈등

① 가부장적인 마을 공동체

- 면접자 중 상당수의 여성들에게서 제주지역 마을에서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면접자들은 마을 공동체의 가부장적 분위기는 마을총회와 부녀회 활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사례2와 사례4의 지적은 마을의 중요 행사를 하거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마을총회와 부녀회를 통하여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고 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나타냄

여자들이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고 사는 것 같지 않고, 이런 것들이 (...) 까놓고 들어가서 보면, 너무나 헌신하고 착취당하는 구조 (...) 의사결정은 남성들이 다 하면서, 그 뒷바라지는 여자들이 다하고 (사례2)

예를 들면 마을 회나 이런 걸 할 때도 여자 분들은 뒤로 다 빠져있어요 (...) 되게 작은 마을이어서 그런지 또 다르더라고요. 그 되게 부드럽고 서로서로 대화도 어 잘 나누시고 상냥하고 이런데 또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마을에 일이 있으면 부녀회는 계속 그 험한 일들 (...) 네 뒤치다꺼리만 하고. 나서서 뒷집 지고 일 진행하는 건 다 마을에서 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례4)

- 마을총회나 부녀회 등 단체 활동을 통하여 드러나는 가부장적 문화 이외에도 일상 생활 속에서도 마을의 선주민과의 관계에서도 여성에 대한 인식에서 가부장적 문화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함
- 특히 정착주민이 독신여성인 경우 결혼을 하지 않는 사실이 평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전통적인 가족관을 드러내고 있음

원래 제주도 여기, 지역사회에서는 여자가 이렇게까지 결혼안하고, 마을에 들어와서 산다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애는 여기 와서 이려고 있나 뭐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 저도 해녀 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하면, 시집이나 가라고 이런 얘기, 뭐 많이 들었지만 (...)제주도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인간군이 없어서 그런가? (...) 정말 이해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사생활이 없는 거잖아요. (사례10)

○ 제도적 진입장벽 (이장 피선거권, 대의원 추천, 투표권 등)

- 정착주민이 마을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주요 배경에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제도적인 진입장벽이 있다고 느끼는데 원인이 있음
- 마을공동체에 제도적 진입장벽은 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마을총회에 참석이 가능한 대의원 추천, 그리고 마을총회에서의 발언권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마을 이장에 출마할 자격을 얻기 까지는 아주 오랫동안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고 이러한 조건은 정착주민에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요인이 됨

제도적으로 이미 사실은 그런 배타성이 있어요. 이장 선거 같은 거를 뭐 마을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 예, 10년이면 10년이상 살아야만 후보자격이 생긴다거나 그런 게 있죠, 이걸 마을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외지사람이 감히 그 이장 같은 거를 한다는 건, 꿈에도 못 꾸죠, 육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막 온 사람이 출마하겠다고 하면 안 뽑아줄 꺼 아니예요? 그렇게 그냥, 해도 될꺼데,, 굳이 뭐, 10년씩이나, 아니면 뭐 1-2년 짧으면 또 모르겠지만, (사례13)

- 이장이 되기 위해 10년 혹은 20년 거주해야 하는 규정의 불합리함은 물론이고 사례2의 지적에 의하면 그러한 규정이 때로는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임
- 마을에 거주한 기간, 가족관계 형성에 따라서 이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 부여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은 배경에 대하여 사례2는 마을재산 관리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마을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하고 있음
- 마을 공동 재산 형성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마을 구성원과의 충분한 신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착주민들의 배제가 당연하다는 논리가 전개되고 있음

마을에 이장 투표권을 얻으려면 그 지역에 집을 사서 20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는 이런 식의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아도 거기에 부모님이 살고 있으면 거기 아

들에게는 투표권을 줘~ (...) 실제로 거기서 10여년을 살고 있어도 이 사람은 여전히 외지인 컨셉이기 때문에 안쥬~ 마을회비는 걷어가, 말도 안되는 구조들이 있어요, 여기 살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서로 충분히 아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거지, (...) 듣보잡인 사람이 재산권 행사 한다고 와가지고 마을에 감나라 배나라 이거 할 수도 없고 마을 공동재산 과정에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사례2)

- 정착주민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진입장벽에 대하여 마을 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16은 마을총회에 참석하고 발언을 할 수 있는 대의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오랜 시간을 통한 관계를 통해 선주민이 ‘원주민처럼 느끼는 것’임을 지적함

대의원이 된다. 라는 것은 그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동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추천을 해주면. (...) 그래서 그 추천이라는 것은 이제 본인이 그렇다고 뭐 1, 2년 살아서, 2, 3년 살아서 하는 건 그렇지만 오랫동안 살면서 젖어 들어서 어... 정말 격이 없이 이렇게 같이 원주민처럼 느끼고 그러면 야, 너 대의원한번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례16)

- 정착주민에 대한 마을공동체 진입장벽은 마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이 됨
- 마을의 현안 해결을 위하여 이장이 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정착주민들은 마을공동체에 진입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벽을 없앨 것을 요구하게 됨

이주민들은 자연환경이란 이런 걸 보고서는 들어왔는데. 그런 게(레미콘 공장) 생기면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막 안 좋은 소리 오가고. 이장 바뀔 때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장을 바꿔보자 막 이랬는데. 이주민들 중에서도 이제 나 이장을..그니까 뭐 이제 연수가 5년 이상 되거나 10년 이상 되거나 하면 이장(...) 후보가 될 수 있게 해 달라 그랬더니 이제 본토박이 분들은 거기에 원래 마음이 상해신거죠. (사례6)

② ‘편한 사람’ 끼리 일하는 며느리 모임 : 부녀회

- 정착주민 여성들은 부녀회 활동을 통하여 선주민과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음
- 면접자들은 부녀회는 마을총회와는 달리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나 실제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함

노인.. 그런 경로행사 할 때 항상 가요. (...) 처음에는 그니까. 아 오셨냐고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육지에서 내려왔고 그니까 아 그러냐고 하면서. 부녀회 가입 하려면 해라. 내가 나중에 전화한다. 뭐 무슨 행사했을 때 꼭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게 호의적이고 좋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때 뿐이지. 어디 사는지 위치도 정확히 다 아시지만 한 번도 저한테 연락을 했거나 뭐 이렇게 그런 적이 없었어요. (사례5)

- 부녀회의 활동이 주로 마을행사 지원이나 봉사활동 성격이 짙어 비록 단체가입을 두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정착주민에 대한 차별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편안한 사람끼리 일을 하다 보니 정착주민이 선주민과 어울리기 쉽지 않은 상황임
- 사례18의 주장대로 선주민의 입장에서 정착주민이 어울리기 힘든 원인은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기 힘든 것으로 보임

부녀회하고 마을하고 틀린 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뭐 다른 마을은 어떨지 몰라도. 여기 이 00리라는 이 마을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보수적이고, (...)그런 게 너무 심해요. (...) 우리 부녀회 같은 경우는 오늘 이사 오고 내일 누가 옆에서 같이 가자하면 되거든요. 임원이 아니라도 가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니까.(...) 뭐 입회 비라는 것도 없고 그냥 5천원이면 부녀회 활동도 하고. 부녀회 뭐 무슨 다양한 활동, 행사라든가 그럴 때 참여도 하고 하는데 (...) 그니까 여기 토박이들은 웬지 그 이주민에 대한 시각이 실은 막 그렇게 그닥 좋지는 않거든요. (...) 뭐 저 사람들 언젠가는 떠나갈 사람. 그리고 또 부녀회니 뭐 그런 활동에 괜히 (...) 괜히 끌어들이지 말고 우리끼리만 해보자는 식인데 (사례18)

- 여성들이 마을공동체에 참여하고 선주민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에서 오래 살 사람, 둘째 기혼여성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집단 내에서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음
- 부녀회는 가시적인 진입장벽은 없으나 정착주민 여성에게는 선주민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음

사실상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 정말 여자들은 들어가기 힘들어요, 부녀회라는 구조 밖에 없잖아요, 청년회는 여자들을 받지 않아요, 부녀회는 그 지역에 몸담고 있는 며느리들의 모임이에요. (...) 청년 여성들은 정말 커넥션을 구성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 마을 잔치나 이런거 할때는 일하기 바쁘지,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있지는 않아요, (사례2)

③ 신뢰구축의 어려움

- 선주민들이 정착주민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 이러한 두려움은 정착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결국은 오래 살 것인가 떠날 것인가에 대한 반복적인 질문으로 이어짐
- 외지인에 대한 경계는 제주지역의 역사적인 배경 및 오랫동안 육지 사람들에 대한 상처를 받은 경험 등으로 원인으로 풀이할 수 있음

육지 사람들에게 묻는 게 살 꺼나 갈 거냐~ 그걸 누가 알아. 온 사람도 모르는데. 아, 마음에 들면 사는 거고 맘에 안 들면 가는 거잖아요. (...) 그래서, 그래서 살았어. 여기서. 50년을 살았어. 그래도 50년을 살았어도. 어유. 제주사람 다됐네. 이런단 말이에요. (사례13)

- 정착주민에 대하여 떠날 사람인지, 오래 살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은 직장생활 속에서 사생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게 되며 이는 도시의 개인화된 삶에 익숙한 정착주민에게는 또 다른 부담감으로 작용함

그야말로 육지에서 뭐 왔다가 금방 갈 것이니까 (...) 그런 마음 자체를 버렸으면 좋겠어. (...) 그렇지. 근데 자꾸 그거를 묻는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 그런 이게 사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가봐. (...) 네네. 지금 우리 아빠(남편)가 육지에 갔는데 갔으면 그냥 갔나보다 하고 나중에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냥 있어야 되는데 매일 물어봐. 아저씨 왔냐고. (사례15)

- 선주민의 정착주민이 쉽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은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마을회의에서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의 대화가 있을 경우 쉽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함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토박이 분들은 여기서 아무튼 농사도 짓고 하시니까 그런 게 생겨도 어쩔 수 없이 뭐. 팔고 딴 데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하잖아요. 근데 회의를 딱 갔는데. (...) 아 저희는 외지에서 왔으니까 이거 들어서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면 그만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저 분들도 마음 상할 것 같기도 한데..(사례6)

라. 정착주민 증가와 사회변화

- 면접자들이 지적하는 이주민 증가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는 마을의 활성화와, 플리마켓 활성화로 인한 관광객 증가, 정착주민들의 재능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인구증가와 이로 인한 마을 활성화나 지역의 경제적 효과도 감지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게 (...) 장사하는 분들을 제외해놓고는 직접적인 이득이 없다고 얘기도 한다고 그러디디만은. 근디 (...) 간접 이득도 있거든요. 그 옆에 사람 장사가 잘 되고 해서 좀 하면은 직간접적으로 돌아가는 게 좀 있습니다게. 게난 그런 것도. 예를 들어 이렇게 식당 잘 되면 거기 가서 뭐. 네 뭐 설거지라도 하고 서빙도 좀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경하고. 보이지 않게 일거리도 또 많고 하다는 걸 감지를 차차 좀 해가고 있어요. (사례11)

- 정착주민들이 주도하는 플리마켓이 활성화 되면서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현상이 생성되고 있음
- 사례7의 주장처럼 플리마켓의 활성화는 이윤추구를 위한 활동이 아닌 함께 어울리고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새로운 문화적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굉장히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내가 남겨 먹겠다 뭐 이런 게 없으시고, 이거는 우리 하나의 노는 문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아, 제주에 가면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놀이를 한번 제공해보자, 이런 거가 굉장히 크죠 (사례7)

- 정착주민이 증가하면서 지역에 활기가 생기고 다양한 전문 인력이 유입됨으로써 지역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례도 발생함
- 이러한 사례는 교육, 문화 활동, 정보제공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재능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정착주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함

이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오다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용을 하면 도움이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가미를 시키면 마을에 여러 가지 재능기부도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구나. 하는 느낌도 들어지고. (...) 지난번 우리

마을 소식지 만들면서 우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 또 학교 선생 했던 분들은 공부방에서 애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사례16)

마.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안

1) ‘육지인’도 ‘제주인’도 아닌 00리 사는 사람

- 면접자들이 제시하는 정착주민과 선주민이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례자마다 표현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조금씩 시간을 두고 차이를 좁혀나가야 하고 정착주민과 선주민 모두의 노력이라고 함

우리 마을에서도 그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일부는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그렇게 이제 정착을 잘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요. (...)주민들 동아리에 끼어가지고 이제 활동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젖어들 수 있도록. (...) 축제를 할 때에도 이제 그런 그.. 이주민들하고 이제 관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하고. (사례16)

- 사례10과 사례4는 선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들이 ‘제주인’도 ‘육지 사람’도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육지인’과 ‘제주인’으로 구분하는 선주민들의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음
- 사례4의 진술은 아울러 정착주민의 인식도 시간이 지나면 ‘제주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성급함을 버릴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모임도 하고, 마을기업도 만들자, 뭐도 하자, (...)이주민이 그 전에 막 들어와서 사람들하고 융화하고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분들도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이주민은 육지 것이 아니라 그냥 00리 사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사례10)

근데 저는 제주도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제주 사람이다가 아니고 제주에서 사는 사람(...)제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제주를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거고. (...) 우리 동네 와서 우리 동네 사람이 되려고 그러나? 뭐 이게 아니라. 아. 제주 와서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구나. 이렇

게 바라봐주면 좋잖아요? 오는 사람들도 굳이 내가 제주사람이 돼야해. (...) 뭐 이런 거 말고. (...) 제주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제주사람들과 잘 어울리면 되잖아요. (사례4)

2) 서로 이해하기

- 정착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면접자들의 의견에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의 필요성이 있음
- 일반적으로 이주민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거주 지역에 동화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나 장기적인 사회통합 차원에서 보면 지역주민인 다수가 인식을 변화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주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황석규 · 고광명 · 김순임. 2015.)
- 정착주민과 선주민의 상생을 위한 서로 이해하기 교육은 정착주민의 입장에서 정착주민들에 대한 제주 이해하기 교육이 더 강조되고 있음
- 심층면접에 참여한 면접자 중 선주민이 정착주민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면접자는 없었음
- 사례3은 제주이주 이후 제주 언어, 역사, 문화 등에 관한 공부를 포함한 교육이 제주를 이해하는데 도움은 되었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 선주민들과의 차이를 줄이고 융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음을 주장함

저도 그 프로그램 가서 듣고 제주도 언어 막 공부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나 그것도 이주자가 가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 전반적인 제주도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 상식적인 면으로 쌓일 수도 있고요. (...) 그러나 이게 뭐 생활면에서.. 생활면에서 어떤 갭을 딱 줄이거나 이렇게 되지는 ..(사례3)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례10은 정착주민들은 선주민들이 정착주민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나 실천 등을 포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정착민도 뭔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지역민도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떤 교육을 받던 뭘 하든 그 분들도, 시선이나 의식의 전환이나 어떤 교육들이 좀 있어야겠다. 그분들도 노력을 하셔야지 서로간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지, 우리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례10)

3) 협력을 통한 상생

- 면접자들이 실제 생활 부분에서 제시한 정착주민과 선주민간의 상생방안은 일자리와 경제부분을 중심으로 마련할 수 있는 협력방안임
- 정착주민과 선주민간의 갈등은 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일자리 부분에서의 협력과 상생은 선주민들이 정착주민이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줄이고 협력을 통한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데 초점이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면접에 참여한 정착주민들은 선주민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제가 그 때.. 저는 이주자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그 조사를 할 때. 이상적인 케이스로 마을 협동조합을 꿈꿨었거든요. (...) 제주에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있었는데. 그래서 이상적인 케이스로 꿈은 게 저는 육지 사람들은 마케팅이 발달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있는데. 맨날 제주도는 무슨 판로가 없다고.(사례3)

- 사례7은 플라마켓에서 선주민들을 도와 함께 참여한 사례를 설명함
- 정착주민들이 서로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거나 판매하고 즐기기도 하는 플라마켓이 곳곳에 늘어나고 성행하자 연령이 높은 선주민들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고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선주민을 도와 함께 참여한 전례가 있음을 진술함

00에서 어머니회인가? 거기서 오셔가지고, 당근 주스 파시고, 당근빵 같은 거 파시고, 하니까, (...) 거의 셀러 분들이 젊으신 분들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하고 싶어도 00장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좀 힘드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과정을 해야 되는데, 다 컴퓨터를 해야 되니까, 접수도 하고 하는 것들이, (...) 지역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00장에서 운영진분들은 아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례7)

3. 소결

- 정착과정
 - 심층면접에 참여한 면접자들의 정착주민들의 이주동기를 보면 경쟁위주의 삶에 지쳐 여유로운 삶을 통한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치유를 위하여 이주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음

-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구직 및 경제활동, 의사소통의 어려움, 생활문화의 차이, 적응이 어려운 경우 특히 남성(세대주)이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가족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기후 적응, 대중교통 불편, 병원 등 편의시설 접근성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 특히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함과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는 지역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긴장하면서 살아야 하는 환경에 어려움을 호소함

○ 선주민과의 관계

- 선주민과의 관계에서 면접자들은 오래 살아도 선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정서적인 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함
- 선주민들의 인식은 제주사람과 육지사람으로 경계를 나누고 그 경계의 기준은 자신이 태어난 곳 뿐 아니라 부모님의 출생지 또한 중요하며, 가족관계, 제주에서 살아온 시간 등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지속적인 구별 짓기를 통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
- 선주민들은 정착주민에 대한 ‘왠지 모를 불편함’ 으로 자신들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으며 선주민들의 불편한 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피해의식, 섭섭함, 부러움과 질투 등의 감정이 함께 섞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착주민은 선주민에게 자신들이 소외된다고 인식하는데 그 이유는 마을 공동체에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되거나 협동사업 과정에서 불신으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의 불친절한 태도에서 자신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인식함

○ 지역공동체에서의 소외

- 정착주민들은 지역공동체에서 소외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정착주민이 마을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주요 배경에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제도적인 진입장벽(이장 피선거권, 대의원 추천, 투표권 등)이 있다고 느끼는데 원인이 있음

- 부녀회는 마을총회와는 달리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편안한 사람 끼리 일을 하다 보니 선주민이 활발하게 참여하기 쉽지 않음
- 선주민들의 공동체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는 신뢰구축이 어렵기 때문이고 이는 정착주민에 대한 오래 살거나 떠날거냐에 대한 반복적인 질문으로 이어져 개인화에 익숙한 정착주민들에게는 부담감으로 작용함

○ 정착주민 증가와 사회변화

- 면접자들이 지적하는 정착주민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는 마을의 활성화와, 플리마켓 활성화로 인한 관광객 증가, 정착주민들의 재능 기부나 봉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안

- 면접자들이 제시하는 상생방안의 출발은 우선 육지인도 제주인도 아닌 그냥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시간을 두고 조금씩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이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으로 이어져야 함을 역설함
- 면접자들이 실제 생활 부분에서 제시한 정착주민과 선주민간의 상생방안은 일자리와 경제 부분을 중심으로 선주민과의 지속적인 협력사업의 개발이라고 주장함

시사점 및 정착주민 지원방안

1. 조사결과 시사점
2. 정착주민 지원방안

1. 조사결과 시사점

가. 정착준비 과정

-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정착주민들의 정착 동기는 제주의 자연에 매력을 느껴서, 그리고 새로운 정착지로 선택, 직장 및 사업체 이동 순으로 나타났고 정착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는 주택구입 및 부동산 정보와 일자리 알선, 귀농귀촌 관련 정보로 나타남
- 정착주민이 이주를 위해 필요한 정보수집 경로는 먼저 이주한 지인이나 직접조사 혹은 인터넷을 이용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홈페이지나 공무원을 통한 정보수집 비율은 극히 낮았음, 이는 지인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유통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특히 최근 제주 이주와 관련한 많은 출판물들이 생산되고 제주이주에 관해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은 제주이주에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정보가 유통되는 경향이 있고 (홍창욱 2015, 가락 2012, 정다운 2015) 설사 정착과정의 어려움이나 주의할 점(오등명 2014) 등을 언급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실패담이나 현실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은 찾기 어려운 실정임
- 반면 정보 수집을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터넷 매체 활용과 담당 공무원을 통한 정보 수집이라고 응답한 응답률이 높아 공공기관을 통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심층면접 결과 이주 관련 정보가 공적인 경로를 통한 신뢰성 있는 정보 수집이 어렵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정보가 성공사례만 부각되는 점이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 방안이 필요함

나. 적응과정

- 정착주민의 제주생활 적응도 조사에서는 70%이상이 적응되었다고 응답했으나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된 응답자 중에서도 적응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34.5%)도 많아 거주하는 동안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정착주민의 이주이전직업은 사무/관리직 비율이 가장 높고(29.4%), 자영업(18.0%), 판매/서비스직(11.0%) 순이었으나 이주이후 직업은 자영업이 가장 높고(32.8%) 판매/서비스직(13.6%), 1차 산업(12.2%) 로 나타나 이주이전에 비해 사무/관리직 비율은 현저히 줄고 1차 산업과 자영업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남
- 제주 이주이후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약 53.8%를 차지하였고 다른 직업으로 변경한 이유로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가 가장 많은 46.1%를 차지했으나 동일 분야라도 제주의 소득이 낮아서(15.6%) 이거나 동일 분야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경우(10.0%)도 상당수 있었음
- 제주 정착이전 소득은 300-400만 원이 25.8%, 200-300만 원이 24.3%, 100-200만 원이 12.6%인데 반하여 제주 정착이후의 소득분포는 100-200만 원이 33.9%, 200-300만 원이 24.3%, 100만 원 이하도 22.6%로 나타나 제주 정착이후 소득이 낮아진 것으로 추측됨
 - 심층면접 결과 제주 소득이 일자리 및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가족단위 이주일 경우 남성(가장)이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가족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음
- 제주 정착이후 삶의 질(평균 3.68)은 정착이전(평균 3.22)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직업 변경과 소득저하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향상되었다고 인식함
- 정착주민들의 이주 이후 영역별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는 자연환경(평균 4.20)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여가문화와 친환경적 교육환경(평균 3.13) 영역이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도의 지원정책(평균 2.29)이나 교통 환경 및 접근성(평균 2.46), 경제활동 및 소득(평균 2.65)부분에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응답자의 생활이 만족스러운 이유는 자연환경과 취미생활이 대표적이었고 불만족 원인은 교통 불편, 육지출입 불편, 비싼 생활물가, 지역주민의 배타성 순으로 나타나 불만족 원인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구됨
 - 심층면접에 나타난 생활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일상문화의 차이나 언어소통의 어려움, 정서적 긴장감 등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선주민과의 관계에서 선주민들은 정착주민을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정착주민들은 선주민에게 차별받고 소외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관한 의견을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3.31로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이웃과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어서’ 라고 했으며, ‘지역주민이 배타적이라서’ (20.1%)라는 의견도 상당수 나타남
 - 지역주민과 융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30.8%)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이주민 자신의 태도 변화(24.2%), 이주민과 선주민의 네트워크 구축(19.3%) 순으로 나타나 네트워크 구축과 인식변화 교육 등을 포함하는 정착주민과 선주민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함

다. 정착 안정기

- 정착주민의 지역 내 행사 참여활동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항목별로는 문화운동 등 여가활동이 가장 높았고(2.89) 자녀학교 행사(2.68)가 조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2.31)이나 농민단체 모임(2.19) 등의 참여는 낮게 나타나 오히려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는 참여정도가 낮아 지역사회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함
 - 심층면접에 나타난 지역 내 행사에 활발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는 마을공동체와 부녀회, 청년회 등 공동체의 특성과 가족주의 혹은 가부장제 중심의 성별분리, 권력화, 서열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
- 제주 정착이후 이주를 통한 목표달성 정도에 관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3.10으로 약간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응답자의 64%가 영구정착 의지가 있었고 5점 척도로 지인에게 제주 이주를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 평균이 3.25로 나타나 이주를 권유할 의향이 약간 높은 것으로 드러남

라. 정책욕구

-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이주와 관련한 혜택을 받은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20.4%가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구체적인 분야는

귀농·귀촌 교육(48.5%)이 가장 높았고 제주문화 이해하기 교육(24.8%)과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사업(10.9%) 순이었음

- 정착주민 관련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 (52.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돼서’ (32.8%)라는 응답도 상당수 드러남, 특히 심층면접 결과 귀농·귀촌 교육 관련 정보와 교육 참여 기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음

- 응답자의 정착주민지원센터 인지도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는 모른다고 응답한 대상이 64.1%를 차지하였고 정착주민지원센터 이용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15.4%만이 이용경험이 있으며 전제 도움정도는 2.46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정착주민지원센터의 역할강화 및 운영 내실화가 요구됨
- 생활민원이나 사회문화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하는 대상은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34.9%), 마을주민(17.4%),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직원(15.8%), 이주민 동료(1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장이나 통장(3.4%)과 상담을 하는 비율은 극히 낮았음
- 정착주민을 위한 지원 정책 욕구 조사에서는 경력과 기술을 활용한 사회참여기회 제공(28.7%), 일자리 알선(25.8%),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13.4%)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 참여방안으로는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참여(44.5%), 자원봉사(25.8%)순으로 나타나 일자리 알선과 사회참여를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2. 정착주민 지원방안

가. 정착주민의 이주단계별 지원방안

1) 정착 초기 단계

-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체계 구축
 - 정착주민 다수가 먼저 이주한 지인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이주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주 이주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

- 이러한 정보들은 성공사례만 부각되는 점이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 방안이 필요함
 - 반면 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제주살이에 관한 정보는 충분하지 못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한 정보수집 또한 쉽지 않고 정착주민이 필요로 하는 실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수집·제공이 필요함
 - 관련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정착주민에 대한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수집 및 제공을 위하여 현재 활동 중인 인터넷 카페나 블로거와의 만남을 통하여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행정기관에서 공급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현실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함
- 정착주민과 선주민간의 상호 이해를 위한 정보교류 방안 마련
- 이주이후 이장 및 마을 지도자와 만남을 통하여 정착주민과 선주민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교류 시스템 마련
 - 정착주민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기초단위인 통·반리 사무소와 주민센터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정보수집
 - 정착주민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선주민에게는 정착주민의 특성과 자질, 전문성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일자리 알선 및 주택마련을 위한 정보제공
- 지역 주민 센터와 통·반리 사무소를 통한 객관적 정보제공 방안 마련
 -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과 정착주민의 경력 수집을 통한 일자리 알선 창구 마련
- 정착주민에게 지역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을 소식지 제작 지원
- 각 지역의 특성과 문화 등을 반영한 마을 안내지, 마을경조사 등을 담은 소식지 제작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 지원
 -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정착주민 전문 인력 활용 적극 장려

2) 정착 안정기 단계

○ 정착주민의 지역 내 활동 증대를 위한 방안

- 정착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함, 특히 조사결과 농민단체 모임이나 마을총회, 마을의 경제활동 등에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선주민들과의 교류확대를 통한 참여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정착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지역 내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공동체와 정착주민 모임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한 참여를 제안함
- 정착주민들의 지역 내 활동증대를 위하여 정착주민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그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부녀회나 청년회 등에 정착주민을 수용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를 지원하는 양방향의 지원이 필요함

○ 귀농귀촌 교육 확대

- 정착주민의 귀농귀촌 관련 교육 수요가 많지만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관련 교육의 공고가 너무 짧아 미처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관련 교육을 확대하여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줄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농업인 멘토멘티 사업에 정착주민들의 수요는 많으나 선주민 농업인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선주민 농업인에 대한 보상 확대를 포함한 방안마련을 위한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함
- 귀농인에 대한 멘토멘티 사업은 현재 중앙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확대방안 모색이 필요함

나. 정책실행 단계별 지원방안

1) 단기 이행 지원방안

○ 정착주민 네트워크 지원

- 정착주민들 간의 만남을 통한 적응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포함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공동체 참여를 높이는 방안 모색
- 반드시 선주민과의 융합이 목표가 아닌 이주한 제주도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

-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공동체나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 효과

○ 선주민에 대한 정착주민 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정착주민들의 네트워크 활동 지원을 통하여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착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생활문화의 차이점 등을 포함한 정착주민 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작
- 정착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수렴과 함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착주민 전문가 모집 및 제작활동 지원

○ 정착주민에 대한 제주 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체계화

- 정착주민에 대한 제주 이해하기 교육은 지금껏 단편적으로 민간과 행정이 별도로 따로 따로 진행되어 오던 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이 필요
- 제주 이해하기 교육 프로그램에는 제주에 대한 역사, 언어, 생활문화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지역단위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각각 포함하여야 함
- 프로그램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및 매뉴얼 작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작성이 필요함
- 정착주민에 대한 대상자별 지역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마련

○ 정착주민지원센터 재정비 및 확대

- 선주민과의 접촉이 많은 읍면지역과 교류가 적은 동지역을 차별화하여 정착주민지원센터의 기능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정착주민지원센터를 확대 필요
- 정착주민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각 지역 정착주민협의회를 비롯하여 기존의 자생단체들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
- 이를 위하여 정착주민지원센터와 협의회를 비롯한 정착주민 단체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교류 및 협력이 필요함

- 정착주민에 대한 종합적 실태파악을 위한 DB구축 및 선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정착주민 관련 실태조사는 2014년에 귀농-귀촌, 다문화, 문화예술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황경수 등 2014), 2016년 본 조사(제주 정착주민 500명 대상)가 이미 실시되었으나 정착주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파악에는 미흡함
 - 최근 타 사도에서 이주한 정착주민의 증가요인, 이주민의 집단적 특성, 이주동기의 변화를 비롯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위해서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작성하는 등록신고서를 취합하는 등 정착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함
 - 특히 한국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제주 이주민 증가요인을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의 정책과 차별화된 방안마련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함
 - 이주민 증가와 함께 선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선주민을 포함한 이주민과의 상생방안 관련 인식조사가 반드시 필요함

- 정착주민과 선주민간의 만남을 통한 융합방안 모색
 - 정착주민과 선주민간의 정기적인 토론회 개최
 - 정착주민과 선주민간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정착주민 적응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생활문화의 차이나 문화적 차이로 생기는 갈등이나 오해 등을 논의하고 화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필요함
 - 정기적인 토론회로 이성적인 면에서 대화를 통한 융합방안 모색과 함께 축제나 행사를 통한 모임으로 감성적인 접근 둘 다 모색해야함
 - 정기적으로 열리는 지역 단위의 축제에 정착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화합을 위한 지원 및 정착주민 참여유도가 필요함

2) 중·장기 지원방안

- 선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의 인식변화 유도, 이를 위해 행정 기초단

위의 리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실행

- 소통방법, 양성평등, 인권보호, 다양성의 이해, 민주적 가치 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정착주민 적응을 위한 공간마련 및 인프라 구축

- 정착주민과 선주민과의 갈등해소와 융합을 위하여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정착주민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함
- 정착주민을 위한 공간은 정착주민 뿐 아니라 선주민 등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한 열린 문화적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야함

○ 협력사업의 지속적 개발

- 전문성과 경력이 있는 정착주민들에 관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인력풀 제공
- 정착주민의 전문성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협력 사업에 대한 개발 및 지원
- 협력 사업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형태로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부처 간의 협력 및 논의가 필요함
- 플리마켓 참여 및 운영,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정착주민과 선주민과의 협력사업 지원
- 리 사무소에 정보제공 및 사무지원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거나 지원 하여 선주민과 정착주민의 협력을 통한 지원 사업 제안서 작성 등 행정업무지원 요원 배치가 필요함

참고문헌

- Martina Deuchl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Cambridge :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 c1992
- Pierre Bourdieu, *(La)distinction :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Paris: Editions de Minuit, c1979. 최종철 역,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서울. 새물결. 2005.
- 가락. 2012. 「거침없이 제주이민」. 꿈의 지도
- 권상철. 2003. “인구이동과 인적자원 유출: 제주지역 유출 유입인구의 속성 비교”. 「한국도시지리학회지」 6권 p. 59-73
- 권상철. 2010. 한국 대도시의 인구이동 특성 : 지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권 3호 p. 15-26
- 귀농귀촌 종합센터 (www.returnfarm.com)
- 김민영·최현. 제주도 이주의 현황과 전망. 탐라문화 50호 2015. p. 39-78
- 박경훈. “제주도 이주의 역사와 새로운 이주의 물결”. 제주의 소리 『박경훈의 제주담론』 2013. 1. 16
- 염미경. 2011. “개발과 이주 그리고 주거지 분화”. 「제주도 연구」. 35집 p. 1-38
- 오동명. 2014. 「제주도 무작정 오지마라」. 시대의 창
- 이상립. 2009. “연령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최초이동, 계속이동, 귀환 이동”. 「한국인구학」 제32권 제3호 p. 43-72
- 이상립. 2014. 시도단위 인구이동 유형과 지역 고령화. 보건복지포럼. 218호(2014. 12)
- 이성용·하창현 2014 “제주지역의 인구이동과 지역구조 변화 분석”. 「국토계획」. 제 49권, 2호 p. 41-5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 통계
- 최성호·이창무. 2013. “연령대별 지역간 인구이동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 「부동산학연구」 제 19권 2호 p. 87-102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황경수·오윤정·고관우. 2014.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이주민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 한승철. 제주지역의 기업이전 성과와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2014.
- 황석규·고광명·김순임. 2015.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분석을 통한 다문화 시민성교육」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홍창욱. 2015. 「제주, 살아보니 어때?」 글라
- 통계청. 2015. 『국내인구이동통계』

부 록

설문조사지

	<p>제주 정착주민 실태조사</p>	<p>ID</p>				
---	---------------------	-----------	--	--	--	--

안녕하십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제주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들의 이주동기 및 준비과정, 정착이후 경험, 지역 주민과의 적응과정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정착주민들의 정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선주민들과 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착이주민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제주사회의 이해, 배려, 협력 그리고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016. 3.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현혜순



조사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연구책임자 이화진(064-710-4974, howajin@hanmail.net)

(Fax 064-710-4979)

제주 정착 준비 및 초기단계

1. 귀하께서 제주에 정착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항목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직장 및 사업체 이동 | <input type="checkbox"/> ② 퇴직 후 새로운 정착지로 선택해서 |
| <input type="checkbox"/> ③ 경제적 위기(사업실패, 부도 등) 극복을 위하여 | <input type="checkbox"/> ④ 질병(육체적/정신적)치유와 휴양을 위하여 |
| <input type="checkbox"/> ⑤ 자녀교육을 위하여 | <input type="checkbox"/> ⑥ 제주의 자연에 매력을 느껴서 |
| <input type="checkbox"/> ⑦ 결혼 및 동거를 계기로 |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_____) |

2. 귀하께서는 제주 정착을 위해 거주지 조사나 직업환경 탐색 등 얼마동안 준비하셨습니다?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1년미만 | <input type="checkbox"/> ② 1년~2년미만 | <input type="checkbox"/> ③ 2년~3년미만 |
| <input type="checkbox"/> ④ 3년~4년미만 | <input type="checkbox"/> ⑤ 4년미만 | |

3. 귀하는 제주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나 민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항목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주택, 부동산 구입안내 및 등기관련 | <input type="checkbox"/> ② 건축허가(상하수도 관련 등) |
| <input type="checkbox"/> ③ 학교정보 등 교육관련 안내 | <input type="checkbox"/> ④ 귀농·귀촌 교육관련 |
| <input type="checkbox"/> ⑤ 일자리 알선 | <input type="checkbox"/> ⑥ 위치안내 및 일반 행정 |
| <input type="checkbox"/> ⑦ 제주 이해 교육 프로그램 (언어, 역사, 생활풍습 등) |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_____) |

4. 귀하께서 제주 정착을 결정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가족 설득 | <input type="checkbox"/> ② 제주에서의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 |
| <input type="checkbox"/> ③ 정착 비용 마련 | <input type="checkbox"/> ④ 낯선 사람들과의 적응 |
| <input type="checkbox"/> ⑤ 자녀 교육 문제 | <input type="checkbox"/> ⑥ 직업변경 및 주변정리 |
| <input type="checkbox"/> ⑦ 새로운 환경(바람, 습도 등)에 대한 적응 |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_____) |

5. 귀하께서는 제주정착 관련 정보를 어떤 경로로 습득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제주에 먼저 정착한 지인 | <input type="checkbox"/> ② 제주 출신 지인 | <input type="checkbox"/> ③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혹은 공무원 |
| <input type="checkbox"/> ④ TV 신문 등 언론매체 | <input type="checkbox"/> ⑤ 문화강좌 등 교육 | <input type="checkbox"/> ⑥ 직접조사 |
| <input type="checkbox"/> ⑦ 인터넷, SNS 등 사이버 공간 |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_____) | |

6. 귀하는 제주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보(안내)를 얻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행정기관(도청, 시청, 읍면동 등)홈페이지 ② 제주 안내책자 제작
③ 언론매체(방송, 신문 등) 광고 ④ 담당 공무원(도, 시, 주민센터) 상담
⑤ 인터넷(블로그 등) 활용 ⑥ 기타()

7. 귀하 및 귀하의 가족께서는 제주 정착 이후 “제주생활환경(이웃, 언어, 식생활, 지리 등)”에 어느 정도 적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응 되지않음 ② 적응안됨 ③ 적응됨 ④ 매우 적응됨

제주 적응 단계

8. 귀하의 직업을 아래의 표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제주 정착이전 직업	제주정착이후 직업
<input type="checkbox"/> ①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등) <input type="checkbox"/> ② 사무직/관리직(일반회사원 등) <input type="checkbox"/> ③ 공무원 <input type="checkbox"/> ④ 1차산업 종사(농업, 어업, 축산업 등) <input type="checkbox"/> ⑤ 생산직/기술직/노무직 <input type="checkbox"/> ⑥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⑦ 판매직/서비스직 <input type="checkbox"/> ⑧ 전업주부 <input type="checkbox"/> ⑨ 학생 <input type="checkbox"/> ⑩ 은퇴/무직 <input type="checkbox"/> ⑪ 기타 ()	<input type="checkbox"/> ①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등) <input type="checkbox"/> ② 사무직/관리직(일반회사원 등) <input type="checkbox"/> ③ 공무원 <input type="checkbox"/> ④ 1차산업 종사(농업, 어업, 축산업 등) <input type="checkbox"/> ⑤ 생산직/기술직/노무직 <input type="checkbox"/> ⑥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⑦ 판매직/서비스직 <input type="checkbox"/> ⑧ 전업주부 <input type="checkbox"/> ⑨ 학생 <input type="checkbox"/> ⑩ 은퇴/무직 <input type="checkbox"/> ⑪ 기타 ()

9. 귀하께서 제주정착 이전과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② 동일 분야의 일자리를 제주에서 찾을 수 없어서
③ 동일 분야라도 제주 지역의 소득이 낮아서 ④ 기타()

10. 귀하의 제주정착 이전 소득과 이주 이후 소득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제주 정착이전 소득	제주정착이후 소득
<input type="checkbox"/> ① 1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 100~200만원 <input type="checkbox"/> ③ 200~300만원 <input type="checkbox"/> ④ 300~400만원 <input type="checkbox"/> ⑤ 400~500만원 <input type="checkbox"/> ⑥ 500~600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⑦ 600~700만원 <input type="checkbox"/> ⑧ 700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① 1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 100~200만원 <input type="checkbox"/> ③ 200~300만원 <input type="checkbox"/> ④ 300~400만원 <input type="checkbox"/> ⑤ 400~500만원 <input type="checkbox"/> ⑥ 500~600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⑦ 600~700만원 <input type="checkbox"/> ⑧ 700만원 이상

15. 귀하께서는 거주지 선주민(이웃)들과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지 않다 ② 좋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좋다 ⑤ 매우 좋다

16. 귀하가 거주지 선주민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낯선 이웃들과 굳이 왕래하기 싫어서 ② 선주민(이웃)들이 배타적이어서
 ③ 일이 바빠서 ④ 친해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⑤ 이웃과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어서 ⑥ 기타 (_____)

17. 귀하께서는 정착주민들이 선주민과 잘 융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정착주민 자신의 가치와 태도 변화 ② 제주 선주민들의 적극적인 수용 태도
 ③ 정착주민과 선주민의 네트워크 구축 ④ 정착주민 대상 제주 이해하기 교육
 ⑤ 정착주민과 선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 ⑥ 기타 (_____)

18. 가족이 함께 정착한 경우 결정은 주로 누가 주도하였습니까?

- ① 남편 ② 아내 ③ 자녀 ④ 부모님

19. 제주로 정착한 이후 가족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가족관계가 더 좋아졌다 ② 정착 이후 가족관계가 악화되었다 ③ 변화 없다
 ④ (☞21번으로 이동) ⑤ (☞20번으로 이동) ⑥ (☞21번으로 이동)

20. 가족 간의 갈등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18번 항목의 2번 응답자만 응답해주세요)

- ① 자녀의 교육환경 변화 ② 생계비 부족
 ③ 정착에 관한 의견 충돌 ④ 지역사회 경조사 참여
 ⑤ 가족집단(시댁, 처가) 간 갈등 ⑥ 기타 (_____)

21.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정착과 관련한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22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24번으로 이동)

22. 혜택을 받았다면 어떤 분야에서 혜택을 받았나요? (혜택을 받은 사람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정착준비 현장교육(뽕투어) ② 제주문화 이해하기 교육
 ③ 선주민과의 네트워크 사업 ④ 폐교위기 마을의 주택지원
 ⑤ 귀농·귀촌 기본교육 ⑥ 기타 (_____)

28-1. 귀하께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 모임은 어떤 종류입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정착주민끼리의 모임 ②출신지역 향우회 ③지역 공동체 모임 ④기타(_____)

29. 귀하께서 향우회 등 지역사회 단체(모임)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② 향우회(단체나 모임)등 정보가 없어서
③ 향우회(단체나 모임)에 가입(절차 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④ 향우회 활동에 적응이 안 되어서
⑤ 시간적·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⑥ 기타 (_____)

30. 귀하는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원(건축허가, 상하수도 시설등과 관련된 인허가 등) 및 사회 문화적으로 어려운 문제(언어, 관습 등)가 생길 때 주로 문의(상담)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 ① 행정기관 인허가 처리 담당 공무원 ②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직원
③ 이장·통장 ④ 선(이웃)주민
⑤ 정착주민(동료) ⑥ 인터넷 블로그 및 SNS 를 통한 소통
⑦ 취미 및 스포츠 동호회 ⑧ 기타 (_____)

31. 귀하는 제주정착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직장 등)알선 ②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 임대 알선
③ 제주어 및 제주생활용품 적응교육 프로그램 확대 ④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⑤ 감귤, 축산부분 영농교육 ⑥ 선주민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⑦ 성공적으로 정착한 정착주민들에 의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⑧ 과거의 경력과 기술을 활용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⑨ 기타 (_____)

32. 귀하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등을 제주사회를 위해 활용할 경우 가장 좋은 참여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각종 위원회(자문, 심의 등) 참여
② 주민자치위원, 개발위원, 통리반장 활동
③ 자생단체(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 청년회 등) 활동
④ 자원봉사 활동(재능기부 등)
⑤ 마을 협동조합 설립 등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참여
⑥ 기타 (_____)

33. 귀하께서는 제주 정착 이후 이주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에 다가갔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4. 귀하께서는 영구 정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예(☞ 36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35번으로 이동)

35. 언제까지 제주에서 생활 할 계획이십니까?

(향후 _____년)

36. 귀하께서는 제주정착 전후의 삶의 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행복하지않음	행복하지 않음	보통	행복	매우행복
정착 전(36-1)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정착 후(36-2)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37. 귀하께서는 타지에 사는 지인에게 제주 정착을 권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8. 귀하는 제주정착주민으로서 제주발전을 위해 제주도정이나 시정(읍면동)에 바라는 사항이
 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술하여 주십시오(필요시 연락처 기재)

※ 다음은 귀하의 개인관련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SQ1)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SQ2) 연령	<input type="checkbox"/> ① 20대 <input type="checkbox"/> ② 30대 <input type="checkbox"/> ③ 40대 <input type="checkbox"/> ④ 50대 이상
SQ3) 결혼유무	<input type="checkbox"/> ① 미혼 <input type="checkbox"/> ② 기혼 <input type="checkbox"/> ③ 별거
SQ4) 가족구성원	(명)
SQ5)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① 고졸이하 <input type="checkbox"/> ② 전문대/대졸 <input type="checkbox"/> ③ 대학원 이상
SQ6) 현재 거주지역	(-----시(도)-----읍(면, 동))
SQ7) 전 거주지역	(-----시(도) -----기(구))
SQ8) 현재 주거유형	<input type="checkbox"/> ① 자가 <input type="checkbox"/> ② 전세 <input type="checkbox"/> ③ 월세/년세 <input type="checkbox"/> ④ 기 타
SQ9) 제주 정착 이후 거주기간	(_____년 _____개월)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보고서 2016-02

제주 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발행일 2016년 5월 31일

발행인 현혜순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064-710-3482, Fax.064-710-3489

www.jewfri.kr

인쇄소 내내로전자출판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ISBN : 979-11-87026-06-8